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 호

11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6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11호 (132)

1956년 11월 25일

내 용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불패의 생활적 기치 밑에

로동 계급의 힘은 무엇보다도 그의 조직적 단결에 있다. 조직적 단결과 또 그들 간의 견고한 국제적 련대성이 없이는 로동 계급은 자기의 민족적 및 국제적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

웨•이•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은 국제적 력량이다. 이 력량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로동자들의 국제적 단결이 필요하며 그들의 국제적 친선이 필요하다』. 로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은 국제적 력량으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를 타승함에 있어서 필수 조건으로 되며 세계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수 조건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바로 로동 계급의 그러한 국제적 친선 및 단결의 사상이며 행동 통일의 기치이다. 이 기치는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의 유일성과 근본적 리해 관계의 공통성, 계급적 련대성을 반영하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근로자들을 호상 접근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은 자기의 기치하에 모든 나라 근로자들을 결속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을 반대하며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을 촉진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전 력사적 경험은, 매개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오직 국제주의의 기치하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월 혁명,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생활력을 명백히 보여 주었으며 구라파와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창설 및 공고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호상 협조와 형제적 원조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의 불패의 생활력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이 당면한 과업으로 제기된 제국주의 시기에 더욱 발전되였으며 보다 거대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사회주의 一○월 혁명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발전과 세계 혁명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사변으로 되였다. 一○월 혁명의 승리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단결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찌기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즉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호상 원조의 형태는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강대한 세계적 체계를 이룬 오늘에 이르러 자기의 위력을 더욱 발휘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환된 오늘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더욱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국제 로동 운동과 식민지 및 피압박 인민들의 장성하는 민족 해방 운동에、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평화 옹호 운동에 더욱 더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에 립각하여 인류 력사상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호상 협조와 단결의 튼튼한 관계를 설정하고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 의하여 령도되는 이 나라들은 국가 주권의 존중과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호상 원조와 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있으며 공동의 경제적 앙양을 달성하면서 그의 위력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이와 같은 호상 원조와 협조 및 형제적 단결은 과거에 경제적으로 락후하였던 일부 국가들로 하여금 급속한 발전의 길에 들어 서게 하였다. 위대한 쏘련은 이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놀았다.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최근 년간에 국제 긴장 상태는 완화되였고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지구상에는 인류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광대한 평화 지대가 형성 공고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은 국제 무대에서 그의 위신을 비상히 제고시키고 있으며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을 사회주의 진영의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키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전 세계 로동 계급의 국제주의적 지지 성원에 의하여 오늘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으며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이 저주로운 식민주의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였다. 식민주의 체계는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평화、민주주의 및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주의적 지원 밑에 진행되는 민족 해방 운동은 식민주의자들을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몰아 넣고 있다.

거대한 생활력을 가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상은 이와 같이 오늘 전 세계 수억만 사람들을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위한 공동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높이며 그들을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고 있다. 수억만 인민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리익과 민족적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더욱 더 결속되여 멸망에 직면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아성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비약적으로 전변되는 현 사태 발전은 국제 반동들을 크게 불안케 하고 있다. 멸망의 구령터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평화의 원쑤들은 자기들의 위신을 만회하며 파산되여 가는 『힘의 정책』에서 출로를 찾기 위하여 국제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며 세계 도처에서 도발적 파괴 음모 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우선 무엇보다도 국제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을 허물어 보려는 데 그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원쑤들은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의 헌신적 노력과 투쟁으로 이루워진 성과들을 빼앗으며 이 나라들에 또 다시 지주、자본가 질서를 소생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거액의 딸라를 배당하며 악랄한 간첩、파괴 분자들을 투입하고 갖은 흉계를 꾸미고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증오에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우선 사회주의 대가정의 강력한 중심인 위대한 쏘련으로부터 기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리탈시켜 개별적으로 파괴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각 인민 민주주의 국가 내외에 있는 반혁명 분자들과 합세하여 쏘련을 반대하는 발광적인 허위 중상과 비방을 퍼뜨리며 사회주의 사상、맑스—레닌주의 사상을 훼손하며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호상 존중과 평등에 기초한 친선 단결을 파괴하려고 열중하고 있다.

파란과 특히 웽그리야에서 최근에 있은 반인민적、반사회주의적 분자들이 일으킨 반인민적 소동은 바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와해하려는 국제 반동들의 도발적 파괴 행동이였다. 그러나 사태의 발전은 그들의 그러한 모험적인 기대를 또 한번 분쇄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의 불패성을 다시 한 번 시위하였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웽그리야의 전체 애국적、진보적 력량은 자기들이 쟁취한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고수하는 데 궐기하였으며 한 때 반혁명 세력에 의하여 조성되였던 웽그리야 운명에 있어서의 극히 위급한 순간을 극복하고 위대한 쏘련의 형제적 방조 밑에 반동적 팟쇼 분자들의 파괴 행동을 분쇄하였으며 위대한 국제주의적 통일 단결을 수호하였다.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은 웽그리야 근로자들이 겪고 있던 고통과 난관을 심심한 동정으

로 주시하였으며 원쑤들이 도발한 반인민적 소동에 치솟는 격분을 표시함과 동시에 반인민적 소동을 분쇄한 웽그리야 근로자들에게 축하를 보냈으며 반혁명 세력의 폭행의 후과를 청산하며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는 길에 들어선 웽그리야 인민들에게 정신적 및 거대한 물질적 방조를 주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공화국 정부는 웽그리야 인민들에게 친선과 지지의 표시로서 판유리 一〇만 평방 메터, 쎄멘트 一만 톤, 담배 一〇톤을 보내였다。

사회주의의 원쑤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웽그리야는 자유롭고 독립된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의 대가정 속에 있으며 또 있을 것이다。 야노슈 까다르를 수반으로 하는 웽그리야 로농 혁명 정부의 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완전한 평등, 호상 내정에 대한 불간섭에 기초한 형제적인 긴밀한 친선 관계의 수립, 그리고 호혜와 호상 원조에 기초한 우리의 경제적 련계의 수립』。

국제 반동의 파괴 음모와 비렬한 중상 비방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장성하여 가고 있으며 그의 통일 단결은 불패의 것으로 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의 제 결정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가일층의 단결을 가져 왔다。 특히 현 국제 정세에 있어서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관한 一〇월 三〇일부 쏘련 정부의 선언은 사회주의 제국의 단결을 가일층 공고화하며 사회주의 제국이 공동의 앙양을 달성하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는 사회주의 제국 인민들의 투쟁을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또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특히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쐐기를 박으려는 국제 반동들의 허위적 중상을 다시 한 번 폭로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목적의 동일성과 사상적 기초의 공통성에 의하여 결합되여 있는 사회주의 제국 간에는 리해 관계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체계는 유일하고 확고한 사상적 기초, 즉 맑스—레닌주의와 국가 및 사회 제도의 동일한 사회주의적 본질을 가진 각 나라 인민들의 공고한 친선체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쐐기를 박으며 또 이 진영내에서의 『리해 관계의 대립』을 야기시키려는 국제 반동들의 모험적인 시도는 제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의 적들은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형태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 민족적 특수성에 관한 문제 등을 외곡하여 가지고 사회주의 체계 내부의 국제주의적 친선을 약화시켜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시도도 사실과 전연 부합되지 않는 망상적인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사회의 발전, 이것은 결국 유일한 전 세계사적 과정이다。 다양성은 이 유일한 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소여 나라의 구체적인 력사적, 사회적 조건과 경제적 발전의 특수성과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나라들은 자기의 력사를 창조하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이러 저러한 형태와 특수성을 나타내며 또 상이한 사회주의적 개조 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매개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들은 이로부터 자기 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최대한으로 표명하면서 자기 나라의 민족적 특성과 조건들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며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을 결합시킨다。 이것은 그들 간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로 가는 길이 각이하다는 것은 국제 반동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이 『낡아졌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에로 가는 길, 이것은 사방에 흩어지는 길이 아니며 이 모든 길은 하나의 목표에 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이러한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국제 반동들은 얼마전에 있은 파란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八차 전원 회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그것이 마치 파란에서의 자본주의 복구와 파란의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제국과의 리탈을 의미하는듯이 소동을 일으켰다。 얼마나 국제 반동들이 어리석게 행동하였는가 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뜨리부나 류두』지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써도 충분할 것이다。 『만일 그 누가 파란에서 일어난 변동이 우리 대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의미할 것이라고 철 없이 생각한다면 대양 건너편 예언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틀린 것처럼 그도 파란 문제에서 심히 오산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 어떤 자가 국내 생활의 민주화와 앞으로의 정치, 경제적 개혁이 사회주의로부터 리탈을 의미하며 기타 사회주의 제국과의 단결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도 역시 심히 오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책의 추축들은 우리 당들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들의 완전한 평등에 의거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완전한 단결에 의거하고 있는 쏘련과의 친선 및 동맹이였으며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오늘날 그 어떤 반동의 책동도 위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된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을 파괴할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발전의 합법칙성은 제국주의 침략 계층이 원하는 바와는 다르며 또한 그들이 어떠한 소동이나 모험적 도발을 일삼는다 하여도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파괴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사상,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사상은 오늘 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자기의 주위에 더욱 더 많은 인민들을 집결시키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세계 인민들로부터 고립되여 가고 있다。 곤경에 빠진 자기들의 처지를 쳐세워 보려고 그들은 세계 각처에서 도전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바 애급 인

민에 대한 영 불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적 침략 행동은 바로 사회주의 진영과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의 정당한 민족 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도전 행위의 로골적인 한 표현이다.

애급 인민에 대한 영, 불 침략자들의 군사 행동은 영웅적 애급 인민의 완강한 투쟁과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강력한 압력에 의하여 마침내 정지되게 되였다. 그들이 완전히 애급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결말이 결코 침략자들에게 유익하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 애급 인민의 편에는 세계 평화의 강력한 성새인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이 서 있으며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국들과 수억만 평화 옹호 투사들이 서 있으며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형제적 방조를 줄 것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위대한 쏘련은 애급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애급 문제의 평화적 조성을 위하여 국제 무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으며 중화 인민 공화국은 『중국 인민 애급 반침략 투쟁 원조 위원회』를 조직하여 애급 인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식민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싸움에 궐기한 애급 인민들에게 가장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국제적 협조를 광범히 환기시키고 있는 애급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최근 증대된 국제 긴장 상태와 제국주의 반동의 책동은 사회주의 제국의 가일층의 통일 단결과 인민들 간의 친선과 호상 신뢰, 로동 계급의 통일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 전쟁을 반대하여 나서는 모든 력량들이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활동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로동 운동에서의 분렬을 극복하며 공산당과 사회 당원들, 평화를 고수하며 제국주의의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자기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과 민주주의 및 독립을 수호하려고 하는 기타 정당들 간에 실무적 접촉을 설정하는 것은 이 사업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 및 정치 생활의 각 분야에서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불패의 친선과 긴밀한 협조는 조선 인민의 가일층의 번영을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되며 승리의 필수 조건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과거에도 시종 일관하게 그러했던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며 우리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련과의 전통적인 친선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사회주의의 대가정 속에 결속된 력량을 더욱 강화함에 적극 기여하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전 세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해방후 우리 인민들이 쟁취한 력사적 성과들과 자기 수중에 틀어쥔 자유와 권리를 옹호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광활한 길이 계속 우리 앞에 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위대한 쏘련과의 전통적인 친선 단결을 가일층 강화할 것이다.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 단결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와 행복의 초석이며 이는 우리 당과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본으로 되여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쏘련과 같은 가장 강대하고 믿음직한 벗을 동맹자로 가진 것보다 더 마음 튼튼한 것은 없다. 위대한 쏘련은 우리의 해방자일 뿐만 아니라 전쟁전 평화적 시기에 있어서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 또 오늘 전후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 시종 일관하게 우리에게 사심 없는 방조를 주었으며 또 주고있다. 우리는 이 은공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위대한 쏘련과의 형제적 단결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오늘 그 어떠한 원쑤들의 발악적 책동도 위대한 쏘련 인민과 전체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의 우리의 친선 단결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이 프로레타리아적 친선 단결은 불패이다.

제국주의의 침략 계층들의 불장난에 발맞추어 미제의 사촉하에 리 승만 도당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물렴치한 허위적인 비방을 류포하며 소위 『북진 전쟁』을 더욱 로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부질없는 소동이 결코 우리 인민들을 놀래우지 못할 것이며 동족 상쟁을 원치 않는 우리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을 조국 강토로부터 몰아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체 남북 조선 인민들은 더욱 단결하여야 한다. 어떠한 침략 세력도 단결되고 자각된 인민들의 힘을 결코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력사적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이 력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계속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확대 강화하여 전체 애국적 력량을 통일 결속하여야 할 것이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혁명 대렬의 단결을 훼손시키며 혁명의 리익과 대립되는 여하한 행위도 용허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 대렬을 더욱 철옹성같이 고수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여 적들의 온갖 도발 음모를 걸음마다 분쇄함으로써 정의의 위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인민의 복리 증진과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몇가지 문제

남 인 호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항상 자기의 모든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된 후 우리 당의 령도하에 인민 정권은 우리 나라 북반부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청산하고 근로 농민들을 토지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토지 개혁과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민족 반역자들이 소유하였던 산업、운수、체신、은행、상업 및 문화 기관들을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하는 산업 국유화 법령을 비롯한 로동 법령、남녀 평등권 법령 등 제반 사회 경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의 결과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인민의 복리를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며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조성되게 되였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중요 생산 수단이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는 새로운 경제 법칙、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 법칙、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 등등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이 작용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법칙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민 정권은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과도기 다우크라드 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경제 법칙의 작용과 인민 정권의 계획적 지도에는 일정한 제한성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본질적

특징들과 요구들은 높은 기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을 부단히 장성 및 개선시킴으로써 부단히 장성하는 전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인 국영 및 협동 조합 경리에 있어서의 온갖 활동은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직접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품 경제 형태와 사자본주의 경제 형태에서의 경제 활동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직접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망라된 사람들의 개인적 리해 관계와 인민의 리익과의 사이에는 일정한 모순과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적 경제 법칙이 소상품 경리나 사자본주의 경리에 있어서 그들의 발전 법칙으로 직접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사회주의의 경제 형태가 통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조건하에서는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경제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경제 활동의 자유는 인민의 리익에 봉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은 약간의 제한성을 가지면서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법칙으로 되였으며 모든 경제 운영은 유일한 목적、즉 인민과 사회의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목적에 종속되여 진행되게 되였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인민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은 생산을 부단히 장성 개선시킴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며 또 인민 경제의 급속한 장성 발전을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 각 부문간의 균형이 정확히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평화적 건설 시기로부터 전후 시기에 이르는 매 시기에 있어서 조성된 경제 형편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서의 결정적 고리를 과학적으로 구명한 기초 우에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옳게 설정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특히 인민의 복리를 체계적으로 증진시킴에 있어서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인민 경제 각 부문간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신중한 고려를 돌려 왔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평화적 건설 시기에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품 생산을 확대하며 국민 소득의 계통적인 증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근로자들의 관리하에 있는 현존 자원에 의거하여 공업과 농업 생산을 계획적으로 급속히 장성시키며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재건 및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위한 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며 소비품 생

산 부문의 앙양과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기초 조건으로 되는 중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며 특히 다른 공업 부문에 비하여 심히 락후한 형편에 있는 기계 및 기계 부속품 생산 공업과 방직 공업을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이에 고무된 공화국 근로 대중의 애국적 로력에 의하여 一九四六년부터 一九四九년에 이르는 기간에 공업 총 생산액은 국영 및 협동 경리에 있어서는 四二二%로、개인 공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三三七%로 장성되였다。 그중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은 평균 장성 속도보다 더 빨리 三·七배로 장성되였고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五·四배로、방직 공업은 六·九배로 더욱 급속히 장성되였다。

국가 기관 및 기업소의 종업원 수는 一九四六년에서부터 一九四九년에 이르는 三개년 동안에 三〇만명 이상이 증가되였으며 약 三만명의 인구가 생산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업은 기본적으로 근절되였다。

로동자、사무원들의 임금은 체계적으로 인상되였으며 물가는 一九四九년 한 해 동안에만 하여도 一六%가 인하되였으며 국영 및 협동 단체 상품 류통액은 一九四六년에서부터 一九四九년에 이르는 기간에 三二배로 급속히 장성되였다。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알곡 총 수확고는 一九四六년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九년에는 一四〇으로 장성되여 해방전 최고 수준을 릉가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는 식량이 부족한 지대로부터 식량이 여유 있는 지대로 전환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현저히 개선 향상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이와 같은 급속한 앙양과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을 위한 우리의 빛나는 전진은 미제 침략 세력과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의 불의의 침공에 의하여 심대한 저애를 받게 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선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후방의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인민 경제를 전시 체계로 개편하였다。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쟁으로 인하여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과 농업 생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강구 실시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설비들을 안전한 지대에 소개하여 생산을 계속하는 한편 지하 공장을 건설 운영케 하였으며 소규모적인 생산을 각지에 분산 운영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방 산업의 발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결과에 공업 총 생산액은 一九五一년부터는 매년 증가되기 시작하였는 바 一九五一년에 비하여 一九五三년

에는 약 一·四배로 장성되였다。 특히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에서의 면직물 생산은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감소되기는 커녕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二·二배로 장성되였다。

전쟁 시기에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과 정부는 로력이 부족되는 농촌에 협조대를 조직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자원적 원칙에 의거하면서 소겨리반과 로력 협조반들을 농촌에 조직 보급시키는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그리고 령세 빈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종곡의 대여、현물세、대여곡의 감면、비료、농기구의 공급、방대한 융자적 방조 등 농민들에게 물질적 방조를 주었다。 인민 생활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단한 배려와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지성어린 원조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가혹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시련을 이겨내고 전쟁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후 시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쟁에 의하여 피해 받은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당과 정부는 인민 생활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며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서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기본 과업으로 하는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고 있다。 우리 인민 대중은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이 주는 막대한 경제적、기술적 원조에 고무되면서 모든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고 온갖 창발성과 로력적 위훈을 발휘함으로써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은 三개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一九五六년 수준을 지난 一월에 릉가하였으며 三개년 계획 생산 총량을 八월 一四일에 완수하였다。

一九五五년에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은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二·三배、전쟁전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一五六%로 장성하였다。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一九五五년에 三·一배로、소비재 생산은 一·七배로 장성하였다。

일제 통치 시기에 가장 락후한 부문이였던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과 방직 공업은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각각 三·三배、二·二배 이상으로 장성되고 있는 바 그가 공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체계적으로 제고되여 가고 있다。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의 비중은 一九四四년의 一·六배로부터 一九四九년에는 八·一%、一九五五년에는 一七·九%로 제고되였으며 방직 공업의 비중은 같은 시기에 六%로부터 一一·

四%、一七•二%로 제고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 공업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던 일련의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였다。 직류 발전기를 비롯한 전기 기계、신형 선반을 비롯한 금속 절삭 공작 기계 및 광산 기계、축력 제초기 파종기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과 각종 고급 견직물 등 새로운 제품들이 생산되게 되였다。

이 기간에 인민 생활 필수품들의 생산도 현저히 장성하였는 바 一九五三년에서부터 一九五五년에 이르는 기간에 면직물은 一二三%、견직물 三六八%、양말류 二九○%、내의류 四六一%、신발류 一九○%、간장 一三八%、된장 一五六%、비누 一二八%로 급속히 장성되였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새로운 기술과 작업 방법들이 보급 도입되고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고 로동 및 작업 조직들이 개선되고 있다。 로동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이 앙양되고 증산 경쟁 운동이 광범히 전개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은 부단히 제고되고 원가는 체계적으로 저하되여 가고 있다。

一九五五년에 공업 부문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은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一三二%、一九五三년에 비하여서는 一五二%로 급속히 제고되였으며 기본 건설 부문에 있어서는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一三○%로 제고되였다。

인민 생활 향상의 가장 기본적 지표로 되는 국민 소득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물질적 생산의 증가、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원가 저하로 인하여 一九五五년에는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一六○%、一九四九년에 비하여는 一一一%로 현저히 장성되였다。

국가 기관 기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는 一九五三년에서부터 一九五六년에 이르는 기간에 二七만 여 명 이상이 증가되였으며 협동 조합에 가입한 수공업자 인구는 一九五三년 一二월에서부터 一九五五년 一二월에 이르는 기간에 四만 二천명 이상이 증가되였다。

로동자、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一九五三년을 一○○으로 할 때 一九五六년 一一월에 와서는 내각 결정 七五호에 의한 새로운 임금 인상을 고려한다면 一八七%로 장성되게 될 것이다。一九五五년 말까지의 기간에 四차에 걸쳐 실시된 물가 인하의 결과 주민들에게 준 리득은 약 三○○억원에 달하며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에서의 자유 판매 물가는 一九五三년에서 一九五五년에 이르는 기간에 四七%가 인하되였다。 지난 八월 一四일에 실시된 전후 五차로 되는 물가 인하의 결과 공업 상품 가격은 一○•三%가 새로이 또 인하되였다。

주민들의 구매력의 증가와 물가 인하로 말미암아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량은 급속히 장성되였는 바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一九五五년에는 二배 이상으로 장성되였으며 一九五六년에는 약 二•三배

이상으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로동자、사무원들을 위한 주택은 一九五三년 七월부터 一九五五년 말에 이르는 기간에 三五○여 만 평방메터가 건설되였으며 一九五六년에는 一二○만 평방메터 이상의 주택이 새로이 건설되게 될 것이다。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당과 정부는 정전 직후부터 一九五六년 六월말에 이르는 기간에 약 二一만 톤에 달하는 종자 및 식량을 대여하였으며 六만 五천톤의 량곡을 무상 원조하였다。 이 기간에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四七억에 달하는 융자적 방조를 받았으며 현물세의 고정 부과와 감면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一○만톤에 달하는 리득을 받았다。 정전후 보건 문화 시설들도 급속히 장성하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지방 자치세、소득세 등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며 사회 문화 시책을 위한 지출을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一九五五년에는 약 二•五배로 증가시켰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가지 자료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부단한 배려의 결과 인민 생활이 현저히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정전 후 짧은 기간에 전쟁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인민 생활이 일정한 정도로 개선 향상되고 우리 나라 인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당과 정부가 전후 시기에 실시한 경제 정책이 정확하였기 때문이다。 전후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견지하여 온 로선、즉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도 급속히 발전시키는 로선은 유일하게 정당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확대 재생산의 필수 조건으로 되는 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소비재 생산을 급속히 확대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간의 호상 관계 문제는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준수되여야 할 각 부문 간의 균형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발전 없이는 어떠한 확대 재생산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위대한 레닌은 「생산을 확장하려면、먼저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따라서 또 생산 수단을 제조하는 사회적 생산 부문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레닌 전집 二권 一三七페지)고 강조하면서 소비재 생산에 비하여 생산 수단의 우선적 장성은 확대 재생산에 있어서의 경제 법칙이라고 말하였다。

맑스의 재생산 표식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사회 생산물의 재생산은 두 가지 형태、즉 첫째는 사용 가치 또는 현물적 형태로、둘째로는 가치 또는 화폐적 형태

로 진행된다。 현물적 형태에 있어서는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一부문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二부문으로 구분된다。 사회 생산물의 가치는 생산물에 이전된 생산 수단의 가치C와 새로이 조성된 가치(V+M)로 구분될 수 있다。(이것들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 본질은 자본주의 체계하에서와 사회주의 체계하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지만)이를 표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一부문$(C^1+V^1+M^1)$과 二부문$(C^2+{}^2V+M^2)$에 있어서 확대 생산이 진행되려면

一부문의 생산 총액은 C^1+C^2보다 많아야 하며 二부문 생산 총액은$(V^1+M^1)+(V^2+M^2)$보다 적어야 할것이며 따라서 C^2보다(V^1+M^1)이 더 커야만 될 것이다。

그런데 인민 경제의 발전과 확대 재생산은 새 기술의 도입 없이는 진행될 수는 없다。 새 기술의 도입에 따라 생산물 가치에 있어서 C의 비중은 제고된다。 이결과 二부문에 있어서 C^2는 (V^2+M^2)보다 더 빨리 장성되며 一부문에 있어서도 C^1은(V^1+M^1)보다 더 빨리 장성하게 된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V^1+M^1)은 二부문의 C^2보다 더 크다。따라서 一부문 $(C^1+V^1+M^1)$는 二부문$(C^2+V^2+M^2)$보다 우선적으로 장성되여야만 될 것은 명백하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일 생산 수단 생산이 소비재 생산보다 우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재생산에 있어서 확장 속도 뿐만 아니라 확장의 절대적 규모가 축소되며 심한 경우에는 확대 재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국방력의 강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적 장성에 기초하지 않고 소비재 생산의 확대를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며 경제 건설에서의 우경적 투항주의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소비재 생산 부문도 급속히 발전시킬 수는 없으며 인민 생활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다。

사실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료품들과 공업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는 농업 생산을 장성시켜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에 더 많은 비료와 농약、농기계와 농기구들이 공급되여야 하며 관개 하천 공사 등을 위하여 쎄멘트、철재、모터、변압기、뽐뿌 등 전재와 설비품들이 보장되여야 한다。

소비재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장들을 증설하는 데도 쎄멘트、벽돌、철재、기계、설비들이 보장되여야 하며 주택 문화 후생 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하여서도 쎄멘트、벽돌、철재 등 각종 건설 자재들과 파이프 등 각종 설비품들이 요구된다。

이에서 명백하여진 바와 같이 인민의 복리 향상은 금속 공업、기계 공업、화학 공업、전재 공업 등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인민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의 체계적 향상의 원천으로 되는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물질적 생산 부면에 종사하는 인원이 증가하여야 하며 또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이 제고되여야 하는 바 이 어느 것도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없이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정부는 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적 장성을 보장할 중공업의 복구 건설에 중점을 두면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조건으로 되는 각종 식료품들과 직물、진발 기타 각종 공업 상품들을 더 유족하게 공급하며 주택 문화 후생 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하는 데 비상한 로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것은 전후 시기에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촉진하는 전 행정에서 국가 투자의 비률과 생산 장성、특히 소비재 생산의 장성 템포를 표시하는 일련의 자료들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과 인민 생활의 체계적 향상의 기초 조건이라는 이 맑스―레닌주의 명제를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처한 국내 국제적 형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에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은 전쟁 경험을 잘 참작하며 과거 우리 나라의 력사적 경제 조건들과 또한 우리가 처한 형편들을 바로 분석 규명하는 기초 우에서 인민 경제 복구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정하여야 하겠다」고 지적하였다。

전후 시기에 조성된 우리 나라의 경제 형편을 분석하여 볼 때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전쟁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그런데 인민 경제 각 부문들이 받은 피해는 동일하지는 않았다。 농업보다도 공업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경공업보다 중공업이 더욱 혹심하게 파괴를 당하였다。

전쟁 피해로 인하여 一九五三년의 공업 총 생산액은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六四%로 감소되였는데 그중 소비재 생산 부문은 九九%로 감소된 데 대하여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은 四二%로 격감되였다。 선철、강괴、쎄멘트、화학 공업 등 중요한 생산 수단 생산은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중지되였으며 금속 공업 및 화학 공업 등 중공업 공장들의 파괴 정도는 다른 공장들에 비하여 더욱 심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공업、그중에서도 중공업을 우

설적으로 복구 건설함이 없이는 인민 경제 전반의 복구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도、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러한 형편을 고려하여 당과 정부는 一九五四—一九五五년간에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四七%에 해당하는 二五五억 六、○○○만원을 공업에 투자하였는바 그중 五분의 四에 해당하는 二○四억 三、五○○만원은 중공업 공장들을 복구 건설하는 데 투하하였다。

결과에 수풍、장진강、허천강、부전강 발전부들의 발전 설비、김책 제철소의 용광로와 해탄로、황해 제철소、성진 제강소、강선 제강소의 평로、전기로들과 압연 시설들의 복구 확장、성흥、검덕、성천、무산을 비롯한 광산들의 선광 설비、중요 탄광들、북중 기계、락원 기계 공장、흥남 비료 공장의 류안 비료 생산 설비、본궁 화학 공장의 카바이트、암모니야、가성 소다 직장들、승호리、천내리、고무산、해주 쎄멘트 공장、수많은 제재 공장들을 포함한 많은 중공업 및 화학 건재 공업 공장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복구 확장되였으며 희천 공작 기계 공장、희천 정밀 기계 공장、기양 농기계 공장、대성、강남 벽돌 공장 등 기계 공장과 벽돌 공장들이 신설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공업 기업소들과 공장들이 복구 신설된 결과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전력 및 연료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였으며 공장、기업소들과 도시와 농촌들의 복구 건설에 필요한 각종 철재、쎄멘트、벽돌 등 건재들과 기초적인 기계 설비 및 그의 부속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였으며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화학 비료와 농기계 및 농기구들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였으며 관개 공사들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전후 인민 경제 각 부문、특히 공업을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면서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와의 경제적 련계、협조 관계를 강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 남아 있는 락후성과 편파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공장、기업소들의 지역적 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계 공업、방직 공업 등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서 우리 나라 경제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국내에서 모든 공업 부문、특히 모든 중공업 생산 부문을 건설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라의 경제 형편이나 자원 관계로 보아 유리한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에서의 특수성의 하나이다。

쏘련에 있어서는 혁명후 중공업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건설 발전시키는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여 왔다。 쏘련은 당시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제국주의 포위 속에 있었으며 더우기 짜리 로씨야로부터 물려받은 인민 경제는 기술 경제적으로 아주 락후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단시일내에 기술 경제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제국주의 세계로부터 사회주의의 경제적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공업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건설 발전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의 사정은 이와 전연 다르다。 오늘 사회주의는 一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내에는 쏘련과 같은 강력한 중공업을 가진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편이 달라진 현재에 와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중공업의 모든 생산 부문을 자국내에 건설 발전시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 제 국가 사이에는 동지적 협조 정신에 립각한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과 협업 관계가 나날이 발전 강화되여 가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고립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세계사적 전진의 전체적 궤도의 일부분을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주의적 국가들이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내의 경제적、기술적 및 자원적 조건으로 보아 합리적이며 유리한 부문들을 각기 분담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자국의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총체로서의 경제적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 제三차 대회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되여 있다: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호상 협조 및 호상 원조 관계를 일층 강화하며 이 나라들과의 인민 경제 계획을 호상 밀접히 결합시키는 기초 우에서 우리 인민 경제를 더욱 전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당 대회의 이 결정 정신에 엄격히 립각하여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의 원칙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 속도와 균형에 대한 전망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연적、기술적、경제적 제 형편들과 장래의 가능성들을 충분히 타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내 다른 나라들의 그것들까지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는 바에 의하여 사회주의 진영내의 적지 않은 나라들의 경제에 있어서 일련의 공업에 대한 원료적 기초의 발전이 불충분한 형편에 처해 있으며 기계 공업 발전에 있어서 국제적 련계가 불충분하게 지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에 필요한 종류의 광업、석탄、금속、화학、건재 공업 부문들과 국내에서 다량으로 소요되는 기계 및 기계 부속품 생산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명제를 우리 나라 경제의 구체적 형편과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의 국제적 련계 관계를 분석 규명한 기초 우에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에만 편향과 주의를 일면적으로 편중하는 경제 건설에서의 일면성을 배격하고 경공업과 농업도 급속히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공업의 응당한 발전이 중공업의 우위적 발전에 균형적으로 동반되지 않고서는 중공업도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인민 경제의 발전에 따라 종업원 수와 로임 폰드는 반드시 증가되게 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평균 임금을 인상하며 물가를 체계적으로 인하하여야 하는 바 이는 경공업에서 공업 상품들과 식료 상품들이 더 많이 생산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민 경제의 복구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요구된다。 중공업 건설에는 비교적 많은 투자와 기간이 요구되는데 비하여 경공업 건설에 요구되는 투자는 비교적 적고 건설 기간도 비교적 짧고 자금의 회전도 비교적 빠르다。 따라서 경공업의 적당한 발전은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공업을 동시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업 제품의 생산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각 부문간의 올바른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다。

당과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一九五四년—一九五五년간에 五一억 二、五〇〇만원의 국가 자금을 경공업 건설에 투자하였다。 이 투자에 의하여 평양 방직 공장、구성 방직 공장、신의주 법랑 철기 공장、평양 일용품 공장、룡성 유류 콤비나트들이 신설되였으며 녕변、박천 견직 공장、길주 팔프 공장、신의주、회령 제지 공장、신의주、청진 제유 공장들이 복구되였다。 청진 방적 공장의 복구 공사、평양 염색 공장、신포 통조림 공장 등의 신설 공사도 성과적으로 진척되여 가고 있다。

공업과 농업간의 호상 관계는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서의 기본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공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 소비 협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바 로농 동맹의 강화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본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업과 농업간의 경제적 호상 관계를 강화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의 기본 문제인 것이다。

공업과 농업의 관계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노는 것은 물론 공업이다。 공업은 인민 경제 전반의 기술적 재건과 발전의 기초 조건이며 공업의 발전은 로동 계급의 량적 및 질적 장성을 가져 옴으로써 로동 계급의 령도적 강화의 물질적 조건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의 발전도 비료、농약、농기계 및 농기구 생산 등 공업 생산의 장성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여기에 나라의 공업화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가 명확히 교시한 바와 같이 농업은 우리 인민들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업에 원료를 공급하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이 없이는 공업의 복구 건설에 대한 문제도、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전 후 공업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로동자、사무원 수가 증가되고 도시가 발전하는 등 제 조건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요구하게 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전쟁 기간에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농경지와 저수지、관개 시설、하천、제방들이 파괴당하였으며 역축 수는 격감되고 농촌 로력들이 부족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 발전은 정전 후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 발전에 발맞추어 나갈 수 없게 되였으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에 저애를 주게 되였다。

당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一九五四년 一一월 전원 회의에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一九五五년 一二월 전원 회의에서는 농촌 지도 사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 결함들을 퇴치 시정하고 전쟁에 의하여 입은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는 동시에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공화국 정부는 三개년 계획의 시초에 예견되였던 것보다 농촌 경리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관개 하천 공사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비료와 농기계、농기구들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결과에 농촌 경리에 대한 투자는 三개년 계획에 예견된 것보다 三七%나 더 증가됨으로써 三만 七천 七백 정보의 경지 면적과 九만 정보의 관개 면적이 복구 확장되였다。

그러나 공업과 농업간의 균형 문제를 해결함에 있

어서 중요한 것은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공업과 소규모적인 농민 경리와의 모순을 해결하는 문제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우리 당은 국영 농목장、농기계 임경소 등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거점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대규모 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협동화 운동을 성과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는 一九五六년 九월말 현재로 전체 농가 호수의 七九·一%와 농경지의 七三%가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고 있다。

우리 당 제三차 대회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八월 전원 회의는 三차 대회의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五개년 계획 작성에서 반드시 준수되여야 할 기본 문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당이 제시한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를 더 한층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키기 위한 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이에 기초하여 농업 및 경공업도 급속히 발전시키는 총 방향에 엄격히 의거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 속도와 균형을 구체적으로 옳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류의하여야 할 것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정확히 인식하는 문제이다。 일부 일꾼들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필연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나머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주의를 돌리고 있는 우리 당의 정책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꾼들은 우리 당의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이 마치나 식민지적 편파성으로 인하여 경공업이 심히 락후하였던 시기、전쟁의 특수한 시기、또는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는 시기에 있어서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정확한 리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인민 경제 각 부문간의 균형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계획 기간의 구체적 경제 형편들과 그 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정치 경제적 과제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다。

三개년 계획 기간은 주로 기업소들을 복구하는 시기였다면 五개년 계획 기간은 기업소들을 개건 확장하고 그것들을 새 기술로 장비하며 새 공장들을 건설 운영하는 시기이며 三개년 계획 기간에는 복구 건설 자금의 많은 부분을 형제적 나라들의 원조에 의존하였다면 五

개년 계획 기간은 주로 자체 자금 원천에 의존하여야 한다。

三개년 계획이 초과 완수됨으로써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공업은 총체적으로는 전쟁전 수준을 훨씬 릉가하게 되며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사업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달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三개년 계획이 완수 된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의한 피해가 너무나 심하였던 까닭으로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공업 부문도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량단된채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五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 속도와 호상 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타산되여야 할 것이다。

제三차 당 대회가 제시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광활한 전망은 전체 근로 대중을 애국적 열의와 로력적 위훈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초과 수행과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준비 사업에서 공화국 근로자들이 쟁취하고 있는 빛나는 성과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의 물질 문화 수준 향상에서 거대한 전진을 확실히 약속하여 준다。

종파주의의 사상적 근원과 그의 해독성

김 시 중

로동 계급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조직성이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로동 계급은 굳게 통일 단결된 자기의 조직의 힘으로 자본의 정새를 파괴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이 지배 계급으로 되고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된 이후에 그의 조직의 힘은 더욱 위력을 발휘하는 바 여기로부터 로동 계급은 자기의 조직적 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로동 계급이 대중적、조직적 력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혁명적 전위인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의 모든 력량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참모부인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 세력의 조직적 위력을 남김 없이 발휘케 하기 위하여 로동 운동내에서와 또 당내에서 온갖 불통일의 근원으로 되는 종파주의적 경향들을 철두철미 배격한다.

맑스는 제一 인터나쇼날의 력사가 각종 종파들과의 투쟁으로 충만되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맑스、엥겔스 저작 선집、제二권 제二분책、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二五六—二五七페지 참조).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의 많은 로작들、특히 서한들에서 종파주의의 해독성과 그와의 비타협적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쏘련 공산당이 그의 창건 초기부터 각종 종파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했으며 특히 집권당으로 된 이후에는 트로쯔끼파、지노비예브파、우익 기회주의자、무정부주의적 경향、민족주의적 편향들 및 기타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적、반당적 경향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쏘련 공산당 제一〇차 대회에서 채택된 유명한 결정서 『당의 통일에 관하여』에서는 어떠한 종파라 할지라도 그것은 해독적이며 따라서 일체의 종파를 용허할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되였다.

각국의 혁명 운동의 경험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이 온갖 종파적 경향들을 철저히 극복하였을 때에는 불패의 통일된 력량으로 강화되여 당면한 혁명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종파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조장되였을 때에는 산산히 분렬되고 조직적 력량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기회주의적 당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종파 분자들은 온갖 종파적 경향이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종파 행동을 변호하며 심지어는 그의 『유익설』까지 들고 나온다. 쏘련 공산당 내의 일부 종파들이 一九二〇년대에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파의 자유가 허용되여야 한다』느니 또는 『당면한 난관들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파들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등 떠드려댄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종파주의의 해독성에 대한 잘 못된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부 사람들이 쏘련에서 나로드니크들의 초기 활동의 혁명적、긍정적 역할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론의를 론거로 하여 가지고 이와는 하등의 관련도 없는 견해、즉 우리 나라에서도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종파들의 활동이 『유익한』 것이였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종파의 유익설』의 한 표현임에 틀림이 없다. 또는 一九二〇년대와 그 이후 오래 동안 조선 로동 계급이 자기의 통일적 당을 못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주로는 종파주의의 해독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주되는 원인이 마치 객관적 조건(주로 일제의 탄압과 로동 계급의 장성의 미약)에만 있은 듯이 해석하는 경향、그리고 당시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원인 (종파주의가 발생한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주로는 객관적 조건에 있는 듯이 해석하는 경향 등은 결국 종파주의를 변호하는 결과로 빠지게 된다.

각종 종파적 경향과의 투쟁、그를 극복하는 행정에서 당이 강화 발전된다는 명제를 악용하면서 마치도 당내에 종파가 있어야 당이 발전될 수 있다는 듯이 사태를 묘사하려는 태도는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 어느 때든지 종파의 존재 그 자체가 당의 강화 발전의 요인으로는 될 수 없다.

종파의 존재가 당 발전을 위하여 해독적이기 때문에 그를 극복하는 행정에서만 당이 강화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종파주의의 해독성은 그의 사상적 근원을 분석하여 보아도 명백해지며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의 구체적 력사를 고찰하여、보아도 자명해진다.

＊ ＊ ＊

로동 계급과 그의 당 내부의 종파적 경향의 사상적

근원을 해명하기 위하여 우선 착취 계급 내부에서의 각종 파벌과 로동 계급 내부에서 발생하는 종파적 경향과의 근본적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력사상에서 볼 때 착취 계급들 내부에는 시종 몇개의 파벌들이 있어서 호상 대립되여 있었다.

노예 소유자 계급 내부에서는 례컨대 고대 희랍을 놓고 보더라도 귀족적 노예 소유자 층과 민주주의적 노예 소유자 층이 대립되여 있었다. 봉건 령주 계급 내에서의 파벌적 대립은 더욱 심하였는 바 거기에서는 지방 할거가 극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봉건 계급들 내부에서의 당쟁이 매우 심하였다. 부르죠아 계급 내부에서도 여러 파와 당파들이 대립되여 있다. 한 나라 안에 여러 개의 부르죠아 정당들이 존재하며 이 부르죠아 정당들 가운데서도 소위 여당과 야당이 갈리여 있다.

착취 계급 내부에 여러 파벌들이 생기고 서로 파쟁을 하게 되는 근원은 착취 계급의 사회적 본성 그 자체로부터 흘러 나온다. 즉 모든 착취 계급은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바 이로 말미암아 착취 계급 내부에서는 리해 관계의 통일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계급 내부에서의 대립과 파벌과 파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로부터 착취 계급 내부의 대립은 례하면 부르죠아 계급 내부에서의 파벌들의 대립은 부르죠아 계급의 립장과 어떤 비부르죠아적 립장과의 대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부르죠아 계급의 립장내에서의 대립으로 된다.**

착취 계급들의 립장과 로동 계급의 립장은 원칙적으로 다르다. 로동 계급 내부에서는 리해 관계의 대립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로동 계급의 립장에서의 원칙적인 대립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로동 계급의 립장과 비로동 계급 립장의 대립만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명백한 바와 같이 로동 계급과 그의 당 내부에 종파들이 발생할 수 있으되 그것은 결코 로동 계급 자체의 어떤 본성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계급의 사상적 영향이 침투된 결과로만 발생하게 된다.

로동 계급과 그의 당 내부에 발생하는 온갖 종파적 경향은 비로동 계급적 사상과 습성들, 주로는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과 습성이 침투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착취 계급 내부의 파벌적 대립과 로동 계급 내부의 종파적 경향과의 성격상 근본적 차이는 명백해진다. 즉 착취 계급 내부의 파벌적 대립은 동일 계급 내부에서의 그루빠와 그루빠간(모두가 자기 계급의 립장에 서 있는)의 대립이라면 이와는 달리 로동 계급과 그의 당 내부의 온갖 종파는 모두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의 립장으로부터 리탈된 반계급적 경향인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계급 내부에서의 리해 관계의 대립의 표현으로 되는 착취 계급 내부의 파벌적 대립은 그 계급 내에서 극복될 수 없으나 비로동 계급적 립장이 침투된 결과 발생하는 로동 계급과 그의 당 내부에 발생하는 온갖 종파들은 계급적 당적 투쟁을 통하여 극복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로동 계급은 혁명 투쟁을 힘 있게 추진하기 곤난하다.

그러면 로동 계급과 그의 당 내부에 종파들의 사상적 근원인 비로동 계급적, 특히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과 습성이 어떻게 침투될 수 있는가?

계급적 대립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로동 계급은 다른 계급들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다른 계급, 특히 부르죠아지 및 소부르죠아지와 이런 저런 련계를 가지게 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그와 접촉하게 되며 시장에서도 그와 접하며 일상적 교제 관계가 있게 된다.

또 그들의 출판물을 읽게도 되며 각종 보도들을 듣게도 되며 그들의 각종 매수 공작, 설교들에도 접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부르죠아적 사상과 습성이 로동 계급과 그의 당 내부에 침투되는 가능성이 매일 매시각 조성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로동 계급 내의 계급적으로 약한 층을 통하여 자기의 현실화의 길을 찾게 된다.

로동 계급 내에는 로동자로 된지 이미 오래며 따라서 비로동 계급의 습성으로부터 탈피한 순수한 프로레타리아 대중과 그 이외에 농민 또는 도시 소부르죠아 기타로부터 로동자로 된지 오래지 않으며 따라서 소부르죠아적 또는 부르죠아적 사상과 습성을 농후하게 보존하고 있는 로동자층도 존재한다. 또는 자본주의하에서는 로동 계급 내에 부르죠아지의 매수의 손에 걸리여 그의 푼전을 받아 다른 로동자들보다 생활이 나은 「로동 귀족」(로동 계급내의 부르죠아 앞잡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한 이러한 층을 통하여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과 습성이 로동 계급내에 침투되게 된다.

사회의 발전, 사회—경제 제도의 변혁에 비하여 사람들의 사상, 의식상의 변화는 뒤떨어진다. 때문에 로동 계급이 지배 계급으로 된 이후에도 로동 계급내에는 낡은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과 습성이 상당히 오래 동안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로동 계급 내에 침투한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과 습성은 그의 당내에도 반영되게 된다. 이리하여 로동 계급과 그의 당내에는 종파가 발생할 수 있는 사상적 요인이 조성된다.

로동 계급과 그의 당 내부의 종파적 표현은 각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로동 계급과 그의 당 내부의 온갖 종파적 경향이 비

로동 계급적 사상과 습성、특히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과 습성의 표현이기 때문에、그의 주장 또는 그의 정강이 로동 계급과 그 당의 립장、맑스—레닌주의적 립장으로부터 리탈될 것은 명확하다。이러한 리탈이 우경적 기회주의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좌경적 기회주의로 표현될 수도 있다。로씨야에 있어서 민주주의 혁명의 령도권을 부르죠아지에게 넘겨 줄 것을 주장한 멘쉐위크、또는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농업 집단화 방침을 반대한 부하린파는 우경 기회주의적 종파였다。그리고 쏘련에서 외국 무력 간섭과 공민 전쟁이 종결된 후 전시 공산주의 정책으로부터 신 경제 정책에로의 이행을 반대한 트로쯔끼파는 좌경적 기회주의의 표현이였다。

자기들의 명확한 정강을 갖지 않고 진출하는 종파적 경향도 있다。낡은 사상 잔재는 각종으로 표현되는 바 개인 리기주의、개인 영웅주의、무원칙한 정치적 야욕、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호상 알륵과 배타주의의 습성 등등은 그러한 표현이다。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에 무젖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사회주의、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떠한 원칙적 의견 상이도 없이、자기의 독특한 정강도 없이 종파적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다。그들은 로동 운동과 당내의『헤게모니』를 위하여、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리용한다。우리 나라에서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와 八•一五 해방 이후 남반부와 또는 북반부에서 발현되였던 종파주의 경향은 이러한 것들이였다。

종파적 경향에는 맑스—레닌주의 당외의 종파도 있을 수 있고 당 내부의 종파도 있을 수 있다。

국제 로동 운동에서 볼 때 우경적 사회 민주주의 조류、트레드 유니온주의적 조류 등등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맑스—레닌주의 당 밖에 있는 로동 운동 내부의 종파이다。로동 운동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들과의 행동 통일의 접촉점을 발견하면서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맑스—레닌주의 당이 창건되기 이전에 크루쇼크들、소조들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수공업주의적、지방할거주의적 종파들도 있을 수 있으며 당이 형성된 이후에도 당을 자기 종파의 복종하에 넣으려는 당내 종파도 발생할 수 있다。또는 맑스—레닌주의 당이 집권당으로 된 후에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기본 로선을 반대하며 당의 지도 밑에 로동자와 농민 대중이 거둔 혁명적 성과들을 외곡하는 당내 종파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당내에는 제국주의 앞잡이、간첩들이 숨어 들어 종파를 조장 리용하면서 당의 분렬 파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우리 당내에 오래 동안 숨어 들어 있던 박 헌영、리 승엽 도당은 이의 전형적 실례이다。

종파주의적 경향은 인민 대중과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바 이것은 주로 쎅트주의적 경향으로 표현된다。혁명 사업과 당 활동이 인민 대중에 의거하여 진행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민 대중의 력량을 과소평가하며 몇몇 소수의 힘으로 혁명 사업을 진행하려는 온갖 경향은 곧 쎅트주의적인 것이다。

당 또는 당 단체들을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온갖 경향、소여 단계에서 혁명에 가담할 수 있는 혁명 력량들을 옳게 리해하지 않고 혁명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급 또는 계층을 혁명 사업에서 제외하려는 경향(례컨대 농민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거부하거나 협소화시키려는 경향 및 기타)、그리고 비합법적 시기에 합법적 단체들을 리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반동적 또는 개량주의적 직업 동맹과 국회 등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례컨대 로씨야에서의『소환파』와 一九一〇년대 말의 영국과 독일 공산당내의『좌익』공산주의자들) 등등은 쎅트주의적 경향이며 인민 대중과의 관계에서의 한 개의 종파적 경향이다。우리 당내에서의 허 가이의 관료주의적、사무실적 사업 작풍과 취소파적 경향도 한 개의 쎅트주의적 종파의 표현이였다。

종파주의적 경향은 전 당적 규모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각급 당 단체들、지어는 당의 최하의 기본 조직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당 조직들에서 행동상 및 의지상의 통일을 파괴하는 온갖 그루빠적 경향은 종파주의의 한 표현이다。

이와 같이 로동 계급과 그의 당 내부의 종파들은 소여 력사적 조건에 따라 각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당적 결합과 종파적 결합의 근본적 차이는 어데 있는가? 어떠한 것을 종파적 경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우선 당적 결합과 종파적 결합은 그 결합들의 사상적 원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당적 결합은 엄격히 맑스—레닌주의적 원칙(리론적、사상적、조직적 및 전술적)、계급적 원칙에 립각하며 종파적 결합은 결국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된 무원칙한 결합인 것이다。

종파적 결합에 있어서는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야욕을 실현할 수 있는 온갖 음흉한 수단이 귀중한 것이다。또 종파들의 주장은 일관해 있지 못하고 이 때는 이런 견해、다른 때는 다른 견해(과거의 자기의 견해와 상이한 견해일지라도)를 무원칙하게 내놓는다。

종파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정강을 내놓는 것도 있으며 또는 안내놓는 것도 있다。자기들의 정강을 내놓는 종파들은 다수 경우에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들고 진출한다。때문에 그들이 형식상 내놓는 주장만 가지고는 그들의 정체를 분간하기 곤난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실지 행동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파들의 행동은 항상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의 통일 단결을 파괴 약화하며 조직 규률을 파괴하며 당의 결정을 왜곡 위반하는 데로 향해진다. 이를 위하여 종파 분자들은 당내의 불평 분자, 동요 분자들을 규합하는 데 열중하며 또 당 중앙 위원회와 당원 대중을 분렬시키려는 공작에 열중한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정치적 량면주의자로 되는 것이 상투 수단이다.

당적 결합과 종파적 결합은 사람들의 호상 관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종파적 결합은 개인적 친분 관계에 기초한 무원칙한 결합이다. 때문에 이 결합에는 개인주의와 개인 숭배 사상이 관통되게 된다. 종파적 결합이 무원칙한 결합이고 당과 혁명의 리익, 대중의 리익에 복종하는 의지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 영웅주의, 탐위주의, 정치적 야욕 등등에 의하여 결합되여 있는 것이니만큼 그에 개인 숭배주의가 관통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적 결합은 어데까지나 당과 인민 대중의 리익에 복종하는 의지의 결합이며 조직적 결합이며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와 자각적 규률에 립각한 결합이다. 당적 결합의 기본 요구는 당의 통일이다. 그리고 당적 결합은 대중의 창발성에 기초하는 집체적 지도 원칙에 의하여 공고화된다.

쏘련 공산당의 최근 력사에서 려력히 찾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혹시 당적 결합 내부에도 개인 숭배의 사상적 경향이 침투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숭배주의 경향이 종파로 전화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적 결합을 파괴할 수 없으며 당의 통일을 분렬시킬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당적 결합과 종파적 결합은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량자간에는 근본적 차이 뿐만 아니라 상용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종파적 경향을 극복하지 않고는 당적 결합과 당의 통일이 강화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내의 온갖 의견 불일치가 모두 종파적 경향의 표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종파는 어데까지나 당의 로선과 조직상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그러나 당적 립장,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 서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호상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 의견 불일치는 당이 기본 로선을 반대하며 조직을 파괴하는 데서 발로되는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당의 기본 로선과 조직에 복종하면서 현행 실천과 관련되여 발로되는 의견 불일치인 것이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로동 계급의 립장과 비로동 계급적 립장간의 대립, 당적, 혁명적 립장과 반당적, 반혁명적 립장간의 대립이 아니라 부정확한 판단과

인식, 주관주의적 관점의 결과 발로되는 의견 불일치이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하여 반드시 당적 결합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론쟁과 설복에 의하여 정확한 결론에 통일시킴으로써 당적 결합, 당의 통일이 일층 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불일치 또는 이런 저런 부정적 현상들이 당내 또는 일정한 당 단체들 내에서의 행동의 불일치에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종파주의로 조장될 수도 있다. 당 생활의 레닌적 원칙은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의견과 다를 때도 당의 결정은 무조건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하면서 당 조직에 자기의 의견을 제의 또는 상급 당부에의 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 결정이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을 태만할 때는 그것은 당과 당 조직들의 행동상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게 되며 이것이 조장될 때에는 그루빠적 경향에로, 더 나아가서는 종파적 경향에까지 발전될 수 있다. 또 반면에 일정한 당원들이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사소한 부정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들을 설복하며 교양하며 동지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배척한다면 이것도 당 조직들 내에서의 행동상, 의지상 통일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것도 한 개의 그루빠적 경향으로 조장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온갖 종파주의적 경향은 그루빠적 경향까지 포함하여 낡은 사상, 특히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과 습성의 표현이다. 이러한 경향을 로동 운동과 로동 계급 당 내부에 두고서는 그의 사상상, 행동상 통일이 보장될 수 없다. 온갖 종파적 경향은 무조건적으로 유해하다.

종파주의의 해독성은 우리 나라 혁명 투쟁의 력사에 비추워 볼 때 일층 명확해진다.

❋ ❋ ❋

우리 나라에서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각종 종파들의 대립이 계속되였고 그의 해독성과 후과는 극심하였다.

우리 나라 해방 투쟁의 력사는 각종의 「종파의 유익설」을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 주는 사실들로 충만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 운동의 초기, 맑스주의가 보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파벌들 간의 대립이 심하였다.

一九一○년대 말과 一九二○년대 상반기에 국내 국외에서 조선인들의 사회주의적 단체들이 다수 조직되였다. 一九一八년 씨비리의 이루꾸쯔끄에서 「한인 사회당」, 一九一九년 이루꾸쯔끄에서 「고려 공산당」, 동년 상해에서 「고려 공산당」, 一九二一년 서울에서 「서울 청년회」, 一九二二년 서울에서 「신사상 연구회」, 동년 서울에서 「무산자 동맹」, 一九二三년 일본 동경에서

『북성회』 등등이 조직되였는 바 이것들은 조선인들의 최초의 사회주의적 소조들이였다。 처음부터 대렵이 심하던 이들 간의 호상 알륵은 더욱 심해져서 『세력 확장』에 분망하게 되였고 각종의 『취인 행위(取引行爲)』들이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一九二四년에 서울에서 『북성회』 계통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풍회』가 조직되였고 동년 서울에서 『신사상 연구회』 계통의 사람들이 『화요회』를 조직하였고 一九二五년에 일본 동경에서는 『북성회』 계통의 다른 일부가 『일월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一九二六년에는 서울에서 『일월회』、『서울 신파』、『만주 공청파』、『북풍회』 계통의 사람들이 『레닌주의 동맹』(소위 『엠·엘파』)을 조직하였다。 이리하여 각 파벌들의 종파 활동이 확대되여 갔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로동 운동의 초기、맑스주의가 보급되던 초기에 크루쇼크들、소조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처음에 크루쇼크들、소조들이 나오게 된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였다。 이 크루쇼크들、소조들이 정상적으로 통합되는 길로 발전된다면 통일적 맑스주의 당이 창건될 수 있는 기초가 닦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맑스주의 당 창건이 각 지역의 크루쇼크들、소조들을 토대로 그를 통합하면서 진행되였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주의적 크루쇼크들、소조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서는 로동 운동 발전에서의 일보 전진인 것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진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진은 오직 앞으로 통일적 당의 확고한 창건에로 발전함으로써만 참다운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로동 운동의 첫 전진으로 되는 크루쇼크들、소조들의 발생과 활동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심중한 결함들을 가지고 있은 결과 이것이 그후 운동 발전에 한심한 악영향을 남기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크루쇼크들、소조들이 조직되고 자기 활동을 전개하면서 처음부터 배타성과 파벌주의가 극심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로동 계급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통일의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파적 대렵과 알륵을 조장시키는 지향이 지배하였다。 때문에 그들 세력 내부에서 날이 갈수록 분렬 상태가 격화되여 갔다。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처음 크루쇼크들、소조들이 나올 때 같은 도시와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크루쇼크들이 군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들、여러 지역들에서 조직되였다。 만일에 한 도시내에 여러 개의 소조들이 발생했을 때는 조만간 통합되게 되였다。 때문에 이러한 데서는 각지에 있는 크루쇼크들、소조들을 통합하면서 통일적 당이 형성되였다。 로씨야에서도 그러하였는 바 뻬쩨르부르그의 『로동 계급 해방 투쟁 동맹』과 다른 여러 지역들에 조직된 이와 같은 단체들이 통일적 당의 창건의 기초로 되였다。 중국에서도 그러했는 바 상해、북경、천진、호남、호북、광동、산동、기타의 도시들、지방들에 조직된 크루쇼크들、소조들이 중국 공산당 창건의 기초로 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一九二〇년대 상반기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서울에만 각파들이 집중되여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만 열중하였다。 그들은 운동 전체의 리익과 운동의 전국적 확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파벌을 내세우는 데만 주의를 돌리고 있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왜 사회주의적 단체들이 처음부터 극심한 종파주의적 파도 속에서 헤매이게 되였는가?

우선 종파주의를 심하게 발생시킨 객관적 조건들이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극히 미약하였고 따라서 로동 계급의 장성이 미약하였다。 특히 근대적 산업 프로레타리아의 수가 극히 적었다。 주민의 압도적 다수가 농민、소부르죠아들이였다。 그리고 로동 계급 내부에도 로동자로 된지 오래지 않은 로동자들、또는 계절 로동자들이 다수 있었으며 많은 로동자들이 다른 계급들과 가족적 및 친족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소부르죠아적 파도、소부르죠아적 습성과 기분이 압도적이였다。 이것은 종파주의를 심하게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일제의 탄압이 처음부터 극심하였고 따라서 일체의 진보적 사회 운동이 정상적으로 발전될 수 없었고 특히 사회주의 운동의 통일이 심하게 방해를 받았다。

당시의 이러한 객관적 조건 이외에 우리 나라 초기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 종파주의가 심하게 발생되는 데 일정한 력사적 조건들도 작용하였다。

즉 초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들 속에서는 낡은 파쟁적 『전통』을 청산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그것을 물려 받고 있었다。 본래 낡은 세대가 만들어 놓은 좋지 않은 추잡한 『틀』이 다음 세대에 의하여 청산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되게 될 때 그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 오게 한다。 바로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되였다。

우리 나라 봉건 지배층 내에서는 재래에 파쟁、당쟁들이 극심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그후 극복되지 않고 오히려 계승되여(그대로는 아니였으나) 내려 왔다。 『한일 합병』을 전후하여 일어난 반일 운동들에서도 파벌 대립이 심하였다。 『애국 문화 운동』도 기호파요、서북파요、관동파요、호남파요 등 무슨무슨파요 하면서 파벌적 대립 속에서 진행되였고 지어는 의병 운동에서까지 파벌 습성이 인입되여 있었다。 우리 나라 초기 사회주의운동내에도 이러한 습성이 은연중 숨어 들게 되였다。

특히 각파에 속하고 있던 민족주의자들의 일부가 좌경

화되여 사회주의자로 된 사람들이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주도 세력을 이루었던 사정은 그러한 파쟁의 『계승』의 주요 조건으로 되였다。 『화요파』는 『기호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여 있었고 다른 파들도 과거의 어떤 『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여 있었다。

물론 우리 나라 초기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심하였던 종파적 대립이 어떤 력사적으로 운명지어진 불가피성으로 해석되여서는 안된다。 과거에 당쟁、파쟁들이 심하였으니까 응당 사회주의 운동에서도 종파주의가 심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결론지으면 이것은 정당치 않다。

사회주의 운동의 초기부터 종파주의가 심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당시의 객관적인 조건들이였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의 당쟁이 심하였던 사실이 『량반』 출신의 지식층에 의하여 진행된 민족주의 운동과 또한 역시 『량반』 출신의 인테리들이 적지 않게 참가하고 있던 초기 사회주의 운동내에까지 일정한 흔적을 남기게 된 사실이였다。

이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초기부터 종파주의를 심하게 발생시킨 객관적 및 력사적 조건들이다。

그러나 종파주의가 극복되지 못하고 계속 조장되게 된 원인은 당시 사회주의적 력량 내부에서 주로 찾아야 한다。 왜냐 하면 종파주의의 발생 그 자체가 주로 객관적 및 력사적 조건들과 결부되여 있다면 발생한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주로 사회주의적 력량 내부에서의 주체적 투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개 문제를 형이상학적으로 분리시켜서는 물론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개 문제를 혼동하여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지장을 준다。

당시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는 바 이것이 당시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조장되게 한 주요 원인으로 되였다。

우선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사상으로 무장함이 극히 미약하였다。 당시 그들의 다수는 자본주의는 나쁘고 사회주의가 좋다는 추상적 신념만을 가졌고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과 특히 당 건설、당 조직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을 습득함이 극히 미약하였다。 그들의 다수는 조직적 통일의 힘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되 내가(나의 파가)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협소하고 추잡한 속류배 근성에 무젖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크루쇼크들、소조들의 활동이 거의 전적으로 소부르죠아 인테리들의 활동으로만 머물러 있었다。 물론 사회주의 운동이 최초부터 로동자들의 선구적 역할에 의하여 진행될 수는 없다。 사회주의 리론과 사상이 최초에는 선진적 인테리들에 의하여 도입

전파되기 시작하며 그것이 로동자 대중 속에 침투되여 로동자들의 목적 의식적 활동이 전개되고 운동에서 주동적 역할을 진행하게 된다(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참조)。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크루쇼크들、소조들의 사업이 다만 인테리들 속에서의 활동으로 끝났고 로동자 대중 속에、특히 당시 장성하고 있던 근대적 프로레타리아 대중 속에 뿌리를 박고 이에 근거하여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극히 부족하였다。 때문에 크루쇼크들、소조들에는 새로 자라나는 혁명적 로동자들이 거의 인입되지 못하였고 크루쇼크들、소조들이 인테리들의 소굴로 남아 있었다。 이리하여 크루쇼크들、소조들이 로동자 대중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로동자 대중、특히 근대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성、대중성、혁명성이 크루쇼크들、소조들에 침투해 들어 올 길이 없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심하게 발생한 종파주의를 원칙적 투쟁을 통하여 극복할만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 핵심이 형성될 수 없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은 로동 운동내의 종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러한 혁명적 핵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핵심만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로동자와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으며 근로 대중 속에서 진정한 혁명 투사들을 부단히 배양해 내며 공산주의자들을 자기 주위에 집결하면서 각종 종파주의와 원칙적 투쟁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당시 이러한 혁명적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종파주의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여 갔다。

이상과 같은 원인들에 의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처음부터 극심한 종파적 대립 속에서 시작되게 되였다。 크루쇼크들、소조들의 출현에 의하여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이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반면에 앞으로의 힘 있는 전진을 저해하는 해독적 종파주의적 경향도 함께 발전되여 왔다。

그리하여 점점 더 조장되여 가는 종파주의를 극복할만한 혁명적 핵심 세력이 조성되지 못한채로 一九二五년 四월에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게 되였다。 조선 공산당은 종파주의를 극복한 토대 우에서 창건되지를 못하고 종파들의 형식적 통일로 되여 버리였다。 때문에 조선 공산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일정한 추진력을 주었으나 결국 로동자와 농민의 진정한 조직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 힘 있게 발전하지를 못하였다。

우선 조선 공산당의 창건 그 자체가 종파들의 호상 투쟁 속에서 진행되였다。 특히 『화요파』와 『서울파』간에서 서로 자기 중심으로 당을 창건하려고 하는 투쟁이 진행되였고 一九二五년 四월 조선 공산당의 창건은 『화요파』를 중심으로 그의 『헤게모니』 밑에 진행되였다。 그후 『서울파』의 일부와 기타 파벌들이 조선 공산당에

들어와 당내에서 종파적 대립은 계속 격화되였다。

조선 공산당내에서는 각파들、특히 『화요파』、『서울파』、『엠·엘파』、『서상파』들 간의 호상 투쟁이 격화되여 중앙 집권적인 조직 체계가 확립될 수 없었고 당내 비밀이 엄수될 수 없었다。각 종파들 간에는 어떤 원칙적인 로선과 정책상의 의견 차이가 있은 것이 아니라 무원칙한 자리 다툼이였다。그리하여 다른 종파를 파괴하기 위하여는 일제 경찰과 결탁하며 그에 밀고를 하는 등의 추태까지 연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파벌 투쟁의 결과 조선 공산당은 일제 경찰에 의하여 계속적인 습격을 받아 심대한 타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심대한 타격이 있을 때마다 당 지도부의 성분(종파적 견지에서 본 성분)이 바뀌군 하였다。이리하여 극단히 말하면 한 때는 어느 파의 공산당이고 다른 때에는 다른 파의 공산당이 되는 형편이였다。

이러한 극심한 파벌 투쟁에 의하여 조선 공산당은 장기간 존재할 수 없었으며 一九二八년에는 조직적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一九二八년 조선 공산당이 해산된 이후에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새로 자라나는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종파주의의 해독성을 통감하고 이를 배격하면서 혁명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로동자와 농민 속에 들어 가려고 하였다。그러나 국내에서 종파주의의 파도는 의연 우세하였고 공산당의 재생을 위한 조건은 지어지지 않았다。

一九三〇년대에 조선 공산당 재건 운동이 각지에서 진행되였다。그러나 이것도 대부분이 종파들의 배타적 견지에서 자기 파벌을 중심으로 당을 창건하려는 지향들이였고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화요파』는 주로 『조선 공산당 재건 준비 위원회』의 간판을 들었으며 『엠·엘파』는 주로 『조선 공산주의자 협의회』의 간판을 들었고 『서상파』는 주로 『조선 공산당 재건 공작 위원회』의 간판을 들고 서로 대립되였던 것이다。

결국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전 기간을 통하여 조선 로동 계급은 자기의 통일적 맑스—레닌주의의 당을 못가지게 되였다。이의 가장 주요한 근본 원인은 물론 극심하였던 종파주의에 있었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조선 로동 계급이 자기의 혁명적 전위인 맑스—레닌주의 당을 못가지게 되였던 주요 원인을 객관적 제 조건、례컨대 일제의 극심한 탄압、조선 로동 계급의 장성의 미약성 등등에만 미루어 버리는 것은 정당치 않다。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로동 계급 장성의 미약성이 우리 혁명 발전에 큰 지장으로 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은 어데까지나 난관이며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주체적 력량이 강화되고 모든 가능성을 옳게 리용

할 때에는 극복할 수 있는 난관이였다。

국제 혁명 운동의 경험은 우리 나라와 같이 곤난한 조건에서도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핵심이 있어 가지고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크루쇼크들을 통일시킴으로써 당이 창건되고 강화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종파주의의 해독성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전 기간을 통하여 극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면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극심하였던 종파들의 특성은 어데 있었는가?

첫째로 그것들은 어떤 리론과 정견이 달라서 서로 대립되였던 것이 아니라 소위 『헤게모니』 쟁취를 위한 직위 다툼으로써 대립되여 있던 종파들이였다。

둘째로 당시의 종파들은 로동자 대중 및 기타 혁명 대중과의 관계에서 쎅트주의적인 종파들이였다。로동자와 농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 가지 못하고 주로 협소한 소부르죠아적 인테리들의 집단으로 남아 있었다。

세째로 당시의 종파주의는 수공업주의의 한 변종이였다。그들의 수공업주의적 립장은 자기들의 공작 규모의 협소성、수공업성의 병폐를 옳게 리해하지 못한데서、그리고 통일적 당의 의의를 옳게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타났다。그들은 말로는 당의 필요성、종파주의의 해독성을 강조하였으나 서로 자기 파벌의 립장을 고수하면서 모든 죄악성이 다른 파벌들에만 있는 듯이 선전하였다。때문에 결국 각 종파들이 자기들의 수공업성을 옹호하는 립장、즉 수공업주의적 립장에 서 있은 것이다。

우리는 종파주의가 우리 나라 혁명 운동 발전에 미친 해독성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그러나 동시에 이 종파주의의 해독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마치도 우리 나라에서는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전혀 보급될 수 없었고 혁명 운동 발전이 전혀 억제된 듯이 인정해서는 안된다。종파주의의 해독성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부단히 보급되였고 로동자와 농민들의 혁명 투쟁은 계속적으로 발전되여 왔다。종파주의의 극심한 해독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원인이 어데 있는가?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보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선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배격해 온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견실한 공산주의자들 가운데는 종파에 가담하지 않고 활동하던 사람도 있고 일시 어떤 종파에 속하고 있다가 이로부터 떨어져 나와 견실하게 활동한 사람도 있으며 또한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종파의 영향을 받고는 있었으나 종파 활동 그 자체에 전심한 것이 아니라(물론 일정하게 종파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공산주의에 헌신하려고 량심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주로 새로 자라나던 공산주의자들)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이러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은 부단히 전파되였다。

종파 분자들도 맑스주의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종파 분자들은 맑스주의의 사상을 정확하게 선전할 수도 없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맑스주의의 사상을 외곡 비속화하여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때에 량심적이고 혁명적인 사람들이 맑스주의의 사상의 견인력에 의하여 맑스주의의 사상 그 자체에 끌리여 갔던 것이다。

당시 조선의 사회 경제적 조건은 맑스주의의 사상의 견인력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온갖 모순들、부패성들이 극심히 발로되여 있었고 도시의 로동자들、농촌의 농민 대중 기타 인민 대중의 생활은 비참하였고 암담하였다。 청년 학생들、지식인들은 자기의 장래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가질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은 맑스주의의 사상만이 주고 있었다。 여기에 맑스주의의 사상의 견인력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 맑스주의의 사상의 전파의 추진력이 있었다。 종파적 활동 그 자체가 맑스주의를 보급시키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주의의 보급을 종파 분자들의 종파적 활동과 결부시키는 것은 천만 부당한 견해이다。

그리고 一九二〇년대에는 합법적 출판물을 통하여 맑스주의의 사상이 적지 않게 보급되였다。 특히 당시 일본에서 맑스주의의 서적들이 일정한 정도로 합법적으로 출판되였던 조건에서 학생들、지식인들 속에서 합법적 출판물들을 통하여 맑스주의를 알고 그에 공명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맑스주의의 사상의 보급을 일정하게 촉진시킨 반면에 맑스주의의 진정한 혁명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류행식 맑스주의자들』을 다수 배출케 한 것도 사실이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종파주의의 해독성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혁명 운동은 계속 발전되였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우리 나라 혁명 운동 발전의 가장 기본적 동력은 물론 로동자와 농민 대중이였다。 종파주의의 해독성이 로동자와 농민 대중의 투쟁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었다。

一九二〇년대에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은 계속적으로 장성되였고 점차 대중성을 띄여 갔다(통계 수자는 략함)。 특히 一九二〇년대 말과 一九三〇년대 초에는 로동자와 농민들의 혁명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였고 전투성이 매우 제고되였다。 각지에서 폭동과 시위들이 일어 났다。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대중적 운동 속에서 반일 투쟁의 보다 적극적인 형태에 대한 요구가 성숙되여 갔다。

그리고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증오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로동자와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기 위하여 전력하였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결정적 발전은 항일 무장 투쟁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종파주의를 가장 증오하며 배격해 오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항일 무장 부대가 조직되였고 일제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무장 투쟁이 전개되게 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당시 우리 나라가 처하고 있던 제 조건과 과거의 반일 혁명 투쟁의 경험에 기초한 가장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투쟁 형태이였다。

이 투쟁 행정에서 김 일성 동지를 위수로 하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적 핵심이 형성되였고 이 주위에 많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애국 투사들이 집결되게 되였다。

이들에 의하여 종래 반일 투쟁이 가지고 있던 결함들、제한성들이 현저하게 퇴치되여 갔다。 이들은 종래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던 결함의 하나인 쎅트주의적 경향을 퇴치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활동을 광범한 대중、반제 반봉건적인 일체 계급과 계층들의 진출과 결부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의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결성과 그의 강화의 길을 규정하였다。 이에 있어서 조국 광복회와 기타의 대중 단체들이 주요한 역할을 놀았는 바 이에는 수많은 애국 투사들이 망라되였다。 이렇게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강화함으로써 혁명 대중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보장할 수 있었으며 항일 무장 투쟁을 대중적 혁명 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를 위수로 하는 혁명적 핵심과 그 주위에 집결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종래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 결함인 종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진행하였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활동、모든 리론 사상 사업을 실지 혁명 사업、대중 사업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방법으로、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의 소부르죠아적 습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공산주의적 조직의 상하의 체계를 수립하여 조직상의 분산성、수공업성을 극복하였으며 대중 단체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체계를 수립하여 갔다。

이리하여 이들에 의하여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의 창건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실하게 진행되게 되였다。

* * *

종파주의의 극심한 해독성에도 불구하고 혁명 투쟁

의 전통을 고수 발전시켜 온 조선 로동 계급과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八•一五 해방후에 조성된 유리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종파주의의 잔재를 극복하여 통일적 당을 창건하며 당면한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一九四五년 一〇월에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가 조직되였는 바 이때로부터 우리 당은 통일적이며 견전한 맑스—레닌주의적 당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북조선 조직 위원회는 각지에 분산적으로 조직된 공산주의 조직들을 통일시키고 레닌적 원칙에 립각한 당 조직 체계를 확립하였다。

당 조직을 통일시키며 당내의 사상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정치 로선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북조선 조직 위원회는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가 남조선에 진주함에 따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고 민족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로선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계 각층의 광범한 민주 력량을 집결 동원할 대책을 수립하였다。

북조선 조직 위원회는 당면한 혁명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좌우경적 편향들을 반대하는 로선을 고수하였다。주 미 제국주의자들의 『방조』에 의하여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는 우경적 편향들과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통일 전선 방책을 반대하고 공산당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좌경적』 편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이상의 모든 로선은 종래 우리 나라 혁명 운동에서 가지고 있던 수공업주의적、종파주의적、쎅트주의적 결함들을 퇴치하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 로선이였다。

그후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적응하여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대중적 정당인 로동당을 조직함으로써 혁명 력량을 더욱 통일 집결시켰다。

튼튼히 조직되고 통일된 우리 당은 당면 혁명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남반부에서는 八•一五 해방 후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이 상이한 정경을 보여 주게 되였다。

八•一五 해방 후 남반부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므로 해서 우리 조국의 남 북반부는 각각 상이한 정세에 처하게 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북반부에서 뿐만 아니라 남 반부에서도 해방 초기에는 혁명 운동 발전을 위하여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여 있었다。 남반부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로동 계급을 위시한 인민 대중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기에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다。

전체 조선 인민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착취 밑에서 쓰라린 고통을 당하여 왔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여 있었다。 때문에 미제의 식민지화 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 혁명 투쟁을 전 인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로동 계급은 물론이고 광범한 대중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집결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조선 인민 대중은 과거 반일 투쟁 시기에 자산 계급의 상층부가 일제와 결탁하고 있었고 자산 계급이 심히 동요하고 있은 사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방될 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우익 정당 또는 중간 정당이 하나도 조직된 것이 없었다。 반면에 조선 인민 대중은 일제와 가장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것이 공산주의자이며 공산주의자만이 가장 견실한 애국자이라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대중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서만 자기들의 진정한 해방이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였다。

또한 八•一五 해방 이후 북반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인민들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은 남반부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 추동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신임을 더 한층 증대시켰다。

이렇게 八•一五 해방 이후 남반부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유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 유리한 조건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었다。 오직 공산주의자들의 정당한 혁명적 투쟁에 의하여서만 충분히 리용될 수 있는 것이였다。

八•一五 해방 후 남반부에서는 공산주의 진영 내부에 다시 종파주의가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유리한 조건들을 옳게 포착하지 못하였고 충분히 리용하지 못하였다。

레닌은 일찌기 로동 운동의 초기、당이 형성되는 시기에 발로된 일견 크지 않은듯한 결함도 그것을 옳게 극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까지 비참한 후과를 남길 수가 있다고 가르친 바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一九二〇년대부터 심하게 발로되고 있던 종파주의를 초기에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그 이후 오래 동안 자기의 무서운 흔적을 남기였다。 종파주의가 초기에 극복되지 못한 결과 그후 종파주의는 계속 조장되고 만성적인 병환으로 화하였다。

이것은 일제 통치 시기 전 기간을 통하여 조선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자기의 혁명적 당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이것은 八•一五 해방 후에까지도 심중한 후과를 남기였고 남반부에서 로동 운동을 또 다시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三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는 八•一五 해방 이후

당 내부에 잠입한 각종 종파 분자들의 죄악적인 분렬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관철되지 못하고 남조선 로동 운동은 파괴되고 말았다』。

八•一五 해방 이후 조성된 새로운 정세는 각 종파분자들이 과거의 자기들의 종파적 활동의 죄악을 뉘우치며 자기들의 종파주의 근성을 청산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종파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종파적 활동이 조선 혁명 운동에 미친 해독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기 반성을 하며 앞으로 자기의 활동에서 진정으로 혁명적 립장、당적 립장에 서기 위한 굳은 결심을 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될 것이였다。항상 사상적 및 조직적으로 또 행동상으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적 립장에 서는 것만이 종파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유일의 길인 것이다。

그런데 과거 조선 공산당을 분렬시킨 『화요파』、『엠•엘파』、『서울파』、『서상파』에 속하였던 종파 분자들은 이러한 길을 택하지 않고 八•一五 직후부터 종파 활동에 더욱 기운을 내게 되였다。특히 제국주의 고용 간첩 박 헌영 도당의 간계에 의하여 『서울 콩크룹』과 종파적으로 결탁한 『화요파』를 한편으로 하고 『엠•엘파』의 변종인 『장안파』와 『대회파』를 다른 편으로 하여 소위 『당내 헤게모니』를 위한 파벌 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던 것이다。

박 헌영 도당은 자기의 상전인 미제의 지시를 성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불과 몇십명으로 구성된 『화요파』와 『서울 콩크룹』을 마치 조선 로동 운동에서 오직 유일한 『암야의 등불이요 탁류의 청수』인 듯이 사태를 묘사하면서 파렴치하게 종파적 책동을 진행하였으며 당 조직에서 민주주의적 원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자기 그루빠 중심으로 『당 중앙』을 조직하여 다른 파를 완전히 배척하였다。

일방 『엠•엘파』의 변종인 소위 『대회파』는 『대회를 소집하자』는 간판을 걸고 종파 활동에 전력하였다。물론 『대회를 소집하자』는 구호는 그 자체로서는 정당하였다。그러나 이들의 이 구호는 우리 당이 제기한 로선、즉 대회를 소집하고 당의 정책과 당 규약을 채택하며 당 중앙 위원회를 선거하려는 진정한 목적에서 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파적 투쟁의 한 수단으로 리용하려고 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만일에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 당의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였다면 원칙적인 당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되였을 것이다。그러나 『대회파』는 당적、원칙적 투쟁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종파적 알륵을 조장시키며 상대 종파와 관련된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였다。그들은 당내 통일에 주의를 돌린 것이 아니라 분렬을 조장하면서 『대회 소집』의 구호를 리용하였다。그들이 요구하는 대회는 진정한 당 대회가 아니라 자기 파가 당내에서의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대회이였다。

대회를 소집하지 않고 뒤고방에서 만들어 낸 자기의 『당 지도부』를 유지하기 위한 간첩적 및 종파적 책동이나 자기의 종파를 계속 유지 강화하면서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당 지도부』를 형성하려는 목적 밑에 『대회 소집』의 구호를 든 종파적 책동이나 모두가 종파에 대한 종파적 대립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였고 모두가 당적 립장과 리탈되여 있었다。

극단히 표현하면 당시 『한 당내에 두 개의 당』이 있은 것과 같았다。어느 지방 또는 어느 구역은 『화요파』가 장악하고 있었고 다른 지방 또는 다른 구역은 『대회파』가 장악하고 있었으며 또는 같은 지방、같은 구역내에서 호상 세력 쟁탈전이 진행되기까지 하였다。더 나아가서 당 회의가 조직적 원칙에 립각하지 않고 종파별로 진행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당 내부에서의 종파적 대립의 격화는 당의 분렬에까지 미쳤는바 소위 『대회파』는 후에 『사로당』을 조직하게 되였다。

그리고 로동당으로 합당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정당한 로선도 종파주의자들에 의하여 정확히 실천되지 못하였다。 북반부에서는 합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데 반하여 남반부에서는 로동당으로의 합당이 아니라 박 헌영 도당의 책동과 또한 이를 반대하는 구실 밑에 종파주의적 분렬을 책동한 분자들에 의하여 신민당과 인민당을 분렬하여 『근로 인민당』을 결성하게 되였다。당내에서의 종파적 대립、당들 간의 종파적 대립이 매우 복잡해지게 되였고 혁명 력량이 四분 五렬되게 되였다。

八•一五 해방 이후 종파주의는 당 조직상에만 무서운 해독을 미친 것이 아니라 로동 계급과 농민 대중속에까지 미치였다。한 마디로 말하여 로동 계급까지도 분렬시켰다。

어느 공장의 로동자들은 주로 『화요파』가 장악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장 로동자들은 『대회파』가 주로 장악하고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한 공장 내부에서의 세력 쟁탈전이 일어나군 하였다。그리하여 로동 조합도 『화요파』계의 로동 조합、『대회파』계의 로동 조합이 한 공장내에 조직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러한 결과 로동자들의 투쟁적 진출도 통일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였다。어느 파의 영향하에 있는 로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데 다른 파의 영향하에 있는 로동자들은 파업에서 물러서는 례까지 있었다。一九四六년 九월 파업 당시에도 로동자들의 통일이 부족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파주의의 해독성은 로선과 정책의 규정 및 그의 실천에도 미치고 있었다。박 헌영 간첩 도당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마치 조선 인민의 해방자인 것처럼 선전하

였으며 미제의 충복 리 승만을 자기들이 뒤고방에서 조작한 『인민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선전까지 하였다。이것은 배신적인 행위이였다。이와 같은 선전들은 인민들로 하여금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오게 된 것을 증오하며 미군의 남조선 주둔을 반대하며 미 제국주의의 음흉한 정체를 인식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편 『장안파』는 우리 나라 혁명이 처음부터 사회주의 혁명인듯이 주장하면서 좌경적 외피 속에 자기의 종파주의적 정체를 숨기려고 하였다。이것은 온갖 반제、반봉건적 력량을 집결시키여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로선을 외곡한 것이였다。

당내와 로동 운동내에 종파적 대립이 있으므로 하여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한 정책이 옳게 실시될 수 없었다。종파 분자들은 좌우경적 과오들을 함께 범하면서 통일 전선 운동을 방해했으며 거부하는 경향까지도 발로하고 있었다。그들은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실시하는 것까지도 거부 또는 태공하였던 것이다。

종파 분자들이 종파 활동에만 전심 전력한 결과 당원과 일반 대중에 대한 리론 사상적 교양 사업은 거의 도외시되여 있었다。특히 북반부에서 진행된 민주 개혁의 제 성과들을 광범히 선전 해설함으로써 당원들과 일반 대중의 사상 의식 수준과 승리의 신심이 급격히 제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파적 근성으로 충만되여 있는 그들은 오히려 이 선전을 금지까지 하였다。

종파 분자들이 종파적 활동에만 전심하고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옳게 지도할 데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결과 혁명 대중을 옳게 조직하며 소여 조건에 적응한 전술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때로는 혁명 발전에 아무러한 리익도 주지 못하는 폭동들을 임의로 조직하여 수다한 당원들、애국자들을 적의 학살에로 넘기였으며 결국 당을 대중과 리탈되게 하였다。

박 헌영 간첩 도당은 적이 당을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동시에 이 자들은 당 장성을 태공한 결과 남반부 당원 비률이 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반부 당원들이 북반부 당원들보다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듯이 보이기 위하여 허위 숫자를 보고하였으며 또는 당 장성 원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소위 五배가、一〇배가 운동을 일으키여 당내에 많은 이색 분자、불순 분자들、동요 분자들을 잠입케 하였다。남로당 내에 본래 많던 소부르죠아적 인테리의 비중은 당내에서 더욱 늘어 갔으며 나중에는 당원들이 대량적으로 『보도 련맹』에 가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당 중앙은 시종 당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과 정확한 정치 로선을 제시하였으나 박 헌영 도당과 종파 분자들은 조국이 량단되여 있는 것을 리

용하여 이의 실천을 고의적으로 태공하였으며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을 당원 대중에게 음페하였고 외곡하였다。

결국 종파주의는 남반부의 당으로 하여금 파멸의 길에 이끌게 하였다。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三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반부에서 「화요파」、「엠•엘파」를 위수로 한 종파 분자들의 파벌 투쟁은 결국 남반부에서 우리 당을 분렬 와해시켰으며 조선 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 통일의 위업을 파탄시켰다』。

김 일성 동지가 제三차 당 대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박 헌영 간첩 도당과 종파 분자들이 당과 혁명을 파괴하는 해독적 행위들을 하였으나 그러나 남반부의 견실한 당원 대중과 로동자、농민 대중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것은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남반부의 로동자와 농민 대중、혁명 대중은 그야말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로동자들의 전투적인 파업과 폭동、농민 봉기、인민 대중의 항쟁이 부단히 전개되였다。이들에 대한 정확한 지도만 있었더라면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도당은 반드시 패망되였을 것이다。

남반부에서 견실한 당원 대중은 당과 혁명에 대한 헌신적 열성을 가지고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그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어떠한 극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투쟁하였다。얼마나 많은 견실한 당원들、혁명적 로동자와 농민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헌신성으로 인하여 박헌영 간첩 도당들에게 희생되였는가、이것을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박 헌영 도당과 종파 분자들의 정체를 알게 된 동무들은 참을 수 없는 분격 속에 있으며 이들은 오늘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조직 생활의 궤도 우에서 과거보다 몇배 더 강한 헌신성과 불굴의 투지를 발휘하면서 사업하고 있다。

그러면 남반부에서 당과 혁명에 무서운 해독을 미치게 한 종파주의를 왜 극복하지 못하였는가?

이의 원인도 객관적인 조건에 미루어 버린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물론 종파주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있었다。오랜 시기에 걸쳐 내려 오던 종파주의의 병집이 이런 저런 객관적 조건들과 결부되여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발생한 종파주의를 극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로동 운동 내부、당 내부에서의 주체적 투쟁에 달리여 있다。

당원 대중、특히 당의 지도적 일꾼들이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단련이 미약하였던 사실은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였다。만일 당원 대중과 특히

당 지도 간부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깊이 연구하고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립각하여 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을 전개하며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을 구체적 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 사업에 전심하였더라면 종파 분자들은 고립되고 그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조선 당 내부에는 개인 숭배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는바 이것은 종파주의를 용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적 요인으로 되여 있었다。 개인 숭배 사상은 종파 분자들에게까지 향해졌고 특히는 제국주의 고용 간첩 박 헌영에게까지 향해져 있었다。 개인 숭배 사상이 지배적이던 결과 종파 분자들의 종파적 활동에 리용되는 경우에까지도 많은 당원 대중은 자기가 당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자인하고 있었다。

종파주의를 극복할만한 맑스—레닌주의적 진정한 혁명적 핵심이 없었다。 종파 분자와의 원칙적인 당적 투쟁을 진행하며 당원 대중을 당적 투쟁에 집결시킬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적 핵심이 없이 종파주의는 좀처럼 극복될 수 없었다。 때문에 남조선 당내에는 종파에 대한 당적 투쟁이 아니라 종파에 대한 종파적 투쟁만이 지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견실한 당원 대중을 결속시키여 반종파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박 헌영—리 승엽 간첩 도당을 적발하지 못하였다。

우리 북반부에서는 각종 종파적 경향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당내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 발전시키여 왔다。

우리 당 창건 초기에 북반부에서도 종파주의 잔재가 다시 머리를 들고 나타났으며 일부 종파 분자들은 남반부의 종파 분자들과 밀접한 련결을 맺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북반부에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까지 반대하면서 자기들의 종파 활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핵심에 의하여 종파주의적 표현들은 분쇄되였고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가 조직되였고 계속 강화되였다。 만일에 종파 분자들의 진출을 그대로 용허하였더라면 우리 당은 오늘과 같은 강유력한 당으로 발전되지 못하였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박 헌영—리 승엽 도당은 북반부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파괴적 종파적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 자들은 미제의 고용 간첩 행위를 계속하다가 마지막 시기에는 미제의 공세와 합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적 반란을 준비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 자들은 간첩 파괴적 행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북반부에 잔존하는 종파 분자들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면서 우리 당내의 맑은 공기를 더럽히는 데 급급하였으며 당내에 호상 알륵을 조성하려 하였으며 수많은 당원들과 애국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테로 단체(전쟁 시기에 서울에서의 『토지 조사 위원회』 기타)들을 조직하는 등의 추악한 행동들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자들은 철석같이 통일된 우리 당 력량 앞에 산산히 분쇄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허 가이、주 녕하、박 일우 기타 종파 분자들의 진출을 분쇄 극복하면서 자기 대렬을 강화 발전하여 왔다。

우리 당 력사에서 一九四五년 一二월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三차 확대 위원회、북조선 로동당 제二차 당 대회、一九五〇년 당 중앙 위원회 제三차 전원 회의、一九五一년 당 중앙 위원회 제四차 전원 회의、一九五二년 당 중앙 위원회 제五차 전원 회의、一九五三년 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一九五五년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一九五五년 당 중앙 위원회 一二월 전원 회의、一九五六년 八월과 九월의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은 종파 분자들을 극복하며 당내 순결성을 강화하며 당의 통일을 보존함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력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통일되여 있고 단결되여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당에는 어떠한 종파주의 잔재도 전혀 없다거나 또는 앞으로는 어떠한 종파적 경향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공공연하게 또는 은연히 종파적 경향이 발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항상 경각성을 높이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제三차 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당을 와해시키려는 원쑤들의 온갖 기도를 여지 없이 분쇄하며 당내에 조성될 수 있는 온갖 불순한 암류들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며 그에게 타격을 주어야 하겠다。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과 기타 종파 분자들이 폭로 청산되였지마는 그들의 사상적 영향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며 「엠·엘파」、「화요파」의 잔재 영향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종파 분자들은 당이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저런 곤난들、난관들을 리용하면서 머리를 들고 나서는 것이 상례이다。

전후 우리는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경제를 복구 재건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치여 왔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곤난들을 극복해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 생활은 충분히 유족하지 못하며 아직 부족점들이 적지 않다。 앞으로도 일정한 기간 생활상 곤난을 참아야 될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리용하여 종파 분자들은 마치 우리 당의 정책이 잘못된 듯이 묘사하려 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무시하며 앞

으로의 우리의 전망을 불신케 하려고 책동하였다。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항상 정당한 것이였다。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경제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없이는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의 확고한 장족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없이는 인민 생활을 확고하게 부단히 발전시킬 수 없다。

우리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전후 평양、구성、기타의 방직 공장들을 복구 신설하여 왔으며 비료 공장들을 급속히 복구하여 왔고 기타 공장들을 복구 신설하여 왔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 건설에 주력하여 왔다。 많은 도시들、 농촌들이 새로운 면모로 일신되고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물가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인하되여 왔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인상되여 왔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큰 힘을 돌리여 왔다。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 농업 협동화 운동이 급속히 진전되였고 대다수의 과거 빈농들이 생활상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였다。 그리고 평남 관개 공사를 비롯한 수다한 관개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고 농민들에 대한 국가적 방조가 계속 증대되여 왔다。

우리 인민 생활은 부단히 향상되여 왔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마치도 정전 직후 탄생한 아이가 그간 커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도 비슷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당과 정부는 현 상태를 만족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인민 생활의 급진적 향상을 위하여 자기의 정확한 경제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투자를 중점적으로 집중하는 대책을 취하면서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행복한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의 급진적 향상이 아주 용이하게 달성되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이를 위하여서는 앞으로도 많은 곤난들、 생활상 부족점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내성과 불요 불굴의 투지를 계속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진 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은 우리의 장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에 모두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모든 경제력을 현재 생활에만 돌리여 먹고 입는다면 몇해 동안 『백만장자』와 같이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더욱 곤난한 형편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사태가 이상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종파 분자들이 우리 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것은 천만 부당하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 전체 당원의 의사와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

종파 분자들은 흔히 당 지도 간부들을 비방함으로써 당 중앙 위원회와 당원 대중을 리탈시키려고 책동한다。 우리 전체 당원은 김 일성 동지를 위수로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 사업에 대하여 자기의 실지 경험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다。 우리 전체 당원 대중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철석같이 집결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과 우리의 긴급한 당면 목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성스러운 사업이 성과적으로 달성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 마지 않는다。

우리 당원 대중은 당 중앙에 강철같이 단결하면서 어떠한 종파적 경향도 용허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고 있다。

종파주의와의 투쟁은 당 지도부의 사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종파주의는 전체 당원 대중의 투쟁을 통하여서만 철저히 극복될 수 있다。이것은 이때까지의 우리의 반종파 투쟁의 행정이 명백히 실증하여 준다。

우리 당원 대중은 종파적 진출이 있을 때마다 그의 죄상을 적발 폭로하는 사업、 그의 영향을 깨끗이 청산하는 사업에 총동원되였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매개 당원들의 당성이 일층 단련되고 당의 순결성과 통일이 더욱 강화되였다。

때문에 자기가 종파와 직접 련결이 없다 하여 또는 자기가 속하고 있는 당 조직에 종파적 영향이 직접적으로는 없다 하여 반종파 투쟁에 무관심하여서는 안된다。종파 활동을 당원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종파적 경향도 용허하지 않기 위하여 반종파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종파주의와의 투쟁은 오직 전 당적 규모의 종파 또는 당의 최고 지도부에서 발생하는 종파 분자와의 투쟁만을 의미하는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 종파주의적 경향은 큰 규모에서도 또는 적은 규모에서도 있을 수 있다。 각급 당 단체들、 지어는 초급 당 단체 내에서도 종파주의적 경향인 그루빠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 리기주의、 가족주의、 관료주의、 아첨 둥둥이 조장되면 그루빠적 경향을 산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일정한 부분적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도 그것이 옳게 해결 처리되지 못하고 무원칙하게 조장될 때에는 그루빠적 경향에로 조장될 수 있다。 엄격히 말하여 당조직들 내에서 의지상 및 행동상의 통일을 파괴하는 온갖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루빠적 경향인 것이다。

이러한 그루빠적 경향과도 우리는 당적 원칙에서 투쟁하면서 그를 극복하여야 한다。 당의 조직 원칙과 당적 규률을 엄수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면서 교양과 설복、진정한 동지적 비판과 자기 비판 등등을 통하여 이러한 그루빠적 경향은 부단히 극복되여야 한다。

* * *

우리 당은 종파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엄격히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립각하여 왔다。

우리 당은 어떠한 종파주의의 표현도 절대로 용허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종파 활동을 한 사람, 그와 직접 간접으로 련결된 사람은 무조건 당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당 사업의 기본 방법은 교양과 설복, 해설의 방법이다. 종파 활동에 가담하였던 사람에게도 이 방법은 적용된다. 원쑤와 결탁하지 않은 한에서는 종파적 경향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도 맑스-레닌주의적 당적 원칙을 해설 설복해 주며 그들이 자기 과오를 심각히 반성하도록, 자기의 사상 개조를 하도록 모든 방조를 준다. 그들이 자기의 과오를 심각히 뉘우치고 진정으로 당적 원칙에 서려고 할 때 당은 그들을 친절하게 포옹하며 그들의 발전을 적극 방조한다.

때문에 일시 종파 활동에 참가하였던 사람, 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참다히 개조하는 길에 용감히 나서야 한다. 고대로부터 반성이라는 것이 자기 수양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하여 왔다. 이 반성이 당적 원칙, 혁명적 원칙의 기초 우에서 심각히 될 때 이것은 공산주의적 자기 반성, 맑스-레닌주의적 자기 비판으로 된다. 종파 활동을 일시 하였다가 그후 자기 과오를 뉘우치고 자기 개조의 길에 용감히 나서가지고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면모를 여지 없이 보여 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자기가 과오를 범하였을 때 여하히 자기 반성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가 하는 것은 그의 당성과 아울려 인간적 품성까지도 보여 준다.

종파 활동에 일시 참가하였던 동무 또는 그의 영향을 받았던 동무들이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며 사상 개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당원 대중의 진심으로 되는 동지적 방조가 필요하다.

종파주의와의 비타협적 투쟁은 당의 순결성과 통일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동시에 종파주의적 과오를 범하였던 동무가 자기의 사상 개조를 위하여 노력할 때 그를 경원할 것이 아니라 그를 동지적으로 방조해 주는 것도 또한 당의 통일을 강화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호상 방조, 호상 리해는 당원의 고상한 품성이다. 이러한 품성은 특히 각급 당 조직들에서 의지상 및 행동상 통일을 보존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적 원칙성과 이러한 품성이 옳게 결합될 때 온갖 알륵, 배타성은 극복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당내에서 어떠한 종파적 경향도 대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각급 당 조직들에서도 그루빠적 경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계급 의식과 당성을 제고하며 당원으로서의 고상한 품성을 배양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이 자기의 계급 교양을 꾸준히 진행하며 부단히 당성 단련에 전력하면서 당 중앙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침으로써 우리 당의 순결성과 통일을 보존 강화할 수 있다.

가능성과 현실성

황 장 엽

세계의 다양한 사물과 현상들은 모두 다 그의 물질성으로써 통일되여 있으며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물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사물들과 호상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무런 주관적인 해석도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사물의 객관적인 존재와 운동이 있을 뿐이다. 유물 변증법의 범주로서의 가능성과 현실성은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발전의 가능성과 현실성의 반영에 불과하다.

가능성은 객관 세계의 합법칙적 발전의 한 계기이다. 발전하는 모든 사물은 그의 발전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자기를 변화 발전시킨다. 여기에서 현재 발전하고 있는 사물은 항상 자기의 미래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변화 발전은 항상 가능성을 거쳐서만 새로운 현실성을 가져 온다. 따라서 가능성과 현실성에 관한 문제는 객관 세계의 합법칙적 발전에 관한 문제의 한 부분이다.

모든 사물은 객관적 법칙에 의하여 운동 발전한다. 그러나 어떤 법칙이든지 고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없으며 또 그 작용은 그것이 작용하는 조건 여하에 따라서 각이한 형태와 의의를 가지게 된다. 가령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은 어떤 사회에서나 작용하지마는 이 법칙은 다른 모든 사회적 법칙들과의 호상 련관 속에서 작용하게 된다. 만약에 이 법칙만이 고립적으로 작용한다면 지금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생산력은 모두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모든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이미 승리하였어야만 할 것이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각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의 성숙 정도는 각이하며 아직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 법칙 이외에도 이 법칙의 작용을 방해하는 다른 법칙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만으로써 구성되여 있는 것이 아

니라 사회에는 또한 여러 가지 상층 구조들이 있으며 그것이 경제 토대에 반작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국가 법률 제도、 자본주의적 관념 제 형태 등등은 모두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로 이행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아직 현실성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번개 불이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등에는 전기에 관한 동일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번개 불과 전등은 그 법칙이 작용하는 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전기의 법칙이 각이하게 표현되며 인간 생활에서 각이한 의의를 가진다。 전등은 전기의 법칙이 작용하는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물질 세계의 객관적 발전 법칙의 작용은 항상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여 주며 이 가능성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실성으로 전환된다。 또 어떤 법칙이든지 그가 작용하는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가능성은 필연성을 포괄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의 발전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다만 그 시기가 문제로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모두 다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사회주의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필연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은、 어떤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현실성으로 전환하지는 않는 것도 있다。 가령 사람이 건강히 살 가능성은 있으나 병을 만나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성에는 아직 현실성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으나 장래에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직 현실성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데 앞으로 현실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객관적 법칙에 배반되지 않는 것은 모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 법칙에 위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무(無)로부터 유(有)가 나온다든가 또는 력사적 순서를 바꾸어서 자식이 자기 부모를 낳는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 중에는 일반적、 객관적 법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과 장소와 조건을 물론하고 절대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불가능한 것、 즉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객관적 법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가령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하에서는 착취 없는 분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의 문제도 반드시 발생 발전의 견지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발전 행정에서 제기되는 것은 구체적 력사적인 어떤 사물이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이다。

형식적 가능성은 가장 일반적 진리에 배반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서나 있을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난 물질을 만들어 낸다든가 전체보다도 더 큰 부분을 만들어 낸다든가 등등 가장 일반적 진리에 반대되는 것은 형식적 가능성도 없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 조건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한 가지 추상적 명제의 진리성만 가지고 그 가능성을 주장할 때도 있다。 이 때에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 또는 추상적 가능성으로 된다。 이 때에 형식적 가능성은 불가능성과 일치될 수도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계급 투쟁을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며 불가능성과 일치된다。 물질은 결국 『소립자』들로써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소립자들의 구조가 완전히 해명되면 임의의 물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원소를 파괴하며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즉 무쇠로부터 금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불가능성과는 구별되는 형식적 가능성이 성립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도달된 우리들의 지식으로써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그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문제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것이며 따라서 현실성으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이다。 즉 형식적 가능성이란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적 제 조건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객관적 법칙에 위반되며 따라서 절대로 현실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현실성에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지 못하며 또 규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추상적으로 생각한 가능성、 따라서 적어도 현재에서는 현실성으로 전환될 수 없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현실적 가능성이란 그것이 현실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들이 존재하며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현실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말한다。

현실적 가능성은 따라서 어떤 현상을 복잡한 력사적 환경으로부터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력사적 환경을 고려한 조건하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두 체계의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을 말할 때 이것은 다만 추상적으로 생각하여 두 체계가 평화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

시기의 력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도 다만 추상적으로 생각하여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이 강대하게 되였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이 인민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반인민적 제국주의 부르죠아지가 인민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현 력사적 단계에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국내 전쟁을 거치지 않고 평화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의회를 통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실현된 례는 없으며 또 가까운 수년 동안에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다。그러나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의회를 민주화하는 방법으로써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들이 존재하는 한 이것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투쟁을 통하여 이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되는 것이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현실성으로 전환될 것이다。따라서 오늘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은 형식적 가능성이 아니라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은 결국 정치의 연장이며 어떤 정책을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려는 현상이다。즉 그것은 국가와 국가간 또는 계급과 계급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폭력적 방법이다。모순의 해결 방법은 항상 그 모순의 성격、그 모순의 성숙 정도、그 모순의 주요 측면이 어디 있는가 등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따라서 어떤 정책상의 모순이 반드시 전쟁에 의하여서만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 방법、회담의 방법에 의하여 정책상의 모순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그러나 전쟁 일반의 방지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 국가들 상호간의 전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형성의 법칙으로 인하여 불가피적으로 된다。그러나 이때에도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형식적인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즉 구체적으로 조성된 어떤 긴장 상태에 한해서는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도 존재한다。그러나 제국주의 단계에서 전쟁 일반을 방지할 수는 절대로 없다。제一차 세계 대전은 제국주의 전쟁이였는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하고 그의 력량이 강화됨에 따라 전쟁 방지의 가능성은 형식적 가능성으로부터 점차 실제적 가능성에로 접근하여 가게 된다。사회주의 국가는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따라서 강력한 무장

력을 소유하고 있다。그러나 자본주의 제도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와의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능히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인류 사회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만약에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비교적 약한 나라가 강한 제국주의 국가에 대하여 전쟁을 하지 않고 양보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평화를 위한 투쟁은 그가 약한 데서 양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인민은 언제나 류혈적인 침략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사회주의 국가는 인민의 국가로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전쟁 방지를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기만과 음모를 폭로한다。사회주의 국가의 출현과 함께 인류는 처음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국가와 군대、평화를 위한 투쟁의 물질적 근거지를 가지게 되였다。이때부터 평화는 전쟁을 원하는 세력인 제국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의 세력과의 대립의 투쟁을 거쳐서 실현될 수 있게 되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 쏘련은 백방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집단적 안전 체계의 창설을 위하여 투쟁하였다。그러나 이때에 사회주의는 아직 세계적 체계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국주의 국가 내부 인민들은 평화 유지를 위하여 자국 정부로 하여금 쏘련의 제의에 따라 가도록 투쟁할 수 있는 정도로 각성되지 못하였었다。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은 전쟁 방지를 위하여 투쟁하는 강력한 평화의 근거지의 출현을 의미하였지만 세계적 전쟁、구체적으로 제二차 대전을 방지할 가능성은 아직 실제적 가능성으로 장성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제二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는 一국의 범위를 벗어나 강대한 세계적 체계로 장성하였다。여기에는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위로 하여 一三개국이 망라되여 있으며 一〇억에 가까운 인구가 이 진영에 속하고 있다。이 나라 인민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된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굳게 단결되여 있다。세계에는 벌써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된 력량을 제어할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는 더욱 심각화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三대 모순은 가일층 격화되고 있다。

인도、비루마、인도네시야、애급、씨리야 기타 많은 나라 인민들이 민족 해방 투쟁의 결과 자기들의 자주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그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제패 정책은 그의 『동료』들인 제국주의 렬강에 대하여서도 격렬한 불만을 장성시키고 있다。 이 나라들은 미제의 경제적 및 정치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 내부의 인민들은 선진적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반인민적 침략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며 평화를 고수하기 위하여 대중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결국 세계에서 평화 진영의 세력이 전쟁을 원하는 세력보다 강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전쟁 방지의 가능성의 객관적 근거들이 충분히 존재하며 만약 이것들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 투쟁한다면 반드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음모를 사전에 폭로 분쇄하고 세계의 평화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전쟁 방지의 가능성은 형식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인 것이다。

력사 행정의 발전에 따라서 가능성의 성숙 정도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형태도 변경된다。

一八四〇년대에 맑스와 엥겔스는 역시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실제적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一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불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물론 정당하였다。 왜냐 하면 이때 맑스와 엥겔스의 명제는 추상적이 아니라 력사적 환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기초 우에서 나온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에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은 아직 제국주의 단계에서와 같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형태도 제국주의 단계에서와는 달랐다。 레닌은 제국주의 단계에서 一국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의 리론을 내놓았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반영하는 정당한 리론이였으며 이때에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의 성숙 정도는 맑스、엥겔스 시대보다 컸다。

맑스、엥겔스의 시대에는 一국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은 추상적 가능성이였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가 달라졌으며 혁명 승리의 가능성의 성숙 정도와 조건들이 변경된 제국주의의 단계에 와서는 이와 같은 추상적 가능성의 명제가 현실적 가능성의 명제로 전환되였다。 따라서 추상적 가능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력사적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결국 력사 발전의 객관적 행정과는 유리된 가능성을 론하게 된다。

현실성은 사물 발전 과정에서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다。 一국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이 一〇월 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현실성으로 전환되였다。 또 一〇월 혁명의 승리는 동시에 사회주의 사회 건설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어떤 사물이든지 반드시 가능성을 거쳐서 현실성으로 전환되고

현실성은 또 미래의 새로운 현실성의 가능성을 조성한다。

가능성과 현실성은 이와 같이 호상 밀접히 련관되고 있으며 호상 전환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엄격히 서로 구별되여야 한다。 가능성은 아직 현실성은 아니다。 가능성은 다만 현실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는 데 불과하며 이것이 현실성에로 전환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요구된다。

어떤 가능성이 현실성에로 전환될 수 있는가 없는가、또 언제 현실성에로 전환될 수 있는가는 구체적 조건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물론 이 구체적 조건들도 결국 력사 행정에서 발생 발전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현실성에로 전환되는 조건들은 자연과 사회에서 동일하지 않다。 자연계에서는 인간의 의식적 활동과는 독립적으로 가능성이 현실성에로 전환될 수 있다。 어떤 식물의 종자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에게 적당한 온도와 습기 등 제 조건이 보장되면 그것은 반드시 발아할 것이며 계속 여러 가지 조건이 보장될 때에는 이 식물은 계속 장성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식물의 종자 자체에 내포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성에로 전환되기 위하여서는 수 많은 객관적 조건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인간의 의식적 활동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 개조에서 큰 역할을 논다。 이때에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여 자연계에서 가능성이 현실성에로 전환되는 제 조건들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와 같은 조건들을 지어 줌으로써 자연의 법칙이 인간이 원하는 방향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인식이 깊으면 깊을 수록 자연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가능성들과 그들이 현실성에로 전환될 수 있는 제 조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실천적 활동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지어 줌으로써 자연에서는 보통 발생하지 않는 일도 발생하게 할 수 있으며 인간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발명하였다는 모든 복잡하고 교묘한 기계는 그것이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자연계에서 작용하는 법칙을 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자연계의 제 법칙들이 작용할 수 있는 복잡한 조건들을 지어 준 것이다。 즉 자연 법칙의 작용의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자연 개조에서도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인식과 그의 실천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자연에서와는 달리 사회에서는 어떤 가능성이든지 인간의 실천적 활동을 떠나서는 현실성에로 전환되지 않는다。 인민 대중의 실천적 활동、계급들과 걸출한 개인들의 실천적 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에서 변화 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으며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

는 문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인민 대중、계급、개별적 인간 등은 자기 마음대로、주관적 의도대로 력사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인간의 활동은 인간의 객관적 생활 조건들에 의하여 규정된다。그 사회 제도、특히 생산 방식、그 사회의 물질 생활의 발전 수준、인구의 다소、인민들의 문화 수준 등등 여러 가지 객관적 주관적 조건들에 의하여 인간의 활동의 방식과 그 성격이 규정된다。자본주의적 생산 방식하에서는 오직 자본주의적 경제 법칙에 의거하여서만 인간은 활동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또 아직 기술이 발전되지 못한 나라에서 자체로 현대적인 큰 공장들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능성이 조성되기 위하여서는 그 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 법칙들과 그 법칙들의 작용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 및 주관적 제 요인이 요구된다。가령 어떤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작용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며 수행함에 요구되는 기술과 물자들과 경제적 제 조건(교통、운수 등등)과 로동력 등등이 요구될 것이다。이와 같은 조건들을 리용하여 그에 알맞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 완수의 가능성은 김 일성 동지가 一九五四년 三월 전원 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주요한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하나인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작용하고 있으며 물질적이며 기술적인 막대한 국제적 원조와 국내의 풍부한 자연 부원과 전전 또는 전쟁중 단련된 간부들과 고귀한 경험、조선 인민을 승리에로 조직 동원하는 조선 로동당과 그의 총 로선의 집행자인 강력한 인민 정권의 존재 등등에서 찾을 수 있였다。이상과 같은 제 조건은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완수를 위한 매우 풍부한 가능성을 주는 것이였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가능성이였고 현실성은 아니였다。이것이 현실성에로 전환되기 위하여서는 이 모든 주어진 객관적 또는 주관적 조건들을 리용하는 인민 대중의 실천과 그를 효과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당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주관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이 주관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성이 현실성에로 전환되는가 못되는가가 결정되며 또 그 실현이 빨리 되는가 늦어지는가 등등이 결정된다。이는 매 개인들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다。어떤 일을 같은 조건하에서 같은 시간、같은 로동 능력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이 연구하며 가능성이 현실성에로 전환되는 빠른 길을 발견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의 몇배의 능률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객관적 법칙은 반드시 인간의 실천을 통하여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현실성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동일한 객관적 조건하에서도 주관적 노력과 그 노력의 조직 여하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현실성에로 전환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과 그 경로를 정확히 인식하는 문제이다。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인식의 역할、지식과 과학의 역할은 자연을 개조함에 있어서나 사회를 개조함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현대의 발달된 기술이 자연에 관한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사회 혁명에서 옳바른 강령과 전략 전술이 사회 발전의 법칙에 관한 과학적 지식에 의거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경제 건설에서 경제학에 관한 지식이 큰 역할을 노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혁명은 결국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인민 대중들의 투쟁인 것이다。맑스—레닌주의 당이 혁명에서 위대한 역할을 노는 것은 그가 력사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되고 있으며 혁명적 대중의 전투적 전위 부대로서 혁명 승리의 가능성과 그를 현실성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을 명백히 파악하고 모든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최대한도로 혁명 승리를 위하여 리용할 수 있도록 인민 대중의 투쟁을 조직 동원하기 때문이다。맑스—레닌주의 당의 력사는 결국 당이 어떻게 혁명 승리의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개별적인 가능성들이 현실성에로 전환되는 구체적 경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전략과 전술도 이것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데는 그 혁명 승리의 객관적 및 주관적 조건들에 관한 구체적인 타산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은 벌써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증명되였다。그러나 그 구체적 형태들에 대하여서는 혁명 승리의 객관적 조건들의 다양성 및 변천에 따라 레닌과 쏘련 공산당에 의하여、또 각국 공산당、로동당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되였으며 되고 있다。사회주의 혁명의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에 관한 레닌의 교시는 특히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앞으로 예견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혁명들에서 더욱 명확하게 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二○차 대회는 현 단계의 국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두 체계의 평화적 공존과 전쟁 방지의 실제적 가능성의 존재를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의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 특히 의회를 통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의회를 통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 없이, 사회적 생산 수단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 없이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우익 기회주의자들과 부르죠아 개량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개량주의자들의 주장은 혁명을 부인하며 혁명 군중을 기만하며 그들의 혁명 투쟁을 마비시키며 자본주의 제도를 영구화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二〇차 대회가 제기한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에 관한 리론은 날로 장성하는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 및 식민지 체계의 전면적 붕괴와 아울러 광범한 인민 대중이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혁명의 동력으로 동원될 수 있으며 혁명 승리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는 객관적 력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나온 결론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불란서, 영국같은 나라들의 공산당들에서는 벌써 一九四六년, 一九五一년에 자기 혁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오래 동안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로동 계급이 인민 대중을 쟁취하며 나라를 민주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의회는 물론 부르죠아지가 자기의 독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맨들어 낸 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부르죠아 사회 발전의 상승기의 산물인 의회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형식을 그냥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래 동안 인민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여 왔다.

부르죠아 사회 멸망의 전야인 제국주의의 현 시기에 있어서 의회의 민주주의적 형식은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인민 대중이 평화적 방법으로 자기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지금 부르죠아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의회의 역할을 제한하며 부르죠아 정부의 독재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민 대중의 선봉대이며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계급인 로동 계급은 과거의 력사의 모든 인민적인 것 및 민주주의적인 것의 진정한 계승자이다. 로동 계급은 부르죠아들이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상승기에 창설한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형식의 모든 진보적인 측면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출현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에 의한 의회의 리용은 더욱 광범한 인민 대중들에게 로동 계급의 진보성과 인민성 및 민주주의적 성격을 실증하여 주며 부르죠아지의 반동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벌써 로동 계급만의 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들의 사업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로동 계급의 적으로 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 대중과 민주주의의 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최대 한도로 민주주의적 형식(특히 부르죠아 의회의)을 리용하여 인민 대중을 부르죠아지의 기만으로부터 각성 분리시키며 부르죠아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그 정권을 인민적,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전변시키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정권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방책이 유일하게 정당하며 가능한 조국 통일의 길이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였으며 그 투쟁 방법의 하나로서 남반부의 『국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데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조선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평화적 조국 통일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조선에서의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해명되여야 할 것이다.

조선 혁명에서 해결을 요하는 기본적 모순은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조선 인민을 일방으로 한 애국적 민주주의적 혁명 세력과 미 제국주의와 그의 주구 리승만을 타방으로 하는 반인민적, 반혁명적 세력간의 모순이다.

이 기본 모순은 국제적 모순과 국내적 모순의 二중성을 띠고 있다. 국제적 관계에서 보면 조선 인민이 자기의 혁명의 기지로 삼는 공화국 북반부는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한 개의 성원으로서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과 불가분리의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방 조선의 반혁명 세력이 미 제국주의와 직접 결탁하여 괴뢰 정권을 수립하고 있는 공화국 남반부는 미 제국주의의 직접적 식민지로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전쟁은 일방 국내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과의 공민 전쟁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조선 인민이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일환으로서 국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으로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전쟁 방지의 가능성은 국제적 및 국내적 두 방면에서 고찰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아 현 시기의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우에서 보았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와 그의 추종 국가들의 무장 간섭을, 사회주의 진영은 묵과하지 않았으며 쏘련을 선두로 한 형제적 인민들은 조선 인민을 백방으로 원조하여 주었다. 형제적 중국 인민은 직접 손에 무기를 잡고 우리 인민과 함께 미제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그들의 침략적 야망을 끝끝내 좌절시키고 말았다. 이와 같이 미제가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한다는 것은 조선 인민만을 상대로 하는 것

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또 해방된 조선 인민의 위력、그 영웅성과 완강성이 그들에게 교훈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조건하에서 그들이 과연 새로운 전쟁을 조선에서 도발할 수 있겠는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은 평화 유지、 전쟁 방지의 현실적 가능성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볼 때에 전쟁 방지의 가능성이 실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리 승만 통치하에서의 남반부의 내부 모순은 그들로 하여금 모험적 발악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원하는 자는 결국 미제의 앞잡이들인만큼 미제의 원조와 미제의 승인 없이는 전쟁을 도발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에 단독적으로 그들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지나간 조국 해방 전쟁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단독적으로 전쟁을 도발한다는 것은 매우 곤난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보아도 전쟁 방지의 가능성은 조선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은 조선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의 가능성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만 이것만으로써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킬 가능성과 함께 평화가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능히 통일을 달성할 가능성이 또한 있어야 한다。 이 가능성은 물론 혁명과 반혁명 간의 력량 관계에 의하여 조성된다。 조국의 통일 달성은 우리 혁명에서의 기본 모순의 해결을 의미한다。 만약에 혁명 력량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에는 그 모순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오늘 조선 인민의 혁명 력량은 미제와 야합하고 있는 국내 반동 세력보다 강하다。 조선 인민은 공화국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가지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벌써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건설에로 들어서고 있다。 조선 인민에게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의 애국적 력량을 총망라한 강력한 민족 통일 전선이 형성되여 있으며 형제적 국가 인민들의 물심 량면으로 되는 막대한 원조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풍부한 자연 부원들이 존재하며 해방후 一〇여 년의 건설과 투쟁에서 단련되였으며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적으로 교양되고 훈련된 수백만의 애국적 근로 인민 대중이 있으며 이 모든 조건들과 력량들을 옳게 조직 동원하며 객관적 합법칙성에 의거하여 모든 승리의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도록 지도하는 현명한 맑스—레닌주의 당이 존재한다。 공화국 북반부 민주 기지의 력량의 강대성은 이미 조국 해방 전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증명되였다。

남반부 민족 부르죠아지까지도 미제와 그의 주구인 리 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직접적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 이들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족 산업과 민족 문화、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주주의를 원하는 모든 조선 인민은 결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북반부의 민주 기지에 존재하는 민주 력량만 하여도 국내 반동 세력보다 강하지만 남반부에서 투쟁하고 있는 인민 대중의 힘을 같이 합하면 그 힘은 국내 반동 세력보다 비할 바 없이 강하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실지에 달성되기 위하여서는 많은 난관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우선 미제가 직접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며 리 승만 도당의 팟쇼적 테로 정책하에서 인민의 민주주의적 운동과 그의 장성이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북반부와의 자유로운 교류를 엄금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암매하게 하며 미국식 생활 양식과 부패한 부르죠아 문화로써 사람들을 타락과 무기력에로 몰아 넣고 있다。 남반부에서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민의 승리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지 못하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기만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지장으로 될 수는 없다。

미제는 지금 남반부를 직접 강점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와 조선 인민간의 모순은 역시 외부적 모순이다。 외부적 모순은 오직 내부적 모순을 통하여서만 작용한다。 미제는 이 내부적 모순의 발전에서 국내 반동을 옹호하고 있으며 조선 인민에 의한 이 모순의 해결을 방해하는 최대의 힘으로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주되는 적은 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제는 반드시 국내 모순을 통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인민의 세력이 가일층 강화되고 리 승만 도당이 인민들로부터 더욱 심각하게 고립됨에 따라서 미제 침략 세력의 영향도 점차 더욱 약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 혁명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장 개석 반동 도당을 원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주관적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 오게 되였다。 혁명의 발전에 따라서 장 개석 도당의 반인민적 성격은 더욱 명백히 인민들 앞에 폭로되였으며 장개석 군대는 최신의 미국식 무기들로 무장한 채로 중국 인민 해방군에로 투항하여 넘어 오게 되였다。 중국 혁명에서 미제는 사실상 자기의 본의와는 달리 인민 해방군의 병기창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의 장개석 원조는 결코 중국 사회 발전의 필연성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만약에 미제가 약소 국가들에서의 국내 반동을 지주로 삼지 않고 직접으로 그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벌써 그들은 현재 계속 제국주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여 자주 독립적 평화 애호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인도、 비루마、 인도네시아、 애급 등 나라들을 점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력량은 미국에 없다。 리 승만 도당이 완전히 조선 인민으로부터 고립되고 그 기만으로부터 남조선의 모든 근로 인민들과 군대들과 경찰들까지도 각성되였을 때에 미제가 비록 지금과 같이 강대한 나라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조선 인민이 자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국의 통일 달성의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어떻게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인민 대중으로부터의 고립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급속히 향상될 것이며 그 정치—도덕적 통일과 단결이 일층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고무 격려된 남반부 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 승만 도당의 매국적, 반인민적 팟쇼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로동자, 농민들 뿐만 아니라 광범한 소자산 계급, 근로 인테리들도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특히 남반부 지배층 내부에서도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바 지배계급들의 재야 세력을 대표하는 『민주당』과 미제의 주구 리 승만의 『자유당』간의 알력이 날로 심각화되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력사의 창조자는 결국 인민 대중이다. 지금 리 승만은 전쟁 재도발을 기도하면서 괴뢰군과 경찰을 급속히 확대 강화하고 있지만 군대와 경찰은 대부분이 로동자, 농민의 자제로 구성되고 있다. 최근 괴뢰군 장병들이 의거 입북하는 사실이 더욱 빈번하다. 만약에 팟쇼 체제하의 군대와 경찰이 동요되고 그들이 인민의 편으로 대량적으로 넘어 오게 될 때에 어떤 힘도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리 승만 도당의 지배를 계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에도 미제의 무력 간섭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미제가 무력 간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공화국 북반부를 왜 침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화 진영 나라들을 왜 침공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기가 곤난할 것이다.

가능성은 아직 현실성은 아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의 실천적 투쟁이 필요하며 이 투쟁을 옳게 조직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 제三차 대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책을 제시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리 승만 도당의 전쟁 재발 음모를 분쇄하여 정전에서 달성한 승리를 공고한 평화에로 전화 발전시키야 하며 이와 동시에 조선 인민의 혁명적 민주 기지인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또 남반부 인민들을 혁명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시키며 남북 조선의 자유로운 접촉과 교류를 촉진하며 남반부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고무 추동하여 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요소들을 총 망라하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가일층

강화할 것이며 끝으로 남북 조선 정당, 사회 단체들의 행동 통일 내지 련합을 도모하여 국제적 협상을 조직하는 등 적극적 대책들을 강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가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구체적 방책은 우리 당이 조선 혁명의 발전을 국제 국내적 모든 관계에서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 객관적 발전의 합법칙성에 의거하여 주관적 요소들의 활동의 길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은 실제적 가능성이며 三차 당 대회가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방책에 따라 견결히 투쟁할 때 반드시 이 가능성은 현실성에로 전환될 것이다. 조국의 통일이 빨리 오는가 늦게 오는가는 오직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전체 인민들이 어떻게 영웅적으로 투쟁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 로동당은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는 자기의 혁명적 실천에서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해방된 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쏘련 군대의 주둔과 관련하여 일제 잔재를 철저히 숙청하고 제반 민주 개혁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우리 당은 바로 이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여기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계획은 방대하였다. 우리 인민들 앞에는 미제의 야만적 폭격에 의하여 페허로 된 도시와 농촌을 재건하여야 할 곤난한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당은 항상 우리의 난관들이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난관이며 우리들의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를 따라 투쟁한 우리 인민들은 승리하였다. 지금 조선 인민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총량적으로 기한전에 완수하고 새로운 五개년 계획의 실천에로 들어 서려고 총 궐기하고 있다.

객관적 세계 발전의 합법칙성에 엄격히 의거하여 모든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은 온갖 교조주의적, 형식주의적 『우경』과 『좌경』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당은 농업의 협동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인민들의 자연 생장적 운동을 조직 지도하려고 하지 않는 『우경』적 경향을 반대하는 동시에 농촌 간부들의 준비 정도, 농민들의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화의 속도를 함부로 재촉하는 『좌경』적 경향도 반대한다. 당은 또한 쏘련을 위시한 선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제적 원조를 타산하고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은 그가 항상 객관 세계 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혁명 승리의 모든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확한 정책과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며 이의 집행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 대중을 정확히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축적 증대와 그에 있어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가 가지는 의의

한 규 학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는 우리 인민의 일체 력량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집중할 것을 호소하면서 一九五七년부터 실시될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작성, 실행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조국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확고히 축성하며 농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실현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즉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확고히 견지하며 인민 경제에서의 기술적 개선 및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 경제 부문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고 농업 및 경공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켜 그 기초 우에서 우리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키는 데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 혁명의 원천지——공화국 북반부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강력한 물질적 토대로 공고화하는 데 있다』(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의 결정서).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첫째로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둘째로 농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실현하며, 세째로는 이러한 기초 우에서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며, 네째로 북반부를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민주 기지로 더욱 공고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업화와 축적 문제를 불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다.

사회주의 공업화와 축적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우선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에 대하여 간단이나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가 존렵하고 발전하려면 생산은 부단히 증대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 이전의 어떠한 사회 경제 체제에서든지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의 적대적 모순과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회 발전의 일정한 시기——계단에 있어서는 생산 확대는 정지되거나 또는 그 속도가 저하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의 운동 법칙을 분석하면서 자본주의적 확대 재생산 도식을 주었는 바 그 도식에 의하면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一부문과 소비 수단을 생산하는 二부문간에는 $\text{I}(v+M)>\text{II}c$라는 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년 생산물의 가치 구성에 있어서나 현물 구성에 있어서나 一부문의 로임과 잉여 가치, 즉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는 二부문에서 소비되고 마멸되여 보충되거나 새로 확대되는 생산 수단, 즉 불변 자본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니 생산 수단 생산은 소비재 생산보다 우선적으로 장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계는 비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 발전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물 점유의 사적 성격간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 확대 재생산은 한 극에서 부의 증대와 집적을 가져 오며 다른 한 극에서는 빈궁과 령락의 증대를 가져 왔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확대 재생산에서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은 이와 같은 모순을 배제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확대는 사회적 부의 증대를 가져 오며 로동자, 농민, 즉 전체 근로 인민들의 착취로부터의 해방과 유족을 가져 온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증대는 근로 인민들의 소비의 증대를 가져 오며 생산과 소비간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적대적 모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써도 우리는,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은 자본주의적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이 아주 높은 속도로 부단히 장성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량 극의 적대적 모순이 없다는 데서 확대 재생산에서의 생산 관계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데 과도기 경제에서의 확대 재생산에 있어서의 $\text{I}(V+M)>\text{II}c$는 다른 일면, 즉 계급과 계급간의 관계

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확대 재생산에서는 한 극——자본가 계급에로의 부의 집중은 곧 자본—생산 수단의 집중을 의미하며 다른 한 극——로동 계급에게는 소비 수단의 일부문만이 분배된다。 그런데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고 산업 국유화에 의하여 주요 생산 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여 있는 조건하에서는 Ⅰ(v+M)>Ⅱc는 착취 관계의 축소 및 그 페절을 가져 온다。 그것은 물질적 부의 확대 재생산 과정은 단순한 물질적 생산물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대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현실이 보여 주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알 수 있다。

공업 총생산액의 소유 형태별 구성

	一九四六년	一九四九년	一九五五년
총 계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국영 및 협동 단체공업	七二•四%	九〇•七%	九八•三%
그중 국영 공업	七二•四%	八五•五%	九〇•六%
협동 단체 공업	—	五•二%	七•七%
개 인 공 업	二七•六%	九•三%	一•七%
그 중 수 공 업	四•四%	一•五%	〇•六%

전기 숫자는 우리 나라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즉 공업 총 생산액은 一九四八년 불변 가격으로 하여 一九四六년을 一〇〇으로 하면 一九四九년에는 三三七、一九五五년에는 四八五로 장성하였고 그중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생산액은 一九四六년을 一〇〇으로 하여 一九四九년에 四二三、一九五五년에는 六五八로 증대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확대 재생산은 사회화된 공업、특히 국영 공업의 압도적 증대와 개인 공업의 상대적 및 절대적 축소로서 특징지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확대 재생산은 단순히 물질적 부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형태별 구성、나가서는 계급 관계에서의 변화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현재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이 공업화의 기치 밑에서 진행되는 것만큼 이 공업화는 결코 공업화 일반이 아니라 소상품적 및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에 대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비중의 증대를 보장하는 그러한 공업화를 의미하며 그러한 확대 재생산을 의미한다。 우리의 공업화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공업화인 것이며 사회주의적 부문의 승리를 보장하는 공업화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재생산 리론은 첫째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확대 재생산의 결정적 요인으로 되며、둘째로 사회주의적 확대 재

생산은 자본주의적 확대 재생산과 달라서 생산의 확대 이외에 소비의 증대도 수반한다는 것、즉 착취 관계의 축소 및 그 페절에 대응하여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의 제고를 가져 오며、세째로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은 그 자체로서 착취 관계의 페절에로 강력히 작용하면서 사회적 부의 급속한、그리고 부단한 증대를 이룩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음으로 앞에서 인용한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의 결정에 의하면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 기본 방향이 명시되여 있는 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레닌은 일찌기『생산을 확대하려면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를 위하여서는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사회적 생산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레닌 전집 조선문판 二권 一분책 二二七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 이상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다만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이 일정에 오른 오늘에 있어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산 수단을 자국내에서 반드시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여도 되지 않은가 하는데로부터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인민 경제의 자립성과 다면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과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조를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을 경시하는 데서 오는 그릇된 견해이다。 사회주의 공업화는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 선진적인 사회주의 공업국으로의 전환을 이미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공업 생산이 사회 생산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하며 중공업 생산이 전체 공업 생산 중에서 우세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일정한 정도로 발전된 중공업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경제 발전 행정을 보면 경공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공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공업의 발전이 없이 경공업만이 발전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 나라 경제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본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하여 보더라도 그렇거늘 하물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하여 농업을 포함한 일체의 산업 부문이 고도의 기술적 토대 우에서 발전될 것을 요구한다。 공업은 물론이고 농업、체신、운수、수산 등 모든 산업 부문에서 기계화되고 전기화되고 화학화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하여 우월성이 있다는 것은 물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한 거기에 있지마는 최신의 과학 기술적 성과를 모두 리용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고도로 높이는 거기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며는 반드시 생산 수단 생산 부

문、즉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켜야 한다。하물며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오랜 시일이 걸리는 사실을 불문에 부치고라도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여 중공업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모든 산업 부문을 최신 기술로 장비한다는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제적 분업에 대한 문제는 결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 진영내에서 국제적 분업은 반드시 고려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내의 어느 나라에서는 중공업만이 발전되여야 하며 어느 나라에서는 경공업만이 발전되여야 한다거나 또는 어느 나라에서는 농업만이 발전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여 있을지라도 어떤 나라에서든지 중공업은 우선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객관적인 경제 법칙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분업이라 할 때 그것은 주로 중공업、경공업、농업 및 기타 부문에 포함되는 생산물 종류 또는 세분된 생산 부문에 대하여서의 분업을 의미하는 말이다。 례컨대 농업에 있어서 알곡、공예작물、과수、양돈、양어、양계、양잠 등 일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에서는 기후 기타 조건으로 말미암아 양잠이 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면화가 전연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중공업이라 하더라도 이에 속하는 부문은 많으며 또 생산물 종류는 허다한 바 이 모든 것을 한 나라에서 다 생산한다는 것은 불리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례컨대 농업에서 사과、담배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사탕무나 빠나나를 생산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며 중공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하 자원의 조건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는 례컨대 전극、카바이트 공업、특수강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크지마는 석유 공업을 발전시키기는 매우 곤난하다。 또 五년 혹은 一〇년 후에는 발전될 것이라도 현 시기에서는 부적당한 생산 부문과 품종들이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에서 골간으로 되는 기계 제작 공업、야금 공업、연료 공업、건재 공업、화학 공업 등등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일체의 제품과 부문을 동시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 발전의 현실적 과정에 있어서 발전의 방향과 선후차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국제적 분업을 고려에 넣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된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의 객관적 법칙이다。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제 정책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생산 수단 생산 부문、즉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말할 때 생산 수단에는 생산 수단 생산을 위한 생산 수

단과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맑스의 재생산 도식에 기초하면서 기술적 진보를 고려하여 작성한 확대 재생산 표식에서 레닌은『이리하여 우리는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의 생산이 가장 급속하게 장성하며 그 다음에는 소비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의 생산이 장성하며 소비 수단의 생산이 가장 완만하게 장성하는 것을 본다』(레닌 전집 조선문판 一권 一분책 一三〇페지)고 결론하였다。 이에 의하여 우리는 생산 수단 생산 및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에서의 속도의 순위와 전체로서의 생산 수단 생산이 소비재 생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 중에서도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기계 생산이라는 것도 그 의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 공업화에 있어서 다음으로 해명하여야 할 것은 공업화의 속도와 공업화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국가 공업화의 속도는 우리 나라가 처하여 있는 국제 국내 정세와 경제 형편에 많이 의존한다。

오늘 우리 앞에는 조선 혁명의 원천지인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위업을 달성하며 우리 혁명을 앞으로 더욱 전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우리는 현재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있는 바 우리에게는 이를 가능케 하는 주객관적 조건이 구비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특히 오늘에 있어서는 전시에 파괴되였던 생산력은 회복되였지마는 전쟁에서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중공업과 경공업、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당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조건도 있지마는 특히는 우리 나라가 처하여 있는 환경이 一九二〇년대에 쏘련이 처하여 있던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우리 나라는 오늘 자본주의에 포위된 고립무원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의 사심 없는 원조를 받는 그런 환경에 처하여 있다。 이 사정은 우리 나라로 하여금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적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우리의 실패를 예견하고 무릎을 꿇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하여 포위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성심 성

의로 방조하고 장기 차관과 기술을 제공하여 주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굳은 련결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공업화의 템포는 대단히 빠를 수 있으며 또 빠른 것이다。

나라의 공업화의 템포 문제는 또한 공업화의 방법 및 축적과 호상 밀접히 련계되여 있다。

짧은 기간내에 공업화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작용하는 새로운 합법칙성에 의하여 조건지어진 공업화의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발전의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공업화는 보통 경공업의 발전으로부터 시작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중공업의 발전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을 요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세기를 요하였다。 그것은 중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불가피적으로 막대한 자본과 발전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개별적 자본가들의 리윤 추구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한다。 매개 자본가들은 투자로부터 리윤을 얻기까지에는 장기간을 요하는 중공업을 경공업에 앞서서 건설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건설될 수 있는 반면에 자본의 회전률은 높고 리윤도 크다。 그러나 중공업은 기본 건설 투자로부터 리윤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높은 과학 기술이 요구되므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공업화는 보통 경공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중공업 건설에서 높은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요구된다는 사실로부터 자본주의적 공업화에는 그에 고유한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상술한 바와 같이 경공업으로부터 중공업에로의 코스를 밟은 것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는 그 공업화는 장기간을 요한다는 그것이다。 이 밖에 자본주의적 공업화는 자국내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식민지 또는 전패국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함으로써 소요의 거대한 자금을 획득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리하여도 부족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는 외국의 차관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업화의 방법 및 자금 문제 해결은 자본주의적 공업화에 있어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그 뚜렷한 력사적 실례를 쏘련에서의 공업화 행정에서 볼 수 있다。

레닌은 일찌기 사회적 생산의 기본적 二개 부문간의 호상 관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하에 사회주의적 축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 방법을 명시하였다。 레닌에 의하면 중공업의 발전은 사회주의적 축적 사업이 정당

히 조직되는 때에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였다。

레닌은 이 문제의 곤난성을 정확히 보면서도 과도기 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축적의 내적 가능성을 부인하는 뜨로쯔끼주의와는 반대로 이 가능성의 존재와 아울러 자체의 힘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축적 및 확대 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수차 강조하였다。

레닌은 제五차 전로 로동 조합 대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로서의 중공업의 부흥과 건설을 말하면서 저축과 조세 증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끄민레른 제四차 대회에서는 중공업 건설을 위하여 경공업 상업을 리용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상업 활동은 벌써 우리에게 약간의 자본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 아직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二천만 금 루블리를 약간 초과한다。 우리의 상업에 의하여 우리 중공업의 개선을 위하여 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타당하다』

레닌은 이렇게 사회주의적 축적 원천과 그의 조성 조건들을 쏘베트 국가 자체내에서 찾았는 바 쏘베트 사회 경제 체제의 우월성에서、로동의 새로운 조직 형태에서、자본주의에 내재하는 생산과 소비와의 적대적 모순의 청산에서、근로자들의 무진장한 창의 창발력과 사회주의의 경쟁에서 그것을 발견하였다。

쏘련에서의 공업화의 그 후 경험은 레닌의 제 명제의 정당성과 정확성을 증시하였다。 一九二六년 쏘련 공산당 제一五차 꼰페렌찌야에서는 기본 투자 증가의 템포는 『첫째로 사회화된 공업의 축적의 규모에、둘째로 국가 예산을 통한 인민 경제의 타 부문의 수입의 리용에、세째로 주민들의 저축을 협동 조합、저축국、국내 국채、신용 체계 등등에 인입하여 리용하는 데에 달려 있다』 (쏘련 공산당 결정집 二권 二九六폐지)는 것을 밝혔다。 이리하여 一〇월 혁명 一二주년을 맞이할 때에는 중공업의 근본적 건설을 위한 축적 문제를 대체로 해결하였고 생산 수단의 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일층 빠른 속도를 취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쏘련은 금속 공업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전제 조건들을 조성하게 되였던 것이다。

쏘련이 중공업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돌렸는가 하는 것은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서 공업에 대한 총 투자액은 一九一억 루블리、그 중 중공업(A)에 一四七억 루블리를 예정하였는데 四년 반 동안에 공업에 대한 총 투자 실적은 二四八억 루블리이고 그중 중공업에 대한 투자 실적은 二一三억 루블리로 되여 있는 데서 충분히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업에 대한 투자 총액 二四八억 루블리에 대한 중공업에의 투자액 二一三억 루블리는 실로 八五%를 넘는 것이다。 쏘련에서의 공업화에 대하여 여기서 이 이상 상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여야 할 것은 쏘련을 포위하고 있던 자본주의 국

가들에서 모든 자본가들은 쏘련이 자력으로 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중공업의 재건에서 실패할 것을 믿으면서 그 때에야 쏘련은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고 타산하고 장기 차관이나 신용을 거절한 환경 속에서 쏘련이 중공업의 기초를 축성하였으며 계속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오늘에 있어서는 一등급의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훌륭이 발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방법의 우월성을 증시하는 산 력사적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 기간에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축성하며 제 一차 五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화의 제 一단계를 완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에서의 자기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의 기초로 되는 금속、전력、기계、석탄、화학 및 건재 공업 부문들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제일 약한 고리로 되고 있는 기계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물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하였고 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전후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나라는 쏘련의 一〇억 루블리、중화 인민 공화국의 八만억원(구 인민폐)을 비롯하여 형제적 국가로부터 거대한 원조를 받았으며 또 얼마전에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형제적 제 국가들의 친선 방문을 통하여 쏘련을 비롯한 많은 우방 국가들로부터 이러 저러한 형태로서 계속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되였다. 아직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건설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어쨌던 방대한 기본 건설이 있을 것과 증대되는 거액의 류동 자금이 요구될 것만은 취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국가들로부터 원조가 있다 하여도 五개년 계획 기간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는 아주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 하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당의 일관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용이하게 보장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지난 一一월 一일부터 실시된 로임의 평균 三五% 인상과 이미 실시되고 있는 물가 인하에 의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자금 문제는 일층 더 중요성을 띠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많은 곤난이 예견되는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축적을 증대시킬 수 있는 내부 원천들을 남김 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적 축적이 증대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민 소득이 증대되여야 한다. 국민 소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물질 생산 령역에서 사회적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적 생산물의 일부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 수단을 보상하고 남은 사회적

총생산물의 일부분이다. 국민 소득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생활상 직접적으로 수요되는 소비 폰드와 사회적 확대 재생산을 위한 축적 폰드로 배정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확대 재생산과 인민들의 생활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서는 축적과 소비간에 극단한 편향이 없이 알맞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지마는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의 계속적인 증대 없이는 축적 폰드의 계속적인 증대를 생각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극히 짧은 기간 국민 소득의 증대 없이、심지어는 감소하는 때에도 축적 폰드를 증대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축적 폰드의 증대는 사회 생산물의 증대를 가져 오며 사회 생산물의 증대는 국민 소득의 증대、따라서 반드시 소비 폰드의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축적 폰드의 계속적 증대와 소비 폰드의 계속적 감소라는 현상이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이미 말한 바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과 소비간의 적대적 모순이 없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 소득의 증대는 로동 생산 능률의 증대와 물질 생산 부면에서 일하는 로동자 수의 증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바 진국민 소득 장성의 이 두 요인 중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은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은 생산력 발전을 반영하며 국민 소득 증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바 그것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생산물에 들어간 로동중에서 산로동의 비중이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체화된 로동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절대적으로는 단위 제품에 투하된 로동의 량은 감소되는 것으로서 표현된다.

로동 생산 능률은 단위 시간내에 생산하는 생산물의 량 혹은 단위 제품에 필요한 로동 시간에 의하여 측정된다. 요컨대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이란 단위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로동의 량이 얼마나 적어졌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동 생산 능률이 높아지면 단위 시간내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그것은 국민 소득과 축적 증대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국민 소득과 축적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로동 생산 능률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만큼 축적의 증대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 생산 능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면 로동 생산 능률을 장성시키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우선 기술의 부단한 완성과 생산의 기계화、전기화、화학화 등과 현존 기술의 최대한의 리용、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형편의 향상과 그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의 제고、생산 및 로동 조직의 개선、근로자들의 창의 창발성의 발휘와 생산 의욕 및 증산 경쟁 등 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인민 경제의 축적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기본 조건으로 되는 것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원가 저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제一차 五개년 계획 기간에는 공업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을 一•五배 이상으로 제고시켜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업에서 기계화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남김 없이 리용하며 특히 품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을 우선적으로 기계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라고 교시하였다.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화이며 자동화이다.

생산의 기계화에는 부분적 기계화와 종합적 기계화가 있다. 모든 생산 부문에서 대규모적 종합적 기계화가 실시되려면 벌써 일정한 높은 생산력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정도에 발전된 중공업, 특히는 기계 공업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는 기계화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생산의 기계화라고 할 때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 수준과 기타 주객관적 조건들을 타산하지 않고 단꺼번에 대규모적 기계화만을 생각하고 능히 할 수 있는 소규모의 기계화에 대하여 주의를 덜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우리는 사정이 허락되는 한 대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그리 많은 로력, 자재,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손 쉽게 되는 소기계화에 부단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것이 순서이다.

물론 품이 많이 들고 힘드는 생산 부문, 례컨대 석탄 공업같은 데는 국가적으로 기계화가 촉진되여야 하지만 우선 매개 기업소 직장들에서는 소규모 기계화와 자동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각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에 의하여 부분적인 기계화와 자동화가 광범히 실시되여 로력의 절약, 즉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의 실례를 하나 들면 영홍 견직 공장에서는 종전까지 위권기 一대에 로력 한 사람씩 배치되여 일해 왔다. 그리하여 이 공장에서는 三교대 작업에 九명의 로력이 필요하였다. 위권기에서 로력을 절약하려면 다기대 작업이 광범히 실시되여야 하는바 그러기 위하여서는 위권기에 자동 정지 장치가 필요하였다. 이 공장 로동자들은 실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개조함으로써 위권기가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한 교대에 三명이 필요하던 로력을 一명으로 능히 할 수 있게 되여 결국 六명의 로력을 절약하게 되였고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제품의 원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기계화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조그마한 것임에 틀림 없으나 이같은 기계화, 자동화가 실시될 여지가 많은

것만큼 이같은 부분적 소규모적 기계화는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기계화는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볼 때 말하자면 아직 처녀지 상태에 놓여 있는 부문이 많다. 그러므로 크거나 작거나를 막론하고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하여 최대의 의의를 가진다.

생산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작업을 기계화하며 자동화하는 이외에 전기화와 화학적 처리 방법의 도입,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제고, 로동 규률의 강화, 로력 조직을 개선하며 작업 장소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작업에서 률동성을 보장하는 것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로동의 전문화와 협동화, 그리고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가 중요하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새 기술과 선진적 기술 공학의 도입 일반화, 로동자와 기술 일꾼들의 창의 창발성과 노력 경쟁은 자못 큰 의의를 가지며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작업 기준량의 정확한 제정과 임금 지불에 있어서 평균주의와 투쟁하는 것이 또한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만 볼 수 있는 로동 생산 능률의 급격한 장성이 있었다.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 一九四六——一九四九년의 四년간에 로동 생산 능률은 二五七%로 장성하였으며 전시에는 기업소와 철도 시설의 혹심한 파괴로 인한 생산 조건의 악화에 의하여 로동 생산 능률은 불가피적으로 저하하였다. 그러나 전후기에 있어서는 다시금 급속한 장성을 보게 되였다.

一九五五년의 로동 생산 능률은 전전 一九四九년 수준에 비하여 공업 부문에서는 一三二%,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一〇七%로 장성하였으며 一九四六년에 비하여서는 공업 부문에서는 三•四배,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三배로 장성하였다.

一九五六년 상반년에 공업 부문의 로동 생산 능률 계획은 一一二%로 초과 수행되여 전년 동기에 비하여 一九% 제고되였다.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이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표시하는 중요한 표식의 하나이다. 이 법칙은 근로하는 사람들의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애국적 투쟁에 의하여 나날이 실현된다.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두 요인——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로동자 수의 증대——중의 하나인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대하여 우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는 바 로동자 수의 증가에 대하여는 별로 설명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는 축적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미 말

한 바와 같이 국민 소득의 증대는 축적의 증대를 가져 온다。 국민 소득은 사회 총생산물 중에서 그 생산물 생산 과정에서 지출 소모된 생산 수단(C)을 보상하고 남은 생산물 부분이다。 맑스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사회 총 생산물을 C+V+M로 표시하였는데 국민 소득은 C를 뽑은 V+M에 해당하며 이중에서 로임에 해당하는 V를 뽑고 남은 M이 축적의 원천으로 되는 잉여 생산물—잉여가치—리윤을 표시한다。

국민 소득은 물질적 생산 령역에서 이루어진다。 쏘련 통계학자들의 분류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물질 생산 령역은 다음과 같다。

一、공업
二、농업
三、건설
四、화물 운수
五、운수(생산에 복무하는)
六、물자—기술 공급
七、쏘베트 상업 및 수매
八、사회 급양
九、기타 물질 생산 부문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 나라에서는 쏘련에서와 달리 세개의 경제 형태가 존재하므로 말미암아 국민 소득 및 축적의 형성과 그 증대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일층 복잡하다。 그러므로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국민 소득 또는 축적의 형성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사회주의 쎅또르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맑스의 표식에서 M에 해당하는 부문은 사회주의 쎅또르에서는 사회를 위한 생산물이며 이것의 증대는 국민 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로동자 수의 증대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본주의하에서 리윤은 로동자의 불불 로동에 의하여 창조되여 자본가들의 수중에 들어간다。 그러나 생산 수단이 전 인민적 소유로 되여 있는 조건하에서는 순소득은 국가에 귀속되여 전체 근로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리용된다。

국영 기업소에서 생산되고 실현된 수입에서 그 실현된 생산물 생산을 위한 지출을 뺀 차액은 기업소의 순소득을 형성한다。 기업소 순소득에서 기업소의 생산물 원가에 포함되는 사회 보험료、 대부 리자 등을 빼고 남는 것이 기업소의 화폐 축적이다。 화폐 축적과 인민 경제 축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인민 경제 축적은 고정 폰드와 류동 폰드 및 국가 예비의 증대를 표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화폐 축적보다 그 총액에 있어서 적다。 왜 그러냐 하면 화폐 축적으로부터는 인민 경제 축적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과학、 예술、 사회 보장、 국가 관리、 민족 보위 등 전 국가적 수요 충족에도 지출되기 때문이다。

화폐 축적은 전 국가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국가 예산에 납부되는 거래세와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소 리윤의 두 부분으로 나누인다。 따라서 거래세는 국가의 순수입이며 리윤은 국영 기업소의 순수입이다。 그리고 기업소의 순수입인 리윤 중에서 지배인 기금、 기본 건설 및 류동 자금 증가에 충당하고 남는 부분은 국가 예산에 회수되는 바 이것이 곧 리익 공제금이다。

국민 소득은 축적 폰드와 소비 폰드로 나누인다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은 바 축적 폰드 형성에 있어서 거래세、 가격 차금(거래세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함)、 리익 공제금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一九五五년에 거래세는 一〇、二四〇백만원、 가격 차금 一四、八一五백만원、 리익 공제금 二二、六八三백만원、 계 四七、七五〇백만원이였으며 一九五六년도 국가 예산에서는 거래세 一〇、九八〇백만원、 가격 차금 一二、四八一백만원、 리익 공제금 二二、七五五 백만원、 합계 四六、二三四 백만원을 이루고 있는 데서 용이하게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금액은 대체로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세는 생산물의 원가와는 직접적 관계 없이 일정한 비률로서 국정 가격 속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거래세 총액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현되는 생산물의 수량과 가격의 변동이다。 가격이 불변하는 조건에서는 거래세 총액은 실현되는 생산물의 량의 증가에 따라 증대하며 리윤은 계획 원가에 의하여 설정되며 실제 원가가 계획 원가보다 저하되는 경우에는 기업소는 리윤을 얻게 된다。 그리고 실제 원가가 계획 원가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기업소의 리윤은 축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소는 원가 저하에 대하여 물질적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영 기업소에서의 화폐 축적의 증대는 생산의 증대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및 원가 저하에 의하여 증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영 쎅또르에서의 생산물의 사회적 생산비는 一 생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 二 자기를 위한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가치、 三 사회를 위한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가치로써 구성되여 있는바 제一、 제二의 가치 부분은 생산물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축적은 사회적 생산비 중에서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와 로임을 뺀 나머지 가치 부분이다。 여기서 화폐적 축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원가를 저하시켜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며 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로임 지출에 있어서 랑비가 있어서는 안되며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비 생산적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도 또한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 제도를 엄수하며 그

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는 것이 축적의 증대를 위하여 역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생산물의 원가 저하 및 절약 제도와 독립 채산제의 강화에 대하여 항상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실로 공업 생산물의 원가의 一%의 저하는 년 四억원 이상의 리득을 국가에 주게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의 보고에서 『우리들이 절약할 수 있는 예비들을 옳게 동원한다면 공업 제품의 원가 저하에 의하여서만도 五개년 계획 기간에 四○○억원 내지 五○○억원의 축적을 국가에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교시하였다。

사회주의 경제 쎅또르에 속하는 협동 조합들에서는 조성된 순소득의 일부는 소득세 또는 농업 현물세 형태로서 국가 예산에 납부되고 일부는 공동 기금에, 일부는 협동 조합원들에게 분배된다。

소상품 생산자에 의하여 조성된 잉여 생산물의 일부는 세금 형태로서 국가 예산에 수납되며 기업가 상인들의 리윤의 일부도 세금 형태로서 국가 예산에 납부된다。

국민 소득은 계획적으로 소비 폰드와 축적 폰드로 나누이며 이에 의하여 상기한 여러 형태로서 그 일부가 국가 예산에 수납되며 집중된다。

공화국 정부는 이 밖에도 국가 보험, 은행 저금 또는 공채 발행에 의하여서도 주민들의 여유 자금의 일부를 동원하여 전 국가적 축적 폰드에 집중시킴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기업, 협동 조합 기업, 소상품 생산자 및 자본가들에 의하여 물질 생산 령역에서 조성된 국민 소득의 일부는 이러 저러한 형태와 수단을 통하여 국가 수중에 집중되여 전 국가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동원 리용된다。

이렇게 국가 수중에 집중된 자금은 생산적 및 비생산적 부면에 분배되는 바 이것이 비생산적 부면에 적게 분배되면 그만큼 확대 재생산을 위한 인민 경제에의 투자는 더 증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된 국민 소득중에서 비생산적 소비를 극력 축감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며 이에는 관리 기구의 간소화와 정원의 축소 및 비생산적 지출의 축감, 기타 일체 랑비 현상의 방지들이 속한다。

그러므로 국민 소득—축적의 증대를 위한 투쟁과 경제 절약을 위한 투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는 전체 인민을 이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 전체 인민들은 반드시 이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둘 것이며 五개년 계획은 성과적으로 완수 및 초과 완수되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할 바 없다。

중국 인민의 생활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혁혁한 일대 사변

에프·알렉쎄예브
웨·트리포노브

중국 공산당 제八차 전국 대표 대회가 一九五六년 九월 一五일부터 二七일까지에 북경에서 진행되였다。 이 대회는 六억 중국 인민의 생활에서 혁혁한 일대 사변으로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표식으로 된다。 대회 사업은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진행되였으며 각국 공산당 또는 로동당들의 형제적 단합과 통일의 정신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대회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중국 공산당 제七차 전국 대표 대회(一九四五년 四월) 이래 축적한 아주 풍부한 경험을 총화하고 금후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강령을 확정하였다。 모 택동 동지는, 대회 개회사에서 대회의 과업은 『……제七차 전국 대표 대회 이래 얻은 경험을 총화하고 전 당을 단결하며 국내외의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하여 위대한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대회는 새 당 규약을 채택하고 인민 경제 발전 제二차 五개년 계획(一九五八—一九六二)에 관한 건의를 확인하였다。

제八차 대표 대회의 제 결정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리론과 실천의 창조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의거하고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진영 제국의 력사적 경험을 리용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문제의 해결을 창조적으로 취급하며 중국 현실에 가장 적합한 사회주의 건설 형식과 방법들을 발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七차 전국 대표 대회 이래 一一년간

에 중국 인민의 생활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一九四九년에 중국의 인민 대중은 공산당의 령도하에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의 반동 통치를 전복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로써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는 기본상 완수되고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가 개시되였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중국 사회의 이행이 시작되였다。 一九五五년 후반기와 一九五六년 전반기에 농촌 경리、 수공업、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에서 결정적 승리가 획득되였다。

이 두 승리의 결과에 나라는 완전한 개조를 보았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향하여 가는、 완전 독립과 자주권을 가진、 통일된 대 강국으로 되였다。

중국에서의 과도기는 두 개의 기본 특수성으로써 특징지어진다。 첫째로、 이전에 공업 방면에서 락후하였던 농업 국가인 중국을 선진적 공업국으로 전변시키며 사회주의의 공업을、 우선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시일이 요구될 것이다。

둘째로、 중국에서는 농민과 도시 소부르죠아지 뿐만 아니라 민족 부르죠아지도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 되여 있었다。 이 사정은 농업과 수공업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공업에서도 구경제의 개조를 용이케 한다。

이러한 구체적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매우 긴 시일에 걸쳐 점차로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현하며 농업、 수공업 및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차로 실시할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을 수립하였다。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은 우리의 일체 사업을 비쳐 주는 등대이다。 사업이 이 로선을 떠나서 진행될 때에는 불가피적으로 「우경」 또는 「좌경」적 오유를 범하게 된다』고 류소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 보고에서 강조하였다。 이 두 편향은 맑스—레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은 그것을 비난、 배격하였다。

처음에는 과도기의 기본 과업을 완수하려면 대략 三차에 걸친 五개년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였었다。 인민 경제 발전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실현 경험은 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서는 실지로 一五년 내지 그 이상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기본 적으로는 이미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서 수행되였으며 제二차 五개년 계획에서는 개별적 지역을 제외하고 완전히 종결될 것이다。

* * *

대표 대회의 사업에서는 사회주의적 개조 문제에 중요한 자리가 부여되여 있었다。 국가 자본주의의 단계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민족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점차 평화적으로 개조하는 방도、 방법 및 형식을 규정하는 데서 중국 공산당원들이 얻은 경험은 중국 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명제들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하나의 모범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개조는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의 사회주의적 재건이다。 제八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는 중국 농촌에서의 협동화 운동이 면밀하게 분석되고 금후 과업이 수립되였다。

一九五六년 七월 현재로 一억 二천만 농호중에서 一억 一천만 농호、 즉 九一・七%가 농업 생산 합작사에 가입하였으며 그 중 三천 五백만호는 초급 합작사에 가입하였고 七천 五백만호、 즉 대다수는 고급 합작사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토지 개혁이 수행된 후 약 四년 동안에 농업은 기본적으로 협동화되였다。 一九五六년 말과 명년 봄에는 대다수의 지방들에서 고급 합작사의 창설이 완수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 약 一백만개의 고급 및 초급 농업 생산 합작사를 조직케 한 이러한 사회주의적 개편은 오직 사회주의적 경제 부문의 강대한 발전과 토지 개혁의 완전한 수행의 토대 우에서만 가능하게 되였다。

이 개혁 행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점차적으로 전진하는 방법을、 즉 농업 생산 호상 협조반의 조직으로부터 반(半)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초급 합작사의 조직을 거쳐 사회주의적 고급 합작사로 넘어가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중국의 특수한 조건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민에게 각종 리득을 주며 그들로 하여금 점차 집단적 생산 방식에 익숙케 하며 토지 및 기타 기본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애착심을 매우 헐하게 또 성과적으로 단념케 하고 집단적 소유에로 넘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농업의 협동화의 결과에 농촌에서는 착취 제도와 또한 착취를 낳게 하는 사회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청산되였다。 五억만 중국 농민들 앞에는 행복스럽고 유족한 생활로 가는 길이 열리였다。

농촌에서의 공산당의 계급 정책은 빈농과 토지 개혁 이전에 빈농이였던 하층 중농에게 합작사에 대한 지도에서 우선적 지위를 보장해 줌과 아울러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다。 중국 공산당 제八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보고는 지적하기를 『중농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리는 반드시 협동화 운동 과정에서 자원 및 호상 리익의 정책을 견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 바 중농에 대하여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라고 하였다。 공산당이 중농과의 동맹의 방침

을 확고히 또 부단히 실시하고 중농 자신들이 협동적 생산의 우월성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광범한 중농 대중은 협동화 운동의 앙양기에 자기들의 동요를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합작사에 가입하게 되였다。

이전 지주와 부농에 대해서는 공산당은 구체적 정형과 사회적 지위상의 차이를 타산하여 각각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착취 계급에 속하는 이들을 재교양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합작사내에서 일할 가능성이 제공되고 있으며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가 지불되고 있다。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제반 성과와 고급 합작사의 비중의 특히 급격한 장성은 농민 대중의 로력 열성을 고무하여 준다。 농업의 협동화는 농촌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켰다。 인민 국가의 확고 부동한 기초인 로농 동맹은 가일층 공고히 되였다。 오늘날 중국의 로농 동맹은 사회주의 경제에 립각하고 있는 바 이것은 이 동맹이 더욱 더 공고히 되였으며 농민 자신들이、 빈농과 중농들이 더욱 더 많이 단합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회 대표들의 보고와 연설들에는 수공업과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한 풍부한 자료가 포함되여 있다。 개인 수공업자들의 대다수는 형태상 각이한 생산 합작사에 이미 가입하였다。 영업 합작사、 생산 소조、 공급 판매 생산 합작사 등에 가입한 수공업자들의 수효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전체 일꾼의 九〇%를 이미 이루고 있다。 각종 영업에 종사하는 개인 로력자들의 협동화도 기본적으로 실현되였다。

그러나 대표 대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급격히 앙양하는 시기에 지도에서의 조직 사업은 언제나 개조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간 것은 아니였다。 대표 대회에서 한 연설 가운데서 진 운동지는 말하기를 『수공업의 합작화 행정에 있어서 수공업을 너무 많이 합병하고 통일적으로 손익을 계산하였는 바 이는 수공업의 경영에 불리하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수공업 제품은 단독 경영 시기에 비하여 그 질이 저하되고 품종이 감소되였다。 봉사 부문의 직업에 종사하는 일부 수공업자들의 합병이 주민에 대해서나 수공업자 자신에 대해서나 큰 불편을 가져 오게 한 경우들도 있었다。

대표 대회는 일부 생산 부문의 수공업에서는 합병을 실시할 수 있으나 압도적 다수의 봉사 부문에서와 대부분의 생산 부문에서는 합병을 실시하지 말 것을 지적하였다。 신중치 못한 합병과 손익에 대한 공동 책임제의 일률적 실시는 같은 형의 물품 생산과 봉사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함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표 대회는 일부 대합작사들을 소합작사로 전변시키

며 손익에 대한 전 합작사의 공동 책임으로부터 개개 합작사 소조 또는 개개 합작사 성원의 개별적 책임에로 이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대회는 앞으로 수공업과 기타 개인 경리를 개조할 때는 매개 부문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각이한 방식들을 적용하며 각이한 합작사들의 발전 행정을 통하여 구체적 문제들을 각각 다르게 해결할 것을 교시하였다。 『여기에서 구체적 정형을 고려함이 없이 천편일률적인 방식들을 적용한다면 오유일 것이다』라고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보고에는 언급되여 있다。 일부의 협동 단체들은 적절한 조건이 조성될 때에는 국영 기업으로 발전하거나 또는 국영 기업에 편입될 것이며 일부 협동 단체는 생산 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제를 오래 동안 보존할 것이며 또 다른 일부 협동 단체들은 사회주의 기업의 관리하에서 합작사 성원이 자기 활동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는 경영 방식을 보존할 것이다。 가장 주요한 것은 수공업자들의 이러 저러한 합작 방식에 따라 생산과 경영에 있어서 이전의 개인 경리로부터 물려받은 우수한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협동화가 된 후 수공업 생산품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높아지도록 또 그 품종이 축소되지 않고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자본가들에 속한 모든 상공 기업들의 공사 합영 기업에로의 전면적인 업종별 개조가 이미 기본적으로 실현되였다。

사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경험을 총화하면서 대표 대회는 민족 부르죠아지에 대한 당의 정책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쟁을 통한 단결의 정책이라고 교시하였다。 이것은 로동 계급이 중국 혁명 발전의 특수한 구체적 조건에서 농민과의 굳은 단결에 근거하여 계속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정치 동맹을 견지하고 경제에서는 각종 형태의 국가 자본주의를 통하여 사적 소유제를 공사 합영의 소유제로 점차 개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그 성격으로 보아 격렬한 계급 투쟁이다。 국가가 실시하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제한은 항상 자본가들의 협애한 계급적 리익과 충돌되는 것이다。 『제한을 지지하는 것과 제한을 반대하는 것 간의 투쟁은 최근 수년 우리 나라 내부의 계급 투쟁의 주요 형태였는 바 그것은 우리 나라의 주요한 계급적 모순——로동 계급과 부르죠아지간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보고에는 언급되여 있다。 一九五〇년 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하여 투기 활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였다。 一九五二년에는 뢰물、 탈세、 국가 자재 절취、 정부 주문의 불성실한 리행、 국가 경제 정보

절취 등을 반대하는 『五반』 운동이 전개되였다。 사회주의적 개조 행정에서 당은 『끝까지 비법 행위를 견지하는 소수의 부르죠아 분자들을 인민 대중과 부르죠아지 자체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며 이리함으로써 국가 법령을 준수하려는 대다수의 부르죠아 분자들을 단결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여진다。 즉 첫 단계는 자본주의 쩍또르를 국가 자본주의 쩍또르로 전변시키는 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국가 자본주의 쩍또르를 사회주의 쩍또르로 전변시키는 단계이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각 부문 기업의 공사 합영——이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국가 자본주의의 최고 형태이다——은 자본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도상에서 결정적 일보로 된다。 사회주의적 공업 부문이 강화、장성하는 조건하에서 사자본주의 기업을 국가 자본주의 기업으로 개조하는 중국의 독특한 방법은 도시에서의 계급 투쟁을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가장 유리한 새 형태로 넘어 가게 하며 본질상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 건설을 용이케 한다。 부르죠아지의 사적 소유로 되여 있던 생산 수단의 국유화에 있어서는 점차적 속매의 정책이 실시되였다。 이에 있어서 사적 상공업을 업종별로 공사 합영으로 개조하기 전에는 속매는 리윤을 분배하는 제도를 통하여 실시되였으나 업종별 개조가 실시된 후의 속매는 고정 리자를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주의적、사회적 소유로 전변시키는 지극히 복잡하고 곤난한 력사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미 완수되였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투쟁에서 『누가 누구를』하는 문제는 이미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해결되였다。

국가 경제 기관이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실시하여 온 일부 대책의 필요성은 사회주의적 개조의 결정적 승리와 관련하여 없어지게 되였다。 대표 대회에서는 국영 상업 기관들이 원료 가공 및 제품 생산의 주문을 자본주의 기업에 활당하며 또 제품의 일수(一手)수매 및 판매에 종사하며 이로 말미암아 일부 공장들로 하여금 이전에 자기가 상품을 판매하던 때보다 제품의 질에 대하여 덜 배려케 한 제도를 변경시킬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대표 대회는 개인 상인들에 의한 상품의 수매、판매 및 수송을 제한하는 시장 통제 방법을 폐지하며 또 소수 도매 회사는 제품 생산의 주문을 받으나 하급 상점들이 구체적 수요를 타산하여 직접 공장에서 상품을 획득하는 것을 불가능케 하는、상품을 우로부터 밑으로 내려먹이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공업 기업과 상업 기업간의 매매 관계를 변경하며 상업 기관들이 원료 가공 및 제품 생산의 주문을 기업들 사이에 활당할 대신

에 기업소 자신들이 원료를 수매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이 제의되였다。공급을 보장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 계획과 인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또는 보통 규격품(례하면 방사、방직물、석탄、사탕)에 대해서는 국영 상업 기관들은 앞으로도 그러한 상품들의 일수 수매 및 판매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품종이 매우 많은 일용품에 대해서는 일수 수매 및 판매를 점차 축소하고 선택 수매제로 넘어갈 것이다。이러한 선택 수매제하에서는 기업소들은 자기 제품의 판매에 배려를 돌리면서 그 질을 높일 것이고 상점들은 소비자의 다방면에 걸친 수요를 충족시키며 상품의 품종을 축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미 결정적 승리를 획득하였다。 공업、농업 및 상업에서의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나라의 인민 경제에서 기본 형태로 되였다。 중국 공산당 제八차 전국 대표 대회의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구중국 사회에서의 주요한 모순、즉 중국 인민과 제국주의、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의 통치 간의 모순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이러한 모순이 해결된 이후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대외적으로 제국주의와의 모순이 있는 이외에 국내적으로 주요한 모순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모순인 바 이는 사회주의 혁명이 해결하여야 할 모순이다。 농업、수공업 및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한 우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곧 자본주의적 소유제를 변혁하며、자본주의를 산생시키는 소사유제를 변혁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미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는바 이는 곧 우리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모순이 이미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으며 수천년 이래의 계급적 착취 제도의 력사가 이미 기본적으로 종결되고 사회주의적 사회 제도가 수립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 *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과 제二차 五개년 계획에 대한 열성적 준비는 중국 공산당 제八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진술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중국 공산당과 전체 중국 인민의 중심적 과업이다。

제八차 대표 대회는 지난 년간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의 일반화와 앞날의 기본 과업 수립에 많은 주목을 돌렸다。 정치 보고에 관한 중국 공산당 제八차 전국 대표 대회의 결정서와 주 은래 동지의 보고에 따라 채택된 인민 경제 발전 제二차 五개년 계획(一九五八—一九六二)에 관한 건의에서는 경제 정책의 극히 중요한 원칙 문제들이 상세하게 구명되고 리론적으로 론증

되여 있다。 대표 대회에서는 중공업과 경공업의 호상 관계 문제、 공업 배치 문제、 가격 정책 문제、 인민 경제 계획화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중국의 전체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에 따라 중공업 기업소들의 장성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중국에는 중공업의 발전 속도를 늦추자는 견해를 표명한 동지들이 있었다。 당은 이러한 옳지 못한 견해를 단연코 배격하였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 있다: 『……만약 우리들이 자기의 필요한 기계 제조 공업、 야금 공업 및 기타 중공업 부문들을 급속히 건설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무엇으로써 경공업、 운수업、 건축업과 농업을 장비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필요한 기계를、 강재 및 쎄멘트를 가지지 못할 것이며 필요한 전력과 연료를 가지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인민 경제는 장기간 락후한 처지에 있게 될 것이다』。

또 일면적으로 중공업에만 치우치고 경공업과 기타 인민 경제 부문의 발전 속도를 늦추자고 한 그러한 동무들도 있었다。 이러한 견해도 역시 근본적으로 옳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첫째로 압도적 부분의 경공업 제품은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의 충족에 돌려지며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부족과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발전상 차이는 가격 및 시장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둘째로 경공업 기업들은 소액의 투자를 요하며 그 건설도 복잡하지 않으며 자금의 회전이 빠르며 따라서 경공업에서 나오는 수입은 국가 축적의 주요 원천의 하나로서 그 일부는 중공업의 발전에도 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교시하였다。 정치 보고에 관한 제八차 대표 대회의 결정서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당의 로선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 있다。 즉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여 야금 공업、 기계 제작 공업、 전력 공업、 석탄 공업、 석유 공업、 화학 공업 및 건재 공업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며 우리 나라 중공업중에서 현재 아직 없거나 또는 약하게 발전되여 있으나 지극히 긴급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부문들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며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 보고에 관한 대표 대회의 결정서에서는 또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한 기본방침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과 모든 분야에서 건설을 똑같은 속도로、 중요한 것과 제二차적인 것、 긴급한 것과 그리 긴급치 않는 것간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행하자는 요구에서 표현되는 편향이 옳지 않다는 것도 언급되여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함께 원료 및 재정상의 가능성과 시장의 수요로부터 출발하여 경

공업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대표 대회는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공업의 발전에만 일면적인 주의를 돌리고 경공업의 발전을 경시하는 편향도 비판을 당하였는 바 이러한 옳지 못한 경향은 반대되는 결과를、 즉 중공업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을 뿐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 보고 중 생산력의 합리적 배치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장을 원료 원천지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공업에서의 중점은 중국 내부 지방으로 점차 이전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연해 지방 공업의 완전하고 합리적인 리용은 재로운 공업 기지 건설을 추진시키는 이외에 인민의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며 국가를 위하여 많은 자재를 절약 및 축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민 경제의 계획화 문제를 토의하면서 대표 대회는 전면적 계획화에 있어서 각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인민 경제 계획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에서의 지표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경제 쎅또르를 위하여 제정된 숫자들은 개산의 성격을 현저히 띠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은 어느 경우에는 직접적 계획화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여 있고 다른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 계획화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여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기준 자료로서 사용되여 있고 다른 어떤 경우에는 개략적 숫자가 기준 자료로서 사용되여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생산과 건설과 비생산 분야에서의 기본 지표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경우에는 이 지표들은 국가 계획에 제정되여 있지 않다。 개별적 종목의 일용품、 수공업품、 지방 산업 제품 생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계획 기관들은 그것들을 총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 상품들은 원료 공급과 판매 시장의 형편에 따라 생산 단위에 의하여 계획적 생산의 한 개 보충으로서 생산될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국가는 공급과 판매를 조정하거나 또는 다만 생산 목표만을 준다。 『만일 이 부분의 생산품을 무리하게 국가 계획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생산 목표를 정식 계획 지표로 삼아 가지고 이러한 생산품의 생산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한다면 그것은 경제 발전의 요구와 인민 생활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대표 대회의 결정서에는 지적되여 있다。

대표 대회에서는 가격 정책과 같은 중요한、 특히 중국에서 이미 사회주의 상업이 거의 유일한 상업 형태로 된 지금에 중요한 문제도 구명되였다。 생산에 있어서 가격 정책의 추동적 의의는 거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객관적 현실에 최대한으로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지극히 중요한 것은 농업의 발전이다。 그것은 인민의 생활 수준에와

경공업의 창성 속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공업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논다. 중국에서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주요 방법은 농촌에서의 생산 협동화가 가져다 준 우월성의 최대한의 리용, 토지 개량, 비료의 광범한 사용, 작물 종자의 개량, 신형 농기계의 도입, 二모작물의 수확고 제고, 기경 방법의 개량, 자연 재해의 방지 및 농작물의 병충 구제이다. 대표 대회는 농촌의 공산당원들에게 농업 생산 증대의 거대한 잠재적 제 가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이러한 방책들을 실현하는 데로 농민 대중을 동원할 것을 호소하였다.

제八차 대표 대회가 채택한 인민 경제 발전 제二차 五개년 계획(一九五八—一九六二)에 관한 건의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위대한 강령이다. 제二차 五개년 계획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이 일층 더 급속히 실현될 것이며 사회주의적 개조는 완전히 수행될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극히 중요한 기계들과 시설, 원료와 자재들을 생산하며 확대 재생산과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재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전일적 공업 체계를 수립하는 길을 향하여 훨씬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표 대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二차 五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앞으로도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재건에 중점을 두고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공고한 기초를 축성하며 사회주의적 개조를 철저히 완수하며 국가의 방어력을 강화하며 인민 생활의 물질, 문화 수준의 가일층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이다.

제二차 五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一九六二년에는 공업 총생산고는 계획에 의하여 예견된 一九五七년도 수준에 비하여 약 二배로 증가할 것이며 농업 총생산고는 대략 三五%가 증가할 것이다. 一九六二년에 중공업은 약 一、○五○—一、二○○만톤의 강철을 생산할 것이며 석탄 채굴은 一억九、○○○—二억一、○○○만톤, 석유는 五○○—六○○만톤, 전력 생산은 四○○—四三○억 킬로와트시에 달할 것이다. 제二차 五개년 계획의 완수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과도기의 기본 과업의 최종적 해결을 더욱 더 가깝게 하고 선진적 사회 제도와 락후한 생산력 간의 아직 존재하는 모순을 청산케 할 것이다.

* * *

대표 대회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위한 투쟁에서 축적한 경험을 일반화하였다. 대표들의 연설은 중국 인민 대중의 창발성에 의하여 창건된 국가를 가일층 완성할 데 대한 배려로 일관되여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 있다: 『우리 나라 혁명은 비록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 공산당원들은 자기가 한 사업을 위대한 一○월 혁명의 계속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독재는 곧 반동 계급, 반동파 및 사회주의 혁명을 반대하는 착취자들에 대하여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인민 대중이 실시하는 독재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소수인의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것이며 로동자, 농민, 기타 일체의 근로 인민, 그리고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의 것이다』.

쏘련, 중국 및 기타 사회주의 제 국가의 경험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공산당 측의 령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불패의 진리를 확증하여 준다.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는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선봉대——공산당 측의 령도에 의하여 전취된 것이다. 이러한 령도는 사회주의 원칙 우에서의 사회의 개조를 보장한다. 왜냐 하면 로동 계급의 령도가 없다면 부르죠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농민들 중 가장 혁명적인 극빈농조차 진정으로 사회주의적인 길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민족 부르죠아지가, 대표 대회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개조에 참가하고 있다면 이는 곧 중국 로동 계급과 그의 공산당의 옳은 령도와 위대한 힘을 립증하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절대적 필요성을 립증하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모든 주민층, 모든 민주 정당 및 당파들은 중국 공산당 측의 령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 점을 확신케 한 것도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매판 부르죠아지의 련합 세력과의 장구한 투쟁 경험이며 행복스럽고 번영하는 중국의 건설에 있어서의 당의 성과적인 사업이다.

중국의 복잡하고 특수한 제 조건에서 오직 공산당만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국가 발전의 총로선을 리론적으로 수립하고 실천적으로 성과있게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산당과 모 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그 중앙 위원회는 중국의 제 조건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이 사회주의 건설 로선으로부터 리탈하려는 온갖 시도에 타격을 주었다. 당의 총로선으로부터의 『우경적』 편향은 기본적으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만에 만족하며 혁명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며 혁명이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에로 발전 장성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를 정당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당의 력량을 믿지 않으며 사회주의의 길로 향하여 가는 농민들의 운동에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체 인민을 령도할 수 있는 당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귀착되였다는 것이 대표 대회에서 지적되였다.

또한 『좌경적』 동요는 주로 『하루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수탈의 방법으로 민족 부르죠아지를 청산

할 것을 요구하는 데 있었다. 『좌경적』 동요는 또한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려는 데서와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와 중국의 조건에서는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의 혁명의 과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서도 표현되였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파탄시킬 수 있었던 이러한 편향들의 하나와도 타협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로동 계급과 광범한 주민 대중과의 동맹을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변함 없이 배려하고 있다. 왜냐 하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로동 계급과 그의 당 측의 확고한 령도 없이는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범한 대중 측의 적극적 지지 없이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원들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근로자들의 전위인 프로레타리아트와 수다한 비프로레타리아 근로자층(소부르죠아지, 소경영자, 농민 및 인테리겐챠 등)과의, 혹은 그들의 다수와의 계급적 동맹 즉…사회주의의 종국적 확립과 공고화를 목적하는 계급적 동맹의 특수한 형태인 것이다』(레닌 전집 二九권 三五〇—三五一페지)라고 한 레닌의 유명한 교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계급적 동맹의 한계, 넓이, 그 성원으로의 이러 저러한 사회층 또는 그루빠의 가입은 국내에 조성된 정세에 의하여 규정된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주요하고 유리한 조건의 하나는 대표 대회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하에 통일 전선에 단합되여 있는 데 있다. 인민 민주주의 통일 전선의 기초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공고한 동맹이다.

중국에서의 혁명 운동의 전체 경험은 로농 동맹 문제의 옳은 해결이 중국 혁명의 승리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승리의 가장 믿음직한 담보임을 립증하여 준다. 자기의 맑스—레닌주의적 중앙 위원회에 의하여 지도되는 중국 공산당원들은 봉건주의 및 제국주의 세력의 통치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로농 동맹을 육성하여 왔으며 토지 개혁과 농업 협동화의 행정에서 이 동맹을 공고히 하여 왔다.

인민 민주주의 통일 전선에는 수공업자, 상인 및 기타 최근에 협동 단체에 망라된 개인 로력자들도 가입하고 있다.

통일 전선에는 민족 부르죠아지, 상층 소부르죠아지, 인테리겐챠, 민주 정당들, 애국적 사상을 가진 무소속 인사들도 가입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체계에서와 인민 민주주의 통일 전선에서 각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족 부르죠아지이다. 중국에서 로동 계급과 부르죠아지와의 정치적 동맹은 일찌가 혁명 전쟁 시기에 형성되였다. 당시에 민족 부르

죠아지가 이 동맹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부르죠아지의 리익이 외래 자본에 의하여 침해를 당하였고 혁명은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민족 부르죠아지는 중국 사회의 가장 수효가 적은 계급이였고 게다가 정치적 및 경제적 방면에서 미약하였다는 사실이다. 중국 혁명의 승리 이후 민족 부르죠아지는 인민 정권의 공고성을 확신하며, 인민 대중에게 반항하려고 한 로씨야 부르죠아지의 쓰라린 경험을 상기하고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실례들을 봄으로써 충돌로 나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인민 국가의 통제하에서 일하며 사회주의적 개조를 접수할 것을 택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이미 혁명 승리전에 발생한 로동 계급과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동맹은 공산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로농 동맹의 기초 우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도 보존되고 공고히 되였다.

제八차 대표 대회는 인민 민주주의 통일 전선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사업을 강화하며 민족 부르죠아지의 생활을 개선하여 민족 부르죠아지의 대다수 인사들이 사회주의 사상의 정신으로 개조됨으로써 점차 참다운 근로자로 전변되며 그들의 유익한 지식과 생산 및 경제 활동 분야에서의 경험이 조국의 재산으로 되게끔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인민의 지도적 력량인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통일 전선을 확대할 데 대해서, 사회주의를 지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합할 데 대해서 배려하면서 공산당과 모든 국내 민주 정당의 장구한 공존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당으로 하여금 첫째로 민주 정당들을 통하여 민족 부르죠아지, 상층 소부르죠아지, 부르죠아 인테리겐챠 출신의 인사들과의 련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들이 재교양되여 사회주의 사회의 참다운 근로자로 되는 것을 추진시킬 것이다. 둘째로 민주 정당과 공산당과의 장구한 공존은 호상 감독에 있어서 역할을 놀 것이며 오유와 결함을 제때에 적발하며 그를 제때에 제거할수 있게 할 것이며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규모와 함께 인민 민주주의 통일 전선은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모든 열성 분자들이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 제각기 공헌할 수 있게끔 그들을 발동시키는 데 있다』고 류소기 동지는 말하였다. 광범한 통일 전선과 또한 사회주의를 지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의 단합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손실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그의 가일층의 공고화와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중국의 모범은 확신성 있게 립증하여 준다.

중국에는 소수 민족에 속하는 三천五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혁명 승리 전에는 중국 근로 인민의 생활은 비참하였었다。 그러나 소수 민족의 운명은 이와 못지 않게 더 비참하였었다。 구중국에서 이들은 가장 가난하고 무권리하고 압박 받는 사람들이였다。 지금에 와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주위에 결속된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들의 한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제八차 대표 대회의 대표들은 민족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의 당과 정부의 성과에 대하여 당당한 긍지감을 가지고 말들 하였다。 민족 분야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정책 즉 민족구 자치제의 실현은 맑스—레닌주의 제 원칙의 기초 우에서 국가 발전의 력사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수립된 것이다。 민족구 자치제는 소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거주 구역에 대한 자기의 통치권을 실행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가장 급속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조밀하게 생활하는 중국의 모든 민족들은 구역 자치에 대한 권리、자기들의 내부 문제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당 및 국가 기관들은 소수 민족들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도와 주고 있다。 대표 대회에서 많은 주의가 민족 간부 육성 사업에 돌려졌다。 대표들은 소수 민족 구역들에서 한족 출신 일군들이 대한족 배타주의의 그릇된 견해를 극복하고 민족 간부 육성에 배려를 돌리며 그들을 신임하며 대담하게 그들을 독자적 사업에 등용하며 소수 민족들이 자기 생활의 주인이 되도록 꾸준히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건설 계단에로의 중국의 돌입은 공산당과 국가 기관들 앞에 국내 생활의 가일층의 민주화와 반관료주의 투쟁의 전개를 선차적 임무로 제기하였다。 중국 공산당원들은 대중으로부터 리탈하며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며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리지 않으려 하며 밤낮 회의만 열고 와작고는 관료주의의 일체 형식과 발현들을 단호히 청산할 것을 선포하였다。 대표 대회는 첫째로 국가 기관들과 우선 국영 시설들이 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둘째로 지방 국가 기관들에 대한 각급 인민 대표 회의의 통제를 강화하며、세째로 각급 국가 기관 내에서 우로부터 밑에로의 또 밑으로부터 우에로의 통제를 강화하며、네째로 국가 기관 사업에 대한 인민과 하급 일군들의 통제를 강화하며 인민 대중이 이 기관들의 사업에 존재하는 결함을 적발하는 것을 장려 및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첫날부터 반혁명 잔존세력은 자기 멸망의 시간을 연장하여 잃은 것을 도로 찾으려고 청소한 국가를 발악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들은 비밀 군대、정치 폭력단을 조직하고 소동을 선동하고 간부들과 열성자들을 살해하였다。 대표 대회에서는 반혁명과의 七년간에 걸친 가렬한 투쟁을 총화하

였다。이 투쟁 과정에서 공산당과 정부는 그 규모로 보아 광범한 반혁명 진압 二대 운동을 진행하고(一九五一년과 一九五五년에) 그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하였다。 공산당은 이 투쟁의 법칙과 특성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도 치렬하고 복잡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또 엄중한 과오 없이 지도할 수 있었다。 휴식기에 당은 방심하지 않았고 경각성을 잃지 않았음으로 적은 당을 혼란에 빠뜨릴 수 없었다。 또한 반혁명 세력의 가장 치렬한 공격시에 중국 공산당은 제때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투쟁에로 궐기시켰으며 또 적의 력량을 과대 평가하여 적의 앞잡이들이 도처에 잠입하여 개미처럼 각처에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 자들의 생각을 시정하여 주었다。 공산당은 소수는 처벌하고 다수는 재교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결단성과 조심성을、처벌과 관대를 능숙하게 결합시키고 있다。 공산당이 반혁명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었던 리유는 그가 중국의 수백만 인민 대중을 전투에 궐기시켰으며 그들을 옳게 지도하여 그들의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시켜 그들이 적을 식별할 수 있게 도와 준 데도 있다。

지금에 와서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가장 치렬한 계급 투쟁의 시기는 이미 과거의 것으로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반혁명 잔존 분자들의 음모가 중지되였고 그들과 계속 투쟁할 아무런 필요성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八차 대표 대회는 앞으로도 반혁명 분자들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보고에서 제기된 새 방침과 정책을 지침으로 삼고 반혁명 잔당과의 결정적 투쟁을 계속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인민 혁명의 승리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을 제마음대로 략탈하던 시대는 이미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날 통일되고 독립된 중국은 세계 대강국으로서 국제 무대에 나서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나날히 공고히 되고 있다。 인민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또는 적어도 그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제국주의 반동의 시도는 모두 실패를 당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이래 미제국주의 충이 실시하고 있는 소위『세 전선』—조선、월남 및 대만에서의 위협과 침략의 정책은 파탄으로 끝났다。 중국을 경제 봉쇄하려는 시도는 파탄되고 말았다。 미 독점가들은 중국의 성과적 경제 발전을 방해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정책은 그들 자신이 자국 공업품을 광활한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없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따름이다。 인민 중국을 고립시키며 그가 유·엔에서 합법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방해할 것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모든 자들도 역시 오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문제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확고 부동한 정책은 평화 및 진보를 위한 투쟁이다。 중국 인민은

쏘련 및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영원 불패의 형제적 친선의 공고화를 자기의 선차적 임무로 간주하고 있다。 인민 중국과 쏘련과의 동맹은 전 세계에서 평화의 강력한 성새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의 형제적 원조에 의거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 준비 계단을 경과하면서 기술적 락후로부터 과학과 기술의 최고봉에로의 비약을、혁명적 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벌써 오늘에 와서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는 그 기술적 장비의 수준과 사업 조직으로 보아 구라파 또는 아메리카의 발달한 어느 나라에서도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업 기업들이 조업하고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식민주의의 일체 불행을 겪어 온 중국 인민은 침략당한 모든 피압박 민족과 나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옹호하여 나서고 있다。" 수백만 사람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 조선에서의 전쟁 근원의 청산에서와 월남에서의 평화 회복에서 얼마나 혁혁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알고 있다。 수백만 사람들은 반둥 회의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식민주의와 그 모든 발현들을 배격한 것을 알고 있다。 진의 동지는 대표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아도의 인도 반환 문제에 있어서나 서부 이리안의 인도네시아 반환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애급에 의한 수에즈 운하 회사의 국유화 문제에 있어서나 기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나 중국은 언제나 확고부동한 립장을 취하고 침략당한 피압박 민족과 나라들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제일 먼저 중국과 인도가 제기하였고 오늘날 국제 생활에서 광범한 인정을 받은 그 유명한 五개 원칙에 기초한 평화적 공존 정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 례외 없이 모든 나라들이 이 정책의 기초 우에서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떼여 낼 수 없는 일부분인 대만을 강점한 미국에 대해서까지도 이 정책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를 약화시킬 것을 념원하면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간의 분쟁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표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침략적 립장을 취함으로써 회담을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도 중국 인민이 대만을 해방시키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 인민의 이 꺾을 수 없는 의사를 제八차 당 대표 대회는 잘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우리 정부는 우리의 령토인 대만의 평화적 해방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대만 해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할 준비가 되여 있어야 한다』。

중국 인민은 자기의 모든 승리를 공산당의 령도하에서 전취하였다。 제八차 대표 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위대성을 남김 없이 보여 주었다。 리론과 실천의 문제、중국 공산당의 사업 문제、국내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문제、세계 공산주의 운동 문제、민족 해방 운동 문제、평화 옹호 투쟁 문제 등이 높은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수준에서 제기되고 해명되였다。

중국 공산당과 모 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그 중앙 위원회는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큰 기여를 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힘과 위대성은 중국의 독특한 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능숙하게 적용한 데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중국 혁명의 실천과 통일시킬 줄 안 데 있다。

대표 대회의 결정서에서는 나라의 공업화의 제 요구에 따라 문화、교육 및 보건、특히 과학과 고등 및 중등 교육을 백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여 있다。『과학과 예술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백화 제방、백가 쟁명」의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결정서에는 씌여 있다。

대표 대회는 앞으로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비판을 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은 자기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사상의 발현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표 대회는 지적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의 실제 사업 행정을 통하여 자기의 조직과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다。 제八차 당 대표 대회에서 채택된 새 당 규약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하여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대표 대회에 제의된 규약 초안은 당 단체들에서 광범한 토의가 있은 후 작성된 것이며 제七차 대표 대회 이후 국내 생활에서 발생한 변천들과 중국 공산당이 지배적 당으로 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다。

새 규약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일체 조직 사업의 기초로 되는『군중 로선』이 가일층의 발전을 보았다。『군중 로선』을 요약하여 특징지을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인민 대중은 자체의 힘으로써 자기의 해방을 달성한다。 그런데 당의 임무는 전심 전력 인민에게 복무하는 것이며、인민 대중에 대해서의 당의 지도적 역할은 그들에게 투쟁 방향을 정확히 가르쳐 주며 그들 자신이 사업을 틀어 쥐고 투쟁하여 자기의 행복스러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당은 이러한 과업을 그가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유지하고 대중에 의거하여 대중의 경험과 의견을 일반화하며 이 경험과 의견을 당의 방침으로 되게 하며 그런 후에는 대중 속에서의 선전과 조직 사업을 통하여 당의 방침을 대중 자신의 사상과 의식적 행동으로 되게 하며 또 이 방침을 대중의 활동 행정에서 검열、보충 및 시정할 수 있는 때라야 수행할 수 있다。

대회 대표들의 연설에서는 인민 대중의 경험을 무시하며 문제 해결시에 그들과 상의하는 것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일꾼들은 객관적 현실과 인민 대중의 구체적 실천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옳지 않은 자료로부터、자기의 추측과 욕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강조되였다。 결과에 이러한 일꾼들의 계획들은 인민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을 망쳐 버리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군중 로선』의 계속 부절한 실시를 많은 결함들과、우선 그중에서 주되는 결함인 주관주의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직 『군중 로선』을 실시함으로써만 다시 말하면 대중과 상의하며 그들의 의견을 일반화하며 동시에 대중의 의식을 높이며 그들의 열성을 강화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함으로써만 새 사회 건설의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유를 제때에 적발 및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조직 원칙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토대 우에서의 중앙 집권제와 중앙 집권제에 의하여 향도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중국 공산당 규약에는 기입되여 있다。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레닌적 조직 원칙은 당내 민주주의를 백방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공산당원들의 적극성과 창조적 창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등 소평 동지의 보고『당 규약 개정에 관하여』에서와 규약에서는 당내에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를 준수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의 집체적 지도의 제一차적 중요성이 강조되여 있다。 등 소평 동지는 말하기를 『쏘련 공산당 二〇차 대회는 집체적 지도 원칙의 부단한 준수와 개인 숭배를 반대하는 투쟁이 가지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정당하게 천명하였다。 이 천명은 쏘련 공산당 뿐만 아니라 기타 세계 각국 공산당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매개 당 단체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로부터 출발하여 집체적 지도와 개인 책임제와의 결합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어떤 당원이나 당 단체를 막론하고 모두 우로부터 밑으로 또 밑으로부터 우에로 실시되는 당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집체적 지도의 조직 형태는 각급 당 기관에서 조직된 당 위원회 체계이다。

중국 공산당의 새 규약에 의하면 당내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의 매기 전권 기한은 규약에 의하여 五년으로 규정되여 있고 성 당 대표 대회의 전권 기한은 三년으로、현 당 대표 대회의 전권 기한은 二년으로 규정되여 있다。 상기 각급 대표 대회의 회의는 년 一회 소집된다。

중국 공산당 제八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비준된 규약에 서술된 강령의 기본 규정의 일부는 당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를 취급하고 있다。 공산당——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 형태는 자기 대렬의 통일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당의 단결과 통일은 곧 당의 생명과 힘이다。 언제나 당의 단결을 보위하며 그의 통일을 공고히 하는 것은 매개 당원의 신성한 임무이다』라고 규약에는 씌여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강대한 한 부대이다。 제八차 대표 대회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형제적 공산당과 로동당들 속에서 얼마나 높은 위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五〇명 이상의 공산당 또는 로동당 대표들의 연설과 대표 대회에 보내 온 축하들은 중국 인민의 창조력에 대한、그리고 사회주의적 대 공업 중국의 건설을 보장할 수 있는 공산당의 능력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일관되여 있다。

중국 공산당 제八차 전국 대표 대회에 보낸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축하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당신들의 대회는 당신들의 당과 중국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크고 복잡한 과업들을 토의한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중국 인민이 자기 공산당의 령도하에 이 과업을 영예롭게 실행하며 모든 애로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혁한 새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

전투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진행된 제八차 대표 대회는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현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 이후 목이 터지도록 공산당들의 대렬 내의 『혼란』 운운을 웨치고 각국 공산주의자들을 단결시키고 있는 우의와 련대성의 뉴대를 끊으려고 한 자들은 심한 오산을 하였다。 중국 공산당원들의 대회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쏘련 공산당을 맺고 있는 불패의 형제적 우의에 관한 말이 유달리 힘차게 울리였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고무되는 공산당 또는 로동당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의 공통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들의 반석같은 대렬 속에서 영광스러운 중국 공산당이 나아간다。

『꼼무니쓰트』지 제一五호에서

볼가리야 농촌에서의 당 정치 사업

뻬뜨꼬 루쎄브

一九五四년 二월 및 三월에 열린 불가리야 공산당 제六차 대회는 농촌 경리의 부단한 앙양을 보장하며 축산업 부문에 현저하게 존재하는 락후성을 청산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농촌 경리의 부단한 앙양을 위한 물질적 제 조건이 지어져 있다. 七〇% 이상의 농민들이 농업 로력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있다. 농기계 뜨락또르 임경소에는 최신형의 농기계들이 집중되여 있다. 농업 로력 협동 조합들과 국영 농장들에서와 농기계 뜨락또르 임경소들에서는 수 많은 농업 전문가들—농업 기사, 축산 기사, 수의 및 기타가 일하고 있다. 인민에게 충실한 수천명의 당 활동가들이 농촌 사업에 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물질적 및 기술적 제 조건이 지어져 있는 것만큼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적 부분이 발전, 강화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 농민들(협동 조합원들과 개인농들)과 농기계 뜨락또르 임경소 및 국영 농장 로동자들의 력량을 사회주의 경쟁의 전개에와 모범 일군들의 경험의 광범한 적용에 그리고 기술과 지방 자원의 완전 리용에 동원할 줄 아는 당 위원회들과 당 단체들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당 단체들의 활동은 농촌 경리의 급격한 앙양을 보장하는 과업에 집중되여 있다.

당 위원회들과 단체들은 당 사업과 경제 사업과를 보다 더 능숙하게 결합하고 근로 농민들의 정치적 자각과 열성 제고를 위하여 더욱 더 꾸준하게 투쟁하고 있다.

一九五五년 一월 三一일부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엠•떼•에쓰가 활동하는 지역들에는 리 당 위원회 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지도원 그루빠가 조직되였다. 이 그루빠의 주요 임무는 농촌 당 단체의 사업 능력과 지도적 력량의 제고와 농업 로력 협동 조합, 국영 농장 및 엠•떼•에쓰의 조직적, 경제적 및 정치적 강화에 노력하며 락후한 협동 조합들과 국영 농장들과 엠•떼•에쓰를 도와 모범적 조합 및 농장과 엠•떼•에쓰들의 수준에까지 올려 세우는 데 있었다.

지도원 그루빠들은 농촌 경리에 대한 능숙하고 직접적인 지도를 보장하였다. 지도원들은 몇 개 부락(보통 一내지 四개 부락)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협동 조합과 엠•떼•에쓰내의 사태를 잘 알수 있게 하며 사업상 결함을 제때에 제거하며 지방 당 단체들에게 방조를 줄 수 있게 한다. 리 당 위원회들이 농촌 당 단체들을 직접 기동성있게 지도한 결과 작년에는 이전에 락후하던 많은 조합들이 모범 조합으로 되였다. 수확고가 높아졌고 로력 일에 대한 보수가 증가되였으며 협동 조합원들의 물질적 형편이 개선되였다. 八〇〇 여 만 헥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二八만 二천명의 농민들이 금년에 개인 영농을 그만두고 농업 로력 협동 조합원으로 되게 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긍정적 경험의 보급은 당적 지도의 주요 과업

농촌 경리를 옳게 지도한다는 것은 농촌 경리의 발전 전망을 내다 보며 새로운 창의라면 어느 것이나 적극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진 운동을 저해하는 낡은 것 또는 낡아진 것과 단호히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업은 개별적 협동 조합원이나 개별적 모범 농민이 다수확을 거두도록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촌 경리에서는 개별적 협동 조합원이나 개별적 농가가 아니라 전체 협동 조합원들이, 전체 농가들이 전체 경지에서 다수확을 거두며 각종 목축의 축산률을 높일 때만이 급격한 앙양이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들과 단체들이 모범 일군의 경험을 연구하고 광범히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을 항상 개선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오직 모범 일군의 경험을 적용하는 것만이 락후한 농가들로 하여금 모범 농가들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 년간에 우리 당 위원회들과 단체들은 이 방면에서 적지 않게 일을 하였다. 모범 농가들의 경험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오늘날 아주 각양한 형태들이, 즉 모범적 영농 지구의 방문, 모범 농가의 견학, 다수확 농민과의 담화, 생산 혁신자들의 대표 회의, 농업 전람회 등등이 리용되고 있다.

모범 농가의 경험을 보급하는 형태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형태는 모범 농가의 경험을 현지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엠•떼•에쓰가 사업하는 지역들이나 리에서, 작업반, 농장 또는 농가들에서는 협동 조합원들의 협의회가 아주 빈번히 조직된다. 이 협의회에서 모범 일군들은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고 다수확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직관물을 통하여 보여 준다. 다수확 농민들의 경험 소개가 있은 후

과학 일꾼 또는 농업 전문가가 그 경험을 일반화하고 그 성과를 사업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가르친다。이와 같은 협의회는 뢰제보 끄나레촌의 모범 협동 조합에서 一九五五년에 실시되였다。이 협의회에는 一九五三년에 一〇데카르(一데카르는 약 三〇〇평)에서 일년감을 데카르 당 七、八八五킬로그람씩 거두고 一九五四년에는(六월 一五일 전만 해도) 조숙 일년감을 데카르 당 四、三九五킬로그람씩 거둔 나제즈다 인쬬바의 경험을 알기 위하여 전체 리의 협동 조합원들이 모이였다。이 협의회에서 인쬬바는 조숙 묘를 육성하는 방법、조숙 일년감의 다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농학 기술상 대책들을 소개하였다。다음으로 베・콜라로브 농업 연구소의 과학 일꾼인 마르타조브는 뢰제보 끄나레촌 농업 로력 협동 조합의 다수확 농민들이 각각 성과를 거두게 된 원인을 설명하였다。

선진 경험을 보급하는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은 현지에서 모범 농민들의 사업을 알게 된다。또 말하여야 할 것은 一九五五년에 이 리의 조숙 일년감의 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된 주요 원인은 뢰제보 끄나레 사람들의 선진 경험을 도입한 데 있다는 것이다。금년에 리 위원회는 현지에서 채소 재배의 개선을 도와 주는 모범 채소 재배가들을 락후한 농가들에게 파견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새로운 대책을 실시하였다。다수확 농민들은 생산 과정을 통하여 자기 사업 방법을 간부들에게 전습하여 준다。

최근 二년간에 선진 경험의 다른 연구 방식인 경쟁자 량측의 호상 검열도 광범한 보급을 보았다。

경쟁은 개개 농가、작업반、구역 또는 리들 사이에서 체결된다。작업 과정을 통하여 경쟁자들은 경쟁 계약이 어떻게 리행되고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검열한다。이 방식은 경쟁자들로 하여금 제때에 결함을 적발케 하며 그 시정 대책을 취하게 하며 질머진 의무 리행에 서로 방조를 줄 수 있게 한다。

선진적 생산 경험의 광범한 보급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리 농업 전람회이다。쁠레벤 구역 당 위원회와 구역 인민 회의는 구역 전문가와 과학 연구소 일꾼의 협조하에 一九五五년 가을에 농업 전람회를 개최하였다。이 전람회에는 협동 조합 농장 엠・떼・에쓰、구역내 전체 국영 농장들、작업반、목장 및 전람회 참가 조건에 합격한 개별적 협동 조합원들이 참가하였다。전람회에서 전문가들、모범 축산가 또는 경작자들은 어떻게 높은 성과들을 달성할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하였다。쁠레벤 구역 마할라타촌의 주민인 협동 조합원 크인초 마르꼽쓰끼는 그가 二〇〇데카르에서 소맥을 데카르 당 四〇〇킬로그람씩 거둔 방법을 이야기하였다。 게오르기 지미뜨로브 농업 대학 조교수인 흐・코에드지끄브는 『소맥 다수확을 위한

농업 기술』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이 강연에서 마크롭쓰끼의 경험을 리론적으로 해명하였으며 청강자들이 제기한 소맥 비배 관리 문제들에 답변하였다。축산업、목화 재배업、옥수수 재배업、포도 재배업 등의 모범 농가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소개하였다。그들의 경험은 전람회 참관자들에게 배포된 수다한 소책자들에 기록되였다。협동 조합 농장들의 집회에서는 선동원들이 전람회에 전람된 제반 성과들을 농민들에게 해설하여 주었다。

또한 선진 경험을 생산에 광범히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당 위원회들과 단체들은 이 방면에서 자기의 조직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하며 경쟁자들이 호상 지닌 의무들이 어떻게 리행되고 있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선진 경험이 연구、료해된 후는 그것을 실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바로 이 문제에 당 단체들은 지금 가장 큰 주의를 돌리고 있다。많은 조합들에서 당 단체들은 당원인 조합 위원장 또는 작업반장으로부터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지도하며 또 그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예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다。당 단체들은 각종 부문에 주는 방조가 보장되여 있는가、매개 작물의 농업 기술상 차이가 보장되여 있는가 등등을 직접 살핀다。이 직접적이고 계통적인 당적 통제는 결함들이 크게 자라지 못하게 하며 당원들이 정치 활동을 더 잘 전개하도록 도와 준다。

그러나 모든 농가에서 사태가 이러한 것은 아니다。개별적으로 락후한 당 단체들이 있다。이러한 당 단체들에게는 꼭 방조를 주어야 한다。리 당 위원회들은 당 사업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선진 경험을 광범히 보급시킬 수 없다는 것과 이를 달성하는 좋은 방법은 우수한 당 단체들의 모범을 통하여 락후한 당 단체들을 교양하는 것임을 리해하고 있다。

엠・떼・에쓰 구역내 당 단체 비서들과의 협의회는 좋은 결과를 주고 있는 바 이런 협의회들은 모범 조합들에서 가장 자주 실시된다。루센스끼 구역 당 위원회의 발기에 따라 이러한 협의회가 스미르넨스끼 꾸브라트촌 농업 로력 협동 조합에서 실시되였다。락후한 구역 당 단체들의 당 조직원들이 참석하였다。꾸브라트리의 두 촌——스미르넨스끼촌과 쩨또보촌의 농업 로력 협동 조합 당 단체 비서들이 보고를 하였다。

여러 보고와 발언들로부터 나온 결론은 스미르넨스끼촌에서의 당 지도의 위력이 우선 집체적 지도 방법의 준수、당원 및 비당원 열성자들과의 잘 조직된 사업에 있었으며 주도적 협동 조합원들을 농업 로력 협동 조합의 지도적 사업에 대담하게 동용하며 당내 민주주의와 비판 및 자기 비판을 전개한 데 있었다는 것이다。이것은 스미르넨스끼촌 당 단체가 조합 전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당적 지도와 다수확을 보장할 수 있은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협의회에서 강조되였고 모든

자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농업 로력 협동 조합의 공고화와 다수확은 주로 당 단체들의 정치、조직 사업 여하에、근로자들을 옳게 지도하며 우선 그들의 창발성을 고무 추동할 줄 아는 당 단체들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째또보촌 협동 조합에서 토지는 스미르넨스끼촌 협동 조합의 토지와 동일하였으나 수확은 리내에서 가장 낮았었다。 쩨또보촌 당 단체의 사업은 불만족하게 진행되였었다。 즉 당 회의들은 정상적으로 소집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에 다수 당원들이 자기의 당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비당원 조합원들의 모범으로 되지 못하였다。 당 단체에서도、경제 지도에서도 집체적 지도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당원들의 사업은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당 단체로 하여금 자기 사업의 결함을 제때에 적발하며 결함 제거를 달성하며 농민들의 노력을 경제 과업의 기한내 완수 및 높은 질의 보장에로 돌리는 것을 방해하였다。

당 조직원들의 보고에 대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였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스미르넨스끼촌 초급 당 단체의 훌륭한 사업을 쩨또보촌 당 단체의 불만족한 사업과 대비하면서 자체의 오유와 결함들도 비판하였다。 일례를 들면 루쩬쓰끄리 뱌또보촌 농업 로력 협동 조합의 당 비서는 그들의 약점이 우선 옳지 않은 사업 방법、즉 란폭한 행정적 및 명령적 사업 방법에 기인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 비서와 조합 위원장은 지도부나 열성자들이나 전체 종업원과는 협의도 하지 않고 빈번히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주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협동 조합 관리 지도부의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의 결여 등에서 오유를 보았다。

이 협의회는 좋은 성과를 주었다。 협의회에 참가한 다수의 당 비서들은 당 단체 사업을 개선하게 되였으며 협동 조합들도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협의회를 가지며 또 긍정적 경험을 보급시키는 다른 형식들(출판물、강연 선전、당 일꾼들의 담화 등등)을 리용하는 방법으로 리 위원회들은 당 단체들을 도와 지도 방법을 개선케 하고 있다。 오직 긍정적 경험만이 당 일꾼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사업하여야 할 것인가를 확신성 있게 보여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 위원회들은 주로 당 단체들이 우수한 당 단체들의 본을 받도록 하는 데로 자기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물론 이 방면에서는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한다。 아직도 형식주의、관료주의、지방 사태에 대한 피상적 연구 및 천편 일률적 지시 등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쏘련 공산당의 경험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와 단체들의 지도가 능숙하고 구체적으로 되게 하며 그들의 활동이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발전의 제 요구에 부합되도록 그들의 활동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다。

대중과의 련계는 당의 위력의 원천

우리 당은 인민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언제나 실시하였는 바 이 련계 없이는 당과 정부의 어떠한 결정도 실시될 수 없다。 당 중앙 위원회는 근로자들 속에서의 대중—정치 사업을 개선하고 그들의 자각성을 높일 데 대한 지시를 일상적으로 당 위원회들과 단체들에게 주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 방법은 설복의 방법이다。 대중은 당 및 정부 시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이 시책 실시의 결과에서 오는 경제적 리득을 감득하여야 한다。 이 때만이 이 결정들은 거대한 물질적、개조적 력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정치적 자각과 열성의 정도는 대부분 해설 사업의 규모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와 단체들은 선동 기구의 강화에와 그 활동의 개선에 많은 주의를 돌리고 있다。

당 선동 기구의 기본 고리는 선동 그루빠이다。 이 그루빠에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해설할 줄 아는、위신이 높은 당원들과 비당원들이 들어 있다。 선동 그루빠는 당 단체 비서가 이를 직접 지도한다。

선동 그루빠들은 어떻게 사업하는가?

선동원들을 옳게 선발한 다음에 주되는 주의는 그들의 육성에 돌려진다。 여기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개별적 문제들에 대한 지도이다。 책임적 당 지도자들(리 당 위원회 비서도 포함하여)과 농업 전문가들은 선동원들에게 대내외 정책 문제、경제 및 농업 기술 문제、선진적 생산 경험 등을 가르쳐 준다。

또한 선동원들의 지식 제고를 위한 단기 강습이 많은 리와 구역들에서 진행된다。 선동원들에게 주는 방조로서 중앙 및 지방 출판물은 그들의 흥미를 끄는 자료들을 발표하며 통속적 소책자들이 발간되여 우리 나라 발전의 개별적 문제들이 구명된다。

해설 사업은 그것이 극히 중요한 경제 및 기타 과업의 수행과 또 선진적 경험의 광범한 보급과 직접 련결되여 있을 때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본질에 있어 이것이 해설 사업의 주요한 사명인 바 그 사명은 근로자들에게 이러 저러한 시책 실시의 리익을 해설해 주며 그들을 그 실현에로 동원하는 데 있다。 이 방면에서 많은 당 단체들이 이미 현저한 성과들을 가지고 있다。 해설 사업은 개개 조합 또는 엠·떼·에쓰의 직접적、구체적 제 과업에 완전히 종속되여 있다。 일례로 뿔로브지보리 까지예보촌 농업 로력 협동 조합의 당 단체를 들기로 하자。 이 곳에서는 선동원 그루빠의 일체 사업이 모든 작물의 다수확을 위한 투쟁에로 돌려져 있다。 선동원 그루빠들은 다음과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담화를 진행하였다。 즉 『제때의 기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추경 작물의 기비와 추비』、『해

바라기의 추가적 수정(受精)』, 『포도 나무 줄기의 옳은 절삭』, 『일년감 비배 관리시의 농업 기술상 대책의 적용』 등등. 각 방면에 걸쳐 사태를 잘 료해하고 있는 선동원들은 이러한 농업 기술상 대책의 적용이 농민들에게 어떠한 리득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해석하여 준다. 작년에 협동 조합원들은 더 잘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포도와 일년감의 수확 계획은 초과 완수되였다. 一九五四년에 비하여 一九五五년에 一로력일의 보수는 五료브로부터 一二료브 三五쓰또찐까에까지 증가하였다.

까지예보촌 농업 로력 협동 조합 당 단체의 경험은 선동이 생산 계획의 완수에 종속되여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실효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동이 확신성 있고 론증적인 것으로 되며 당 결정의 정당성을 확증하는 사실, 자료, 지방의 실례들을 리용하도록 함이 극히 중요하다. 선동원은 사실들을 연구, 분석하며 그것들을 일반적인 말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례들을 가지고 비교하며 낡은 것에 대한 새 것의 우월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五월一일 리 될보크 이즈보르촌 농업 로력 협동 조합의 선동원들이 활동하였는데 그들은 옥수수의 정방형 파종법의 우월성을 협동 조합원들에게 납득시켰다. 그들은 이·산제로브 작업반이 작년에 이 방법으로 옥수수를 파종하여 一데카르당 三五〇킬로그람씩 수확하였는데 조합의 평균 수확고는 一데카르 당 一五〇킬로그람이였다는 것을 협동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또 선동원들은 담배의 조기 재배를 제때에 준비하는 것이 리익을 준다는 것을 해설하면서 작년에 이렇게 한 결과 담배 수확이 평균 一데카르 당 四九킬로그람이나 증가되였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실효있고 목적 지향성 있는 선동의 필요성은 지방들에서 선동원들과의 사업의 일부 형식을 변경케 하였다. 작년에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모든 선동원들에게 지도를 주는 것이 보통이였다. 이것은 선동에 일정한 형식주의를 주입시켰는 바 선동원들은 그들의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담화들을 청취하군 하였다. 현재는 많은 당 단체들이 지도원 그루빠의 협조하에 이 결함을 제거하고 있다. 선동원들을 일률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례를 들면 축산업 발전 문제가 토의될 때는 축산장 또는 사료 준비 작업반의 선동원들만이 초청되며 포도 재배업의 문제들이 토의될 때에는 이 부문에서 일하는 선동원들만이 초청된다. 이 방법은 극히 좋은 성과를 주고 있는 바 선동원들은 구체적 지시를 받으며 그들의 사업은 직접 개별적 농업 부문의 생산 과제 완수에 돌려지고 있다.

선동원들이 지시를 받은 후는 가장 어려운 일, 즉 사람들과의 담화가 시작된다. 작업반별, 축산장별 또는

독립 농가별 회합들에서 선동원들은 당 및 정부의 제 결정, 몇몇 구체적 시책들을 해설하거나 신문의 사설들을 사람들에게 읽어 준다. 이렇게 한 후에 토론에 들어간다. 협동 조합원들과 개인농들은 결함을 비판하며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제의를 한다. 선동원들은 근로자들의 제의를 당 위원회에 전달한다. 당 및 경제 기관이 이 제의를 고려하고 해당 결정을 채택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이 당 단체는 대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대중에게서 배우고 있다.

집체적 담화 이외에 선동원들은 개별적으로도 협동 조합원 및 개인농들과 담화한다.

거의 모든 촌락에서 라디오 방송부, 직관 선동 및 신문 『번개』가 해설 사업에 리용되고 있다. 라디오로 전달된 어떤 보도라든가, 삐라는 큰 리득을 가져올 수 있다. 뚜뜨라깐리노와 체르나촌 농업 로력 협동 조합에서 한 목축 사양자는 일을 되는 대로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그에게 비판과 충고를 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리하여 선동원들은 삐라를 발행하고 그것을 작업반별로 배포하는 한편 라디오로 전달하였다. 저녁에 이 목축 사양자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이 보도를 듣고 사업에 대한 아버지의 옳지 않은 태도를 비판하였다는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목축 사양자에게 큰 감동을 일으키여 그로 하여금 일을 더 잘하게 하였다.

선동 자료는 누구나 알기 쉽고 또 근로자들에게 개별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부와 신문 『번개』는 경쟁을 전개하는 데 잘 리용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범 일꾼들의 경험을 제때에 알고 그들의 본을 따를 수 있게 하며 락후자들로 하여금 결함 제거를 위한 대책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이상과 같은 실효 있는 선동 사업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제고하며 그들의 창발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 건설에 이끌어 들인다.

간부 교양은 성공의 기본

옳은 결정이 채택되고 로선이 제시된 후 성공 여하는 간부 사업에 달려 있다. 간부들은 당 사업의 결정적 고리로 되고 있다.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근로자들을 과업 수행에로 인도할 줄 아는 당원들의 확고한 핵심이 매 생산 부문에서 형성되도록 함이 필요하다.

농촌 경리에서 다수확을 위하여 가일층 투쟁할 데 관한 一九五五년 一월 三一일부 당 중앙 위원회 결정은 당원들에게 가장 곤난한 사업 부문에서 일하며 비당원들에게 그들 앞에 나선 과업 수행에서 모범을 보여 줄 책임을 지우고 있다. 리 위원회의 방조하에 촌락들에서는 당 회의들이 진행되여 당원들을 각 생산 부문에 어떻게 옳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그결과 많은 촌락들에서 당원들이 주로 사무실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것과 일부 작업반 또는 축산장에는 대체로 당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개별적 당원들의 자질을 평가한 다음 그들이 사업에서 가장 능률을 낼 수 있는 사업 부문에 그들을 파견하였다。 롬쓰크리 고르나 그노예니차촌 농업 로력 협동 조합내 一二二명의 정당원 및 후보 당원들 중 五八명이 포전 작업에서 일하며 一〇명이 축산업에서, 一四명이 마량 수집 사업에서, 一〇명이 건설 작업반에서, 六명이 포도 재배 및 과수업에서 일하고 있다。 四명의 당원인 로인과 병자만이 생산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당원들을 생산에 돌린 결과 많은 점에서 농촌에서의 당 사업은 일층 개선되였다。 즉 당원들의 열성은 제고되고 당원들은 문제 토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으며 당 단체는 농업 로력 협동 조합의 일체 경제 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되였다。

一九五四년에 츨레웬쓰크리 고르니 되브니크촌 농업 로력 협동 조합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었다。 화폐 및 현물로 되는 로력일의 보수는 낮았었다。 작업반에서나 축산장에서 당원들은 주로 사무에만 종사하였다。 생산에는 당원들이 적게 참가하였다。 금년에 당 단체는 지도원 그루빠의 방조하에 이 문제를 엄중하게 취급하였다。 당원들은 모든 작업반과 분조에 배치되였다。 당 분조는 강화되였으며 정상적으로 작업반과 축산장의 사업을 검열하기 시작하였다。 당 회의는 더욱 활기띠고 재미있게 되였다。 지금은 당원들이 농업 로력 협동 조합내 정형을 잘 료해하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서 열성적으로 토론에 참가하며 비판을 하고 있다。 당 단체의 지도적 역할은 강화되였다。 조합 앞에 나선 과업은 제때에 또 현저히 우수하게 완수되고 있다。 一九五五년에 와서 로력일에 대한 화폐 및 현물 보수는 二배나 증가되였다。

많은 새 간부들을 농촌에 파견한 것, 당원들을 생산 부문에 배치한 것,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데 대한 당과 정부의 결정 실행을 참작하여 당원들에게 높은 요구를 제시한 것 등은 지방 일꾼들에게 주는 방조를 확대하며 그들의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과업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엠•떼•에쓰 지역들에서 리 당 위원회 비서들을 수반으로 하는 지도원 그루빠의 방조하에 이 과업 수행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증대되였다。

리 당 위원회 기구의 개편전에는 지도원들의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볼 수 있었다。 리 당 위원회들은 빈번히 경제 및 행정 기관으로 화하여 명령을 하며 정보를 수집하며 보고와 보도를 쓰군 하였다。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시간이 없었다。 물론 이러한 엄중한 결함들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 사업은 새로운 원칙 우에 세워졌다。 즉 지금 리 당 위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부 교양에 주의를 더 많이 돌리고 있다。 지도원들은 농업 로력 협동 조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간부들을 실천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간부들의 리론 준비와 당 교양망의 강화에 돌리는 주의를 약화하지 않으면서 당 위원회들은 주로 일꾼들의 실지 사업 교양에 배려를 돌리고 있다。 즉 일꾼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또 어느 때 하여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리 당 위원회와 지도원 그루빠는 협동 조합과 엠•떼•에쓰의 경제를 연구하며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농산품 원가 저하를 위한 방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도원들과 리 당 위원회가 지방 간부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방조를 준 결과에 농촌 당 단체들의 사업 능력과 지도적 역할은 부단히 제고되며 또 이 당 단체들은 경제 및 기타 과업의 완수를 더욱 더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 더 큰 성과를 달성하며 당의 정책을 승리케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서적 해제 및 평론

조선 통사(상)에 대하여

김 세 익

과학원 력사학 연구소는 금년 四월에 조선 통사(상)를 공간하였다。 이 저서는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를 앞두고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전체 조선 인민의 앙양되고 힘찬 력사적 행진에 발 맞추어 공화국 력사학도들이 해방후 一○년간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과학 문화 정책에 고무되면서 축적한 력량의 하나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집필 출판된 것이다。

원래 조선 통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서술 출판할 것이였으므로 현재에서 멀리 떨어진 과거는 간략하게 취급하고 가까운 시대로 내려오면서 이를 풍부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통사 상권은 고대、중세사에 관한 예비적 지식을 소유한 독자들에게 이를 간략하게 개괄하여 주는 것으로 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자들이 다년간 연구하고 또 대학들에서 강의한 경험들을 풍부히 도입하여 신축성이 있고 내용이 충실하여 해당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사회 발전의 합법칙성과 계급 호상 관계 등을 명확히 드러 내고 있으며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 대중의 역할이 잘 서술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 전통과 자랑스러운 문화적 창조 활동이 선명하게 서술되여 있다。

* * *

조선 통사(상)에서는 제一장에서 원시 공동체 사회와 그 붕괴、고조선을 서술하여 우리 나라의 원시 사회사를 취급하였으며、제二장 고구려、백제、신라 등 三국의 형성과 발전、제三장 신라에 의한 三국 통일의 二개장에서 우리 나라의 고대 사회사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제四장 신라에 있어서의 봉건 관계의 발전으로부터 제一五장 一九세기 전반기 봉건 제도의 퇴폐、농민 봉기의 앙양에 이르기까지의 一一개의 장들에서 중세사를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로 되는 집필 요강은 이미 一九五四년 가을에 수차에 걸쳐 집체적으로 토론되였으며 그후 집필자들과 여러 력사학도들과의 사이에는 십 여 차의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이러한 경위들로 미루어 보아도 이 저서는 적어도 一九五五년까지에 도달된 조선 력사 학도들의 제 성과들을 충분히 섭취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저서의 서문에서도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본 통사는 아직도 적지 않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아래에 이 통사가 가지는 우점과 또한 서문에서 지적된 결함 및 그 이외의 결함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독자들의 참고로 제공하려 한다。

제一장 원시 공동체 사회와 그 붕괴、고조선—이 장은 우리 나라에 기록된 력사가 출현하기 이전 시기의 고고학、즉 전사 고고학(前史考古學)이 일제 어용학자들에 의하여 심히 외곡되여 버렸으며 우리 고고학도들의 새로운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형편에서 서술되였다。

그러므로 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방후 우리 나라 고고학이 달성한 제 성과들과 문헌에 수록된 제 기록들을 요약하여 종전에 출판된 저서들에 비하여서는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간명하게 서술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렸다。

그러나 저자는 서술상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점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릇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한 실례로서 패총에 대한 서술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패총은 저자도 말하다싶이 『함경북도의 해안 지방을 비롯하여 반도 서해안 일대와 경상남도 남단의 섬들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방에 분포되고 있으며 기타 대동강、한강 및 락동강 류역 내륙 지방에도 산재하고 있다』(동서 四페지 방점——필자)라고 하였다。三면을 바다로 둘려 있으며 섬들이 많은 우리 나라에는 패총 유적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나 대동강 한강 및 락동강 류역 내륙 지방에서 패총이 발견된 례는 거의 없다。 일본인들의 『학술 보고』에 의하면 한강 중류 충주 부근에서 패총이 발견되였다 하나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극히 례외적인 것이며 일반적 현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김해 패총 형성 시기와 그 출토물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 저자는 김해 패총의 형성 시기를 기원전후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고고학자의 말대로 발굴시에 패총의 하층과 상층을 뒤섞은 데서 또는 뒤섞인 패총을 잘 못 조사한 데서 나온 그릇된 견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데 저자에게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전사 고고학은 일반적으로 신석기의 제조에 앞서서 골각기가 사용되였다는 것을 말하는 데 저자의 서술에서는 신석기가 출현한 후 골각기가 제조되였으며 심지어는 철제 도구로 골각기를 제조하였다(동서 一○페지)고 하는 것은 후세에도 있었던 바와 같이 장식구 제조 등에서 철제 도구를 사용한 례외적인 현상을 일

반적인 것으로 착각한 것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된다。

예맥의 생산물로서 저자는 어피(魚皮)를 들고 있는 데(동서 一四페지) 이것은 아마 반어피(班魚皮)의 착오일 것이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해표피(海豹皮)를 말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참고로 지적한다。 고조선족의 교역물로서 열복(㲧服)을 들고 그의 해석을 『모직물의 일종』(동서 一二一페지)이라고 하였는 데 이것도 새깃(鳥羽)을 엮어서 만든 고급 옷의 잘 못일 것이다。 한(漢)이 위 우거의 조선을 정복하고 설치한 四군중 玄菟郡은 현토군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현도군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조선 문제는 우리 력사학도들이 긴급히 해결지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고조선이 국가였는가 혹은 국가 형성 과정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문제로 되며, 고조선의 위치가 료양을 중심으로한 현재의 중국 동북 지방 일대였는가、혹은 현재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였는가도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 무제의 침입후에 조선 지역에 설치되였다는 四군중 악랑군의 위치는 악랑이란 지역명과 패수(浿水)라는 강명의 사용이 료양으로도 될 수 있으며 또 평양으로도 될 수 있고 또 료하와 대동강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성을 띤다。 그 뿐만 아니라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황해도 일대에는 수 천 개에 달하는 한식 고분(목곽분、전곽분)이 산재하여 있으며 여기서는 한대의 유물들이 허다히 출토되고 있으나 료하 류역의 발굴 사업은 아직 크게 전개되지 못한채 남아 있으므로 력사 고고학상으로도 악랑군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고조선 문제의 해결을 복잡하고 곤난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곤난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자는 일관된 립장에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조선 서술이 극히 리해하기 곤난한 것으로 되였다。 즉 고조선은 서술 내용상으로 보아 원시 공동체 붕괴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되여 있으나 원시 공동체 사회 붕괴 시기의 조선의 원시 여러 종족들과는 구별되면서도 기원전 八세기 또는 기원전 三세기의 력사가 서술되였으며 그 력사는 후세의 력사와 유기적인 련결을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 종족과는 인연이 없는 동떨어진 것으로 되여 버렸다。 필자의 견해로서는 고조선을 원시 공동체 붕괴 시기의 조선의 원시 종족들에 포함시키거나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국가로 보면서 악랑군과 악랑국의 관계도 밝혔으면 한다。

제二—三장에서는 우리 나라에 존재한 고대 국가들을 서술하였다。 저자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三국의 국가 형성 시기와 또한 三국의 사회 경제적 구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이 문제를 서술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저자는 맑스주의적 방법론에 립각하여 이

장을 서술하려고 무한히 노력하였으며 다년간에 걸쳐 연구한 성과들을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제一절 三국의 형성과 그 사회 경제 상태는 고대 국가 서술에서의 기본 고리이다。

그리하여 三국의 사회 경제적 상태는 종전에 공간된 저서들에 비하여 많은 우점들을 가지게 되였는 바 그것은 특히 노예 소유자적 사회 구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공동체의 보다 많은 부분에서의 잔존、예속 농민 및·자유 농민층에 대한 정당한 분석과 그들에게 일정한 위치가 부여되면서 노예 소유자적 사회 구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점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우리 나라의 노예제 사회는 고전적 희랍、로마의 노예제 사회와는 다른、말하자면 동방적 노예제 사회였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저자는 이 서술에서 공동체의 잔존 우에 선 전제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제 국가 서술에 있어서 저자는 사료 인용을 부정확하게 함으로써 론리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저자는 쓰기를 『고구려 국가는 촌락 공동체의 잔해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파편 우에 선 국가는 아니였다。 고구려 국가는 도리여 그것들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통치자들은 고구려 령역내의 촌락 공동체들을 통제하고 수탈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전제 정치가 요구되였다。 전제 정치는 북방의 유목 종족의 침입과 중국 대륙의 한족들의 침략 세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강화되였다』라고 하면서 엥겔스의 반듀링론에서 『공동체는 그것이 존속하는 곳에 있어서는 수 천년래 가장 소박한 국가 형태인 동양적 전제 정치의 기초로 되고 있다』를 인용한 다음 나아가서 三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족장 출신의 대가들은 각기 일정한 지역을 령유하고 정치 군사적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국왕에게 복종하였다』를 인용하였다。 여기까지의 저자가 전개한 론리와 인증에는 큰 모순이 없다。 그러나 다음에 가서 고구려 국가의 대대로(大對盧——대신)는 대가 중에서 임명되였는 데 그 임기는 三년으로 되여 있었다。 그러나 『그 교체시는 종종 대대로의 자리를 탈취하기 위한 대가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때 국왕은 성문을 닫고 그들 간의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려 승리자를 대대로에 임명하였다』라는 기사를 주서 및 당서에서 인용하였다(동서 一三三페지)。 이것은 전에 인용한 례증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왕의 전제권이 강하다면 대대로의 직위가 무력으로 쟁탈되는 것이 흔히 있으며 이 쟁탈전에 국왕은 수수방관하였겠는가? 하는 응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고구려 국왕에게는 전제권이 있었으되 그것은 초기에는 미약한 것이여서 귀족—대가들의 할거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초기 신라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며 오직 백제에 있어서만 국왕의 전제권이

초기부터 비교적 강대하였다고 인정된다。 이것은 동서 四二一페지에서 저자가 인용한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지방을 二十二구역으로 나누어 그의 친척들을 보내서 각각 다스리게』(량서)하였다는 것이 이 점을 잘 말하여 준다。 그러나 이 기사를 저자는 『고구려 국가에서의 대가들이 지방 공동체들을 관할한 것과 기본상 동일한 내용으로 되였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씨족장 또는 종족장들의 관할과 왕족들이 전 지역에 파견되여 통치자로 나선 것을 기본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고구려에서는 혈연적 뉴대를 전제로 한 지방 세력의 활거적 성격이 뚜렷이 보이며 후자의 기록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중앙 집권력이 강화된 이후의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고구려보다 먼저 백제의 전제권이 수립되여 갔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국왕의 전제권 문제와 밀접한 련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식읍 문제이다。 저자는 식읍을 받은 자가 죽었을 때에는 식읍을 회수한 듯이 서술하고 있다(三四페지에서와 一一三페지에서의 박 유(朴紬)의 식읍을 회수한 것)。저자의 견해대로 반역죄 이외에서도 식읍을 능히 회수한다는 것은 국왕의 전제권이 강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료들은 그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다。 고구려의 사료는 그후 력사적 과정의 비극으로 인하여 인멸되여 잘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六부 귀족들이 광대한 토지를 령유하고 인민들을 지배하였으며 지어는 관직까지도 세습한 사실은 명백한 일이며 통일후 신라에서도 식읍이 회수되였다는 것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진압된 결과 이외에는 극히 드문 일이며 식읍을 받은 자의 후손들은 여전히 귀족으로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중앙 집권적 전제력이 강화된 시기인 고려 사회에서조차 식읍이 세습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명백하여진다。 력사 서술에서 례외적인、 특수적인 문제를 일반적인 것으로 또는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주면서 서술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백제 국가와 신라 국가의 발전 정도 문제인데 저자는 량국을 모두 二—三세기 경부터 국가가 형성된 나라로 또는 발전한 나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수긍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라는 백제에 비하여 적어도 一세기 이상 뒤떨어진 나라이며 고구려는 백제보다 거의 一세기 이상 앞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력사학도나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저자는 이 서술 부문에서 력사 서술에서의 년대적 순차성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였다。 물론 부족한 사료를 각 부면에 걸쳐서 리용하자는 데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기원전 시기의 년대가 붙은 사료와 기원후 五—六세기의 사료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은 력사 서술의 초보적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감을

준다。

자유 소농민에 대한 서술은 저자가 크게 노력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문이나 사료 해석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저자는 二세기 말의 고구려에 있어서 『자유』 소농민층의 몰락을 서술하면서 『얼마되지 않는 토지를 상실당하고 농촌의 품팔이군이 되든가、 혹은 도시에 몰려 들어 무위 도식자로 방황하였다』(동서 三六페지)고 하였다。 그런데 三국사기의 본문에는『冬十月、王畋于質陽、路見坐而哭者、問何以哭爲、對曰、臣貧窮常以傭力養母、今歲不登、無所傭作、不能得升斗之食、是以哭耳……』라고 하였다。 여기서 왕이 질양으로 수렵하려 나가는 길에서 보았다는 것을 도시에 흘러 든 사람으로 속단할 수는 없으며 용력은 품팔이로 될 수 있으나 용작은 소작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또 흉년이 들어서 일감을 얻지 못하는 빈한한 사람을 무위도식자로 단정할 수 있겠는가。 겸하여 말할 것은 유(遊)자에 대한 저자의 일면적인 해석이다。 유자에는 물론 무위도식의 개념이나 건달의 뜻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뜻 이외에 다른 뜻도 있다。 저자가 三六페지에서 수서의 인용으로 제시한 『유민(遊民)』은 본문에는 유인(遊人)으로 되였다。 유민과 유인은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므로 정확히 인용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또한 저자가 五一페지에서 말한 유식 백성(遊食百姓)을 건달군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三국사기는 소지마립간 十一년 『春正月、驅遊食百姓歸農』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정월에 식량이 떨어져 유리하는 농민으로 또는 그들이 도시에 흘러 들어 거지로 된 것을 말할 것이다。 이러한 층을 건달군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

저자는 력사적 사료를 정확히 인용하지 않고 때때로 독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례하면 『장수왕은 단꺼번에 백제를 정복하려 하였으나 백제의 왕자 문주(文周)는 웅진(熊津——지금 공주(公州))으로 도망쳐서 정치 군사적 혼란을 수습하고 왕위에 올랐으며、 한편이 급보를 들은 동맹국인 신라는 一만 여의 구원병을 거느리고 백제에 다다르게 되자、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 정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四一페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三국사기 백제 본기 문주왕조에는 『高句麗來侵圍漢城、蓋鹵嬰城自固、使文周求救於新羅、得兵一萬廻、麗兵雖退、城破王死、遂即位、……冬十月、移都於熊津』이라고 하였다。 즉 『고구려가 침략하여 와서 한성을 포위하자 개로왕은 외딴성을 스스로 굳게 하고 문주를 시켜 신라에 원병을 구하게 하였다。 (문주는) 一만의 군대를 얻어 돌아오니 고구려 군대는 퇴각하여 갔으나 성은 파괴되고 왕은 죽었으므로 드디여 즉위하였다……겨울 十월에 웅진에 도읍을 옮겼다』。

이상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의 서술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수왕의 회군은 자기

의 전술적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며 또 고구려는 백제
정복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그후 력사가 잘
말하여 준다。

또한 저자는 수서 신라전을 인용하면서『수륙 겸종의
二모작』(동서 四六폐지)이라고 하였는 데 수서의 본문
에는『田甚良沃、水陸兼種其五穀、果菜、鳥獸、物産、略
與華同』(방점——필자)이라고 있으되 二모작이란 말은
없다。 교정을 잘 하며 원전 인용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겸종』을 二모작으로 해석하여야
하겠는가는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 데 하물며 기원
전후의 기사와 병렬하여『겸종 二모작』을 론단한 것은
지나친 독단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겸종』은 수
전 작물도 재배할 수 있으며 륙전 작물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다음으로 부곡 문제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하려 한
다。 저자는 부곡이 우리 나라 남부 지방에 오래 전부
터 많이 있었으며 또 그것은 촌락 공동체적 내용이 파
괴되지 않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노예 경리의 장성과
일련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즉 노예—노비의 집단으
로 해석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
대사 연구에서 하호 문제와 부곡 문제의 해명은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부곡은 저자도 말한 바와 같이 三국사기에서
말한 잡소(雜所)이다。 잡은 고려 시기의 용례로 보아
천인층의 신분을 말하며、소도 고려 혹은 리조 시기의
용례로 보아 수공업 장소——례하면 염소(鹽所——소
금을 굽는 곳)、철소(鐵所——철물 제조소)、금소(金
所——금 채굴 및 가공소)등——를 말한다(장—場—과
거의 같은 용례를 가진다)。 그러므로 수공업 생산을
위주하는 천인들의 집단을 부곡이라 해석하여도 무방
할 것이다。

왕실 귀족들의 사치품을 생산하는 노비들이 기본적
으로 서울내에 거주하였다면 기타의 수공업 소비품을
생산하는 천인층을 부곡이라 하였으며 이들 부곡은 피
정복지의 공동체원들、기화민들、령락한 공동체원들이
일정한 벽지에서 다른 자유 농민、예속 농민들과는
격리되여 농경에 종사하여 자기 경리를 가지면서도 수
공업 생산품을 과중한 공납물로 바칠 것을 강요당하는
최하층의 농노적 집단으로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자가 향、부곡의 설명을 위하여 고려사를
인용한 것은 향、부곡이 많았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실
제 고려 사회에서『향』은 오로지『범죄자』의 집단
부락을 의미하기보다는 보통 농촌 부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곡은 천인들의 특수 부락으로 그렇
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제二장 二절에서는 三국의 대외 관계를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저자는 주로 三국 호상간의 관계는 제외하고
주로 대륙 한족 국가들과의 관계를 간명하게 서술하였

으며 또한 수、당의 침입을 반대한 고구려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그런데『백제는 일찌기 료동 지방의 악랑군을 통
하여 중국 대륙의 선진 문화에 접할 수 있었다』(동서
五五폐지)라고 하였는 데 이것은 악랑에 대한 지나친
고려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된다。 백제가 영향을 받
은 것은 료동을 통하여서 보다는 오히려 고구려를 통
하여서였으며 또 一세기—三세기 간에 고구려와 백제
의 중간 지역——평안도 남부와 황해도 일대에 개재한
악랑(혹은 악랑국)에서였다。 저자의 서술에 의하면
이 지역은 수백년간 공백지로 있은 것으로 된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수、당의 고구려에 대한 침략
목적이 거의 서술되지 않았으며 또 이 전쟁을 일으킨
상대방 국가들의 지배층과 전쟁에 강제로 동원된 인민
대중의 동향이 전연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사
서술상에서의 기본적인 결함을 보였다。 그리고 수왕
조의 멸망은 六一七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六一八년(大
業一四年)으로 보아야 할 것을 첨부하여 둔다。 제三
절 三국의 문화 서술에서는 각이한 력사적 조건하에서
각각 독자적인 발전을 가져 왔으나 또한 이것들은 호상
긴밀한 영향하에 혼연 융합하여 하나의 문화 계통으
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서술되였으며 고귀한 공
예품들이 대개 가장 억압받고 착취받던 노비들에 의하
여 창조되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평양
부근을 비롯한 황해도 일부에서 발굴된 한식 고분들
에서 발견된 문화 유물에 대하여 일언 반구도 언급이
없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제三장 신라에 의한 三국 통일에서는 신라와 당의
련합군에 의한 백제、고구려의 멸망과 그 후 멸망한
두 나라 인민들과 신라 인민들의 영웅적인 공동 투쟁
은 신라 귀족층들의 긍정적 정책과 배합되면서 드디여
三국 통일을 완성하였으며 이 통일은 조선 인민의 력
사가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로 되였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저자는 통일 과정 전
쟁들에 대하여 정치한 서술을 보이였다。

그러나 제三절 조선 준민족(나로드노스치)의 형성
부문은 극히 불충분하게 서술하였다。 저자의 견해에
의하면『三국의 중앙 집권적 전제 정치의 결과로서 점
차로 일정한 경제적 공통성이 발생、발전하게 되였다』
(동서 九九폐지)라고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三국에서
는 각각『그 언어、지역의 공통성과의 호상 관련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문화적、심리적 상태의 일정한 공통
성이 육성되였다』라고 하였다。 저자의 견해에 의하
면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고구려、백제、신라의 세
나라의 준민족이 각각 형성되여 발전하였다고 한다(동
서 一〇〇폐지)。

그런데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三국 인민들의 지리적
공통성이란 극히 불안전한 상태에 있었으며 문화적、심

리적 상태도 三국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으며 언어도 三개 국가 지역내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사료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三개의 준민족의 분립은 있을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 경제적 공통성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전연 생각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경제적 공통성은 분업에 기초한, 특히는 지방적 분업에 기초한 밀접한 불가분리의 련계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관련되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동체의 강한 뉴대를 타파 못한채 형성된 국가이며 그 국가 내부에 존속하면서 크게 작용한 공동체적 잔재를 인정하면서 경제적 공통성이 발생, 발전하였다는 것은 리해하기 곤난한 일이다. 더우기 고구려 국가를 구성한 민족(인민)은 고구려, 말갈을 비롯한 여러 민족(인민)들이였다는 것을 저자도 다음 절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성을 가졌으며 광대한 령토를 차지한 고구려에서 나로드노스치가 형성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리해할 수 없다.

조선 나로드노스치가 통일 신라로써 형성되였다는 것은 필자도 동감이다. 그러나 이 나로드노스치는 어디까지나 단초적인 것이였으며 이것은 후세에 계속된 전 봉건기를 통하여 공고 발전되였다.

저자는 조선 통일 국가 형성에 있어서 종래의 종족 신들은 장애물로 되였다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신라 지배층들이 불교를 들고 나선 것을 지적하면서 황룡사의 九층탑 축조로써 례로 삼았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三국에서 불교가 가장 류행한 나라는 고구려, 백제이며 신라는 비교적 뒤떨어진 나라였다. 통일 후에 신라에서 불교가 점차 지배적 종교로써 전면에 나선 것은 신라 불교의 우위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三국에 공통한 종교중에서 불교가 가장 선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며 또 그것은 중앙 집권력을 강화하는 데 유력하였기 때문이였다.

제三장 四절 고구려 고지에서의 발해 건국과 신라와의 관계 서술은 주로 발해국의 창건에 대한 서술로써 끝났다. 본 통사의 서문에는『발해(渤海—震國)는 그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보아 응당한 서술의 분량을 이에 할당하였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발해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구려 유민들이 그 지역의 북방에서 당 침략자를 반대한 투쟁 과정에서 창건한 나라요 또 그 령토는 현재의 함경도, 평안도 이북의 전 지역에 걸쳤으며 그 력사는 통일 신라의 전 기간을 포괄하였기 때문에 조선 력사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발해의 기록된 력사는 거란에 의한 멸망과 그후 한족 통치층들에 의한 의식적인 말살 정책으로 오늘날 전해지는 것이 적으며 또

연구할 일부의 자료가 있어도 우리 력사학도들의 력량이 아직 그곳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알고 있으며 또 잔존하고 있는 자료래도 연구하여 조선 중세사의 일부로 발해의 력사를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제四장으로부터 제一五장에 이르는 一二개의 장에서는 조선 중세사를 취급하였다. 여기에 포괄된 장들을 중세사의 시기 구분에 따라 구별하면 제四장은 봉건적 생산 관계의 형성기로 되며 제五—一二장까지는 봉건적 생산 관계의 발전기로 되며 제一三—一五장은 봉건적 생산 관계의 붕괴기로 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갈이 봉건적 생산 관계의 형성기는 대체로 七세기로부터 九세기에 이르는 三세기간에 걸쳤으며, 봉건적 발전기는 一○세기부터 一七세기 전반기에 걸친 약 八세기에 걸친 긴 기간을 포괄하며 봉건 사회의 붕괴기는 그후 一九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였다. 봉건적 발전기가 오래 동안에 걸쳐서 지속된 것은 주로 그간 외래 침략자들, 특히는 거란족, 몽고족, 일본 해적들의 침입으로 심한 파괴를 당하여 봉건적 발전은 중단되고 때로는 퇴보의 현상까지 초래한 데 기인한다. 이러한 혹심한 파괴는 인민들의 로력으로 복구되고 새로운 발전에로 넘어갔는데 여기에는 긴 세월이 요하였던 것이다.

중세사의 저자들은 상술한 시기 구분에 립각하여 매장, 절들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명확히 보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창조적 로력으로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영용한 애국주의 전통, 그리고 찬란한 문화의 창조자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훌륭히 서술되였으며 학계에 크게 기여한 이 저서도 부분적 면에 있어서는 불충분하게 서술되였거나 혹은 그릇되게 서술되여 있다.

제四장 신라에 있어서의 봉건 관계의 발전 서술에서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전 장들에서나 이 장에서 고구려, 백제 국가들에서의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계의 붕괴에 관한 서술이 없이, 또한 신라 내부에서의 봉건적 생산 관계의 발생에 관한 서술이 없이 신라 사회에서 봉건 관계가 발전하였다고 서술되여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술은 바로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갈이 三국의『사회 구성 및 시대 구분에 관한 문제에는 아직 명확한 과학적 규정을 주지 못한 설명과 표현으로 충당되였다』는 것에 해당하며 이것은 우리 력사학도들이 긴급히 해결해야 할 기본 문제중의 하나이다.

三국 사회를 노예 소유자적 사회라는 립장에서 서술할 때에 력사학도들이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것이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계의 붕괴에 작용하는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직접적 생산자인 노예와 착취 계급인 노예주간에 벌어진 심각한 계급 투쟁을 사료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아직도 이에 해당할만한 구체적이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저자는 『자유』 소농민의 몰락과 그들의 농노화는 추상적으로래도 서술하고 있으나 노예들의 폭동과 그들의 농노화에 대한 것은 서술하지 못하였다。 이 부문 서술의 리론화는 우리 력사학도들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저자가 제二、三、四장에서 루차 언급하고 있는 신라의 보수적 귀족、구세력과 그와 대치되는 진취적 귀족、진취적인 신흥 군사 귀족、그리고 그들의 새 정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개념을 필자는 이 저서에서 찾을 수 없다。 보수적 귀족、구세력은 성골 출신 귀족을 말하는 것이며 진취적 귀족은 진골 출신 귀족을 말하는 것인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전자는 노예소유자적 생산 관계를 고집하는 귀족층이며 당 나라와의 동맹 정책을 반대하며 三국의 통일 사업을 반대하는 귀족층이며 나가서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령토로써 포괄하는 것을 반대하는 귀족층인가가 명확치 못하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후자는 봉건적 생산 관계의 편성을 지향하며 三국의 통일을 주장하며 령토의 더욱 광범한 확장을 주장하며 왕의 전제권을 강화하려는 귀족층인가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신라 사회에서 귀족들이 량파로 대립되여 호상 공벌하였다면 그들의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견해들을 밝혀 주었으면 한다。

제五장으로부터 제七장에 걸쳐서는 고려 사회에 있어서 봉건주의의 발전에 관하여서와 거란의 침입을 격퇴한 고려 인민의 애국적 투쟁(九九三—一〇一八년은 一〇一九년의 잘 못임)을 서술하였다。 저자는 이 장들에서 고려 봉건 사회의 발전 과정을 력사적 사료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정확히 서술하였다。 조선 력사학도들이 수행한 중세사 연구를 개괄하면 고려사 부문과 리조사 전반 부문(一〇세기—一六세기)은 비교적 잘 연구되여 있다。 그러므로 이 부문 서술에서는 별로 큰 착오는 없다。 그러면서도 필자는 이 장들의 서술에서 참신한 점들이 많은 반면에 부분적인 결함들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마디의 희망을 말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九세기에 있은 농민 봉기와 후三국의 분렬을 경과한 후 왕 건에 의하여 조선 봉건 사회는 다시 통일되고 안정되였다。 왕 건과 그의 초기의 후계자 및 량반들은 농민들을 토지에 긴박하며 사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일련의 대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통치계급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된 농민 봉기후에 농민들의 투쟁력이 두려워서 실시한 회유 무마 정책의 결과이며 동시에 자기 계급의 착취의 총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였다。 그러므로 계급 투쟁의 관점으로 보면 一〇세기 중엽 이후로 고려 봉건 사회의 발전은 농민 폭동의 전취물이며 이러한 농민 폭동

후에 사회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서술하여야 하며 또한 고려 왕조가 성립한 력사적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응당히 지적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이러한 점이 간과되였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고려초(一〇세기)의 노비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한 것이다。 저자는 『고려 봉건 사회의 지배 계급인 량반과 사원들은 넓거나 좁거나 간에 일정한 토지의 봉건적 소유자들이며 그들은 이 토지의 주된 경작자인 노비들을 직접 착취하였다。 노비는 량반과 사원의 완전 소유하에 있었다』(동서 一五二 페지、방점은 필자)라고 하였다。 저자는여기서 一〇세기의 량반 및 사원 토지를 경작한 것이 주로 노비라 하였는 데 이것은 단정하기 곤난한 말이다。 一二세기초에 송 나라 사람 서 긍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사회 구성을 승려、군인、백성의 三대 종류로 분간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원의 토지 경작자는 하층 승려들이나 예속된 량인 농민들이 지배적이였을 것이며 또 군인은 주로 량인 출신이였으므로 기본 생산자 대중인 백성은 의심할 바 없이 량인을 골간으로 한 것이다。 또 량반들이 차지한 토지는 적어도 一一세기까지는 사전(私田)으로서 국가에서 분배 받은 것이였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노비들이 량반 및 사원 토지의 주된 경작자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더우기 저자는 노비는 량반과 사원의 완전 소유하에 있었다라고 썼다。 그런데 노비라는 어휘는 조선 고대사 사료로부터 봉건 말기에 이르는 제 력사 문헌들과 기타 토지 문건들에서 산견되는 어휘이다。 이 어휘는 그들이 실제 생활한 정형으로 판단한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노예에 해당하는 어휘이며 중세사에서는 노예의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주로 그것이 경작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농노의 개념으로 불리운 어휘이다。 저자가 사용한 완전 소유라는 말은 정치 경제학상으로는 노예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예는 물건으로 간주되였으며 노예주의 무제한하고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었다。 노예들은 착취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축과 같이 매매되였으며 심지어 그를 죽인 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두고 완전 소유라 한다。 고려 사회에서 노비의 경우는 노예와는 다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경영을 가지고 있었다。 봉건 량반、승려들은 노비를 팔 수는 있었다。 물론 그들을 자의대로 죽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여 있었으며 또 개인적 로동에 기초한 사적 경영과 생산 도구에 대한 그들 노비 농민 및 노비(천인) 수공업자들의 개인적 소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 사회나 리조 사회에 있어서 농경에 종사한 노비는 농노로 보아야 하며 량반、승려들은 그들을 불완전 소유한 것이다。

세째로 지적할 것은 서술상에서의 부족점들이다。 저자는 고려 사회에서의 조(租)와 세를 분간하여 서술

하지 못하였다。 조는 지대의 중요 부분으로서 농노 농민들이 국가나 전시(토지)를 받은 량반들에게 바치는 수확의 一〇분의 一、또는 四분의 一을 말하는 것이다。 四분의 一세를 낼 때에 一결의 생산량을 三〇〇두로 치고 七五두를 조로 바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과로 량반들에게 토지를 주었을 때에 수세권을 주었다(동서 一五七페지 등)고 하기 보다도 수조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에 대하여 말하면 세는 三〇결 이상의 토지를 받던 자들에게서 一결에 대하여 처음에는 五승씩、다음에는 수확의 四백분의 一인 七승 五홉씩、즉 二〇결에 一석씩 국가가 량반들에게서 징수한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이 부담조차 경작자—농민이 전부 부담하였으므로 조와 세가 유착되여 리조 시기에 와서는 단순한 전세로 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도 고려 사회에서는 수조권과 수세권은 분간하여야 할 것이였다。

네째로 지적할 것은 고려 전기에 있어서의 화폐 류통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동서 一六六페지와 一九三—一九四페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류통을 시도한 경위와 또 류통하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들을 불만족하게 서술하였으며 또 화폐의 류통은 一一세기、一二세기를 절정기로 하였다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하여야 할 것이였다。 정확히 말하면 一一세기말과 一二세기초에 약간 류통되려다가 말았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에서 대장경을 조판한 경위에 대하여서 불교의 륭성에 따라 사원들이 다투어 대장경을 비치하려는 데 대한 국가의 경제적 견지도 고려되여야 할 것이였다。 그리고 거란의 침략 서술에서 동단국(東丹國)을 괴뢰 국가로 한 것은 오해이며 이것은 거란 왕족을 통치자로 한 거란의 분국(分國) 형태의 것이였으며 그 본질은 발해인을 역압하는 국가였다。 또한 거란의 고려 침입 목적을 지적함에 있어서는 송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조성에 있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제七장 一二세기의 농민 봉기는 우리의 중세사에서 빛나는 페지를 차지하는 줄기찬 계급 투쟁의 력사를 서술하는 데 중요하게 돌려졌다。 이 부문 서술은 생동적으로 서술되여 우리 인민이 계급 투쟁에서 발휘한 적극성과 용감성이 잘 서술되였다。

그러나 윤 관의 九성 축조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사업이 가진 중요한 의의가 강조되지 못하였다。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사업은 후세 함경도 개척 사업에 대한 고무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 녀진족의 금 나라와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부언하지만 강마군(降魔軍—동서 二一七페지)은 항마군이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농민 봉기에 관한 서술은 이 장에서의 기본 고리이며 그것은 정연하게 서술되였다。

그러나 근 三〇년간 앙양과 퇴조를 거듭한 이 봉기들에는 단지 최 충헌 집권기에 성행한 공 사 노비들의 폭동으로서만 봉기의 특성을 찾을 수는 없다。 일반적

으로 이 부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노비들이 궐기한 특성 이외에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을 설정하고 있는바 그것은 一一九三—九四년 경의 농민 봉기이다。 이 시기에 김 사미、효심 등이 지도한 봉기군은 정부군에 못지 않게 훈련되고 조직된 강력한 부대였다는 것이 학자들 간에서 거의 정설로 되여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발전한 원인은 다년간 지속된 봉기와 무신 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피하여 산중에 집결한 농민들이 군사적 훈련을 쌓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적할 것은 저자는 이 농민 봉기가 고려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과 의의를 지적하지 않았다。 최 충헌의 초기의 정책은 그의 회유 기만의 면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농민 봉기가 쟁취한 성과의 측면으로서도 서술되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무신 정권 시기를 단지 二중 정권(명목상의 국왕의 정권과 실제적인 무신의 집권)으로서만 서술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조성된 봉건적 활거성에 대하여 주목할 것이며 이 활거성이 공고화되지 못한 원인들도 분석되였으면 한다。

제八장과 九장에서는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한 고려 인민의 용감한 투쟁과 그들에 의한 심한 파괴를 서술하면서 고려 왕조를 교체하여 조선(리씨) 왕조가 성립한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 장들은 저자가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한 연구의 제 성과들을 간명하게 압축하여 서술하였으므로 론리의 전개상 아무런 무리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몇가지의 희망과 의견을 말하려 한다。 그것은

첫째로 몽고 침입시에 당시 집권자인 최 우가 취한 태도 문제이다。 저자는 동서 二五六페지부터 二五七페지에 걸쳐서 몽고 침략자들에 대한 최 우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몽고인 다로가치들의 주둔은 당시 고려의 집권자 최씨의 정치적 지반을 직접 위협하는 것이였다。 고려 왕실이 만약 몽고 세력과 결탁한다면 최씨의 사적 통치 체계는 존재할 수가 없게끔 되였다』라고 하였다。 이 서술은 정당한 분석이다。 그러나 다음에 저자는

『그렇다고 해서 최 우는 침략자와 항전할 의사나 용기도 없었다。 이리하여 최 우는 개경 이하의 주요 도시들에 다로가치들이 모두 배치되기 전인 一二三二년 七월에 강화도에로 천도할 것을 작정하고 이미 와 있었던 다로가치들을 처단한 후 주저하는 왕실을 강요하여 천도를 단행하였다。 개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 일파들과 왕실은 강화도에 二중의 성벽을 쌓고 三남으로부터 착취물을 운반하기 위한 해상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전함들을 이리로 집결시켰다』(방점 필자)。 침략자와 항전할 의사나 용기도 없은 최 우가 다로가치를 처단하고 왕실을 강요하여 천도하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는 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 우를 현재의 애국적 인민의 척도로써 잴 것이 아니라 봉건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정당히 인식한다면 그가 취한 대책중에서 긍정적인 일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가 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통치층에 대한 평가에서 일정한 계제를 설정하여야 정치사는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 우 집권 시기 및 그의 후계자들의 집권 시기에는 투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정히 평가하며 또 왕실 및 량반들이 투항을 자청하고 투항한 후에도 몽고 통치층은 고려에 대한 태도를 다른 피정복 국가에 대한 것과는 달리하였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고려 인민들의 용감한 항전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였으나 최씨 정권의 항전도 그 요인의 한 부문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로 보면 최 우의 태도에 대하여 약간 달리도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一二六三—一二六四페지에 걸쳐서 서술된 一二차의 『동정』에 대한 충렬왕을 비롯한 고려 정부의 태도이다。 저자는 여기의 서술에서 마치도 고려 왕은 이 부정의한 사업의 적극적인 앞잡이로 나섰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려사의 서술에서는 고려 정부는 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 및 일본의 중간에 서서 크게 노력한 것으로 되여 있으며 또한 이 부정의한 사업의 적극적인 앞잡이는 홍 다구(洪茶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충렬왕의 행동은 몽고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취하여진 것이였다。

다음으로 몽고 세력의 구축을 서술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지적되여야 할 것은 홍두군의 활동이다。 중국 대륙에서 몽고 압제자를 구축함에 있어서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바로 이 홍두군이며 곽 자홍이나 그 부하로 들어간 주 원장도 홍두군의 영향하에、더 정확히 말하면 홍두군 휘하의 남방 세력으로서 평가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홍두군은 제九장에서 고려사와의 련관성에서 서술되면서 그의 성격은 잘 분석되였으나 몽고 세력 구축에서 논 역할은 미약하게 취급되였다。

그러므로 필자의 견해로는 홍두군의 인민적 성격과 해방적 사명은 고려와의 관계에서보담 오히려 원 세력의 구축 부문에서 서술되였으면 한다。

제一○장—제一一장은 봉건적 발전에서 내부적 분해와 외래 침략자들의 파괴로 황폐화한 중세 조선이 다시 회복되여 우리 나라 봉건 력사상에서 최성기를 이룬 시기를 포괄한다。 저자의 정확한 력사관과 다년간에 걸친 전문적인 연구는 이 장들을 체계 정연하며 류창한 서술들로써 일관케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저자의 견해와 다른 몇가지 점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그것은 첫째로 세조 통치권의 수립을 새 세력과 낡은 세력의 대립 투쟁으로 보는 견해이다。 필자에게는 세조가 왕위에 앉을 때에 일으킨 살륙들이나 후세 궁정、량반 내부에서 진행된 살륙들 간에 무슨 큰 차별을 둘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서 동시에 집현전에 모여 든 봉건 인테리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획득한 낡은 세력으로 되였겠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궁중 사변들에 의하여 배제된 자들의 부가

처리된 정형을 보면 일정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범죄자』들에 대한 봉건 형법에 의한 처벌 방법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 정도의 토지와 노비의 몰수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이 정변에서 구태여 새 세력과 낡은 세력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새 세력이라면 그 어떠한 새로운 정치적 견해를 대표하는 듯한 현재의 어휘 사용례로 보아서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서술상에 있어서 좀 더 론리적으로 지적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은 훈구파들이 붕괴되여 량반 내부에서 사림파 일색으로 전변된 과정이다。 저자는 오직 말하기를 『결국 이 과정은 전체로서의 리조 봉건 통치 계급이 자기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학문적 리론을 소유한 신진 구성 부분들을 흡수하여 자기 대오를 강화하는 과정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였다』(동서 三六九—三七○페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인즉 사림파가 승리한 것을 새로운 학문적 리론을 흡수하여 봉건 정권이 자기 대오를 강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림파 정권이 성립되여도 리조 정권은 강화된 것은 아니였다。 이 부문 서술에서는 사림파들의 중앙 진출과 학문적 리론도 물론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는 하나 그들이 지방에서 향약을 실시하고 서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확고 불발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구축한 것이 훈구파의 해소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것이였다고 생각된다。

제一二장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一五九二—一五九八년 조국 전쟁에서 저자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 전통을 유감 없이 서술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장 연구와 서술에서는 전시중의 정치 경제적 동태에 대하여 약간한 서술을 가하는 것이 전쟁의 전반적 움직임을 리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一三—一五장에서 서술된 부분은 우리 력사학도들이 아직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채 남아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봉건 경제의 분해기에 처해 있던 이 시기의 경제면을 서술하는 데 많은 력량을 기울렸으며 새로운 연구의 성과로써 풍부히 하였다。

그런데 저자는 이 장들의 서술에서는 서문에서도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一八세기 이후 우리 인민의 이데올로기 생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학 사상과 천주교에 관하여는 그들의 사회 경제적 본질과 그들이 당시 사회 생활에서 수행한 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역할이 전면적으로 뚜렷이 서술되지 못한 점이 결함으로 지적되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서술상에 있은 부분적인 부정확성이다。 례하면 『一六三六년 一월 후금은 국호를 청(清)이라고 고치고 동시에 한(汗)이라는 원수(元首)의 칭호도 중국식으로 황제(皇帝)로 고쳤다』(동서 四二五페지)는 것은 一六三六년 三월 一一일의 일이였으며 또 인삼의 재배는 전라도、경상도보다 개성이 앞섰다는 것은 전도된 서술로 개성 인삼 재배는 전라、경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본 따서 한 것이다。 그리고 상업의 발전을 서술함에 있어서 청국과의 무역이 종전보

다 확장되게 된 원인들을 좀더 분석하였으면 한다(동서 四四一 폐지)。 그리고 정 다산의 저서로 지적된 마과전통(麻科全通)은 마과회통(麻科會通)의 잘못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一八一一—一八一二년 평안도 농민 전쟁 서술은 더욱 광범한 사료를 탐구하여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더 소개하였으면 한다。

* * *

이상에서 필자는 주로 이 저서의 서술 내용에 대한 개괄과 그에 대한 견해를 말하였다。 그런데 이 저서에서 표현된 결함들 중에서 심한 것은 오식과 오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 저서내에서의 오식에 관하여 말한다면 완전히 력사적 상식을 무지한 용어들이 목차로부터 절명과 내용에까지 들어 있으며(례하면 병역 제도를 방역 제도라 한 것)、 년대의 착오、중요한 숫자의 착오(도기의 제조에 四천도의 고열이 사용되였다거나 一석을 五두로 한 것 등등)、문장의 뜻을 달리할 수 있는 토 사용에서의 착오、인용부의 그릇된 사용으로 초래된 부정확성(고대사 부문) 등등 일일히 매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필자가 가한 비판도 이러한 오식에서 출발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도 많은 오식이기에 원 저자와의 사이에 충분한 련계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저서에서 사용한 력사적 지명에는 현재의 지명을 아울러 지적한 것도 있으나 그것이 없이 그냥 지나간 것도 허다하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현재 어느 곳인지 불명확한 데서 유래한 것도 있으며니와 명확한 것은 반드시 밝히는 것이 독자들에게 큰 편리를 주어 산 지식으로 접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저서는 명료한 도판을 삽입함으로써 우리의 고귀한 문화 유물을 뚜렷히 보여 주고 있으나 해당한 력사 지도의 첨부가 없으므로 저서 사용의 효과를 감소시켰으며 또 년표와 삭인을 첨가하였으면 이 서적으로 학습하는 학도들에게 더욱 편리할 것이다。이 저서가 재판되는 경우에는 저서의 서문에서 지적된 결함 이외에 이상 지적된 점들을 고려할 것을 제의하며 동시에 말할 것은 력사학 연구소는 더욱 풍부한 내용을 가진 조선 통사를 긴급히 저작하여 인민 대중들 속에서 앙양되고 있는 자기 조국 력사에 대한 연구열에 발맞추어야 하겠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저서는 체제상에서나 편집상에서나 또는 내용상에서 일정한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저서는 과학적 립장에 선 력사 서술을 위한 우리 력사학도들의 첫 성과로써 높이 평가되여야 하며 따라서 이 저서는 우리 력사학계 발전을 표시하는 로정표로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여 우리 인민들과 력사 학도들은 이 저서의 출현을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하였으며 자기의 조국 력사 학습에 대한 열의를 일층 제고하고 있다。

독자들의 편지

군당 위원회 지도원의 사업

나는 근 四년 동안 박천군 당 위원회 조직부 지도원으로 공작하고 있다。 나는 나의 편지에서 이 기간 나와 나의 동료들이 공작상에서 얻은 경험과 우리 군당 위원회가 지도원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배려하여 주었는 가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군당 위원회 사업이란 당과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창조적 사업인만큼 우리 지도원들의 사업도 창조적 사업이다。

이러한 창조적 사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원들이 당과 정부 정책을 깊이 료해하고 그를 대중에게 해석할 줄 알며 초급 당 단체들의 정형을 일상 장악하고 그들의 사업에 구체적 방조를 주며 당면한 문제들을 제때에 당 위원회에 반영할 줄 아는 정치적 수준과 실무 수준을 소유해야 할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실제 정형은、나 자신은 더 말할 것 없고 많은 지도원들이 그러한 준비를 못 가지고 당 지도원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러므로 군당 위원회는 응당 지도원들을 더욱 인내성 있게 양성하며 능력에 따라 대담하게 사업을 위임하고 그의 실행을 지도 방조하며 실제 사업을 통하여 교양과 훈련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기간 지도원들에게 이러한 지도 방조를 불만족하게 주었다。 지도원들을 육성 교양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착시킬 대신에 이러 저러한 구실로 빈번히 교체하였으며 쉬운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하고 힘든 일을 위임할 대신에 왕왕 준비된 정도를 벗어나는 지나친 과중한 과업을 질머지우므로 힘에 겨워서 지도원들로 하여금 위축하게 하였으며 또 사업에서 자신심과 흥미도 못가지게 하였다。

이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신임 지도원이니』 혹은 『훈련이 부족하느니』하면서 지도원들에게는 오래 동안 아무런 사업도 분공 주지 않고 있었으며 그 대신 비교적 훈련되고 사업 수준이 높다 하는 지도원들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량의 사업을 분공 주어 그들을 눈코 뜰 사이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지난 기간 얼마 동안 군당 위원회로부터 지도원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체계적인 교양과 훈련을 만족히 받지 못하고 어리 둥절하게 귀중한 시간만 쓸 데 없이 보낸 때도 있었다.

사실 우리 군당에서는 지난 시기 때때로 우리들이 한 사업 결과에 대해서 마땅치 못한 평가를 주기도 하였다. 그것은 지도원들에게 일상적인 지도와 방조도 주지 않으면서 별안간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초급 당 단체 사업을 검열하고 사업에서 기본적 병집으로 되는 결함을 들춰 오라는 것을 위임하며 그리고는 검열에서 큰 결함을 잡지 못하면 더퍼놓고 검열을 쓰게 못하였다고 나무리며 큰 결함을 들춰 오기만 하면 검열을 잘 하였다고 칭찬하는 것이였다. 그러므로 지도원들은 나무림을 받기 보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검열에서는 애를 써가면서 결함을 들춰 내여 때로는 과장하여서까지 상무 위원회에 보고하는 버릇을 갖게 되였던 것이다.

나에게도 이런 딱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나는 지도원으로 임명된 후 약 八개월이 되여서 국영 박천 견직 공장 초급 당 단체들의 기본 건설 사업 협조 정형을 군당 지도부의 위임에 의하여 검열한 바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때도 경제 건설에 대한 지식도, 당 사업 경험도 극히 불충분했다.

그러므로 경제 사업에서 당 단체들의 통제적 기능을 어떻게 높이며, 당 력량을 어떻게 포치하여 기술 일꾼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만족하게 검열해 낼 수 없었으며 따라서 『큰 결함』이 무엇인가도 분간해 낼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통계 숫자를 수집하고 몇몇 불평 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연구、분석、확인함도 없이 군당 상무 위원회에 보고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렇게 진행한 검열 결과가 사업 개선에 도움도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당 위원회의 지도 사업에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그의 위신에도 손상을 주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의 제한성과 군당에서 공작하게 된 후 나에게 형성되기 시작한 사업 작풍의 결과 초래된 것이였다.

그러나 그후 군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지도원들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점차 개선하였다.

지도원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군당 위원회에서는 상급 당의 결정 지시들을 군내 실정과 밀접히 결합시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방법적 문제를 가지고 매월 二차씩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출연하는 실무 학습을 조직하여 주었으며 또 하고 있다.

지도원들에게 주는 이러한 방조는 확실히 우리의 실제

사업에 도움으로 되였다. 그러한 강습을 통하여 우리는 상급 당의 결정 정신을 더욱 정확히 리해하며 당 사업 일반에 대한 지도 방법을 점차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그러나 가장 곤난한 것은 경제 사업、행정 사업、교육 사업 등 실제 사업을 잘 모르므로 그 부문 초급 당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할 자신이 없는 것이였다.

그러한 실제 사업을 깊이 연구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능력상 제한으로 여러 부문의 사업을 다 능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힘에 겨운 일이였다. 원래 수준이 미약한 데다가 더우기 지도를 담당한 초급당 단체가 사업 부문별에 의하여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고 변동이 빈번한 것은 어느 한 부문 초급 당 단체에 대한 지도도 능숙히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정형에 비추어 군당 위원회는 매개 지도원들에게 산업、농촌 경리、사무 직장 등 부문별로 사업을 담당시키고 계통적으로 그 부문 사업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나는 산업 부문을 담당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나는 매월 一五일 이상을 초급 당 단체에 내려가 그 부문 사업을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내였다. 한꺼번에 많은 초급 당 단체를 지도할 수 없어서 한 달에 二—三개 초급 당 단체 사업을 직접 내려가 배우며 지도하였다. 기타의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하여는 내가 지도한 당 단체의 사업 정형에 비추어 일정한 문제를 연구 정리시켜 군당 위원회에 제기하여 때때로 초급 당 단체 위원장들의 사업 경험 교환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번잡한 회의가 많아 질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초급 당 단체 자체가 자기 사업을 정리 연구함에 있어서와 그에 대한 지도원들의 지도 사업에 좋은 경험을 주었다.

얼마 전에 『개별적 당원들과의 사업 경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초급 당 단체 위원장들의 경험 교환회가 있었다.

거기에서 체신부 초급 당 단체 위원장 동무가 발표한 경험은 다른 당 단체들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일부 당원들이 부화、방탕하며 사업에 불충실한 사실을 알고 그를 비판 시정시키기 위하여 우선 그들과 접촉을 강화하였다. 그들과의 접촉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취미를 연구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장기』、『체육』을 통하여 친근하게 접촉하면서 그들이 당 생활에 성실치 못하고 부화하게 된 원인과 동기를 더욱 정확히 료해하고 그에 적당한 비판과 충고를 계속하므로 그를 시정하게 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당 사업이란 구체적 정형을、우선 당원들을 잘 료해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이러한 것을 명심 하면서 나는 직접 초급 당 단체에 침투하여 노력함으로써 생산 사업 지도에 대한 자신심이 차츰 제고되였다.

내가 생산 부문 지도를 담당한 후 군당 위원회는 매월 一—二차씩 전문적인 경제 일꾼들을 초빙하여 『기업 관리 운영과 독립 채산제 실시』、『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제 방도』、『설비 리용률 제고 문제』등등 강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앞에 출연케 하여 주었다。이 밖에도 기술적 문제들인 기대의 조종법、기계의 도해、빠스 볼트 등에 대해서도 좋은 강의를 우리에게 주었다。군당 위원회의 이러한 지도와 방조 사업은 확실히 우리들의 경제 사업에 대한 시야를 넓게 하여 주었다。또 최근에 와서 군당 위원회는 종전에 지도원들을 산만하게 준비 없이 하부에 파견하던 결함을 시정하고 초급 당 단체들에 지도원들을 파견함에 앞서서 위원장、부위원장들、각 부장들이 지도 요강을 집체적으로 토의 작성하여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지도원들이 수행한 사업을 제때 제때에 총화하여 평가하여 주고 있다。이러한 구체적인 지도 방조에서 우리 지도원들은 자기 사업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최근 一개월간 박천 견직 공장 직포 직장 초급 당 단체를 지도하였는데 이전에 비하여 훨씬 효과 있고 또 좋은 방법으로 사업하였다。군당 지도부가 준 방조와 구체적 조언들에 의거하면서 나는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자신 없는 태도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자신을 가지고 초급 당 단체 위원장과 함께 『초급 당 단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의 집행 방법、개별적 당원들과의 사업 방법、결정 실행 총화 방법 등을 토의하여 방조를 주었다。이 행정에서 나는 강 봉옥 동무가 창안한 二인조 작업 방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보급시킬 것을 군당 위원회에 제기하여 지지를 받았다。그리하여 그를 보급시키기 위하여 초급 당 단체를 방조하며 분조 선동원、생산 혁신자들과의 사업에 심입하여 광범한 열성자들과 련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제의와 발기를 지지하여 二인조 작업 방법을 광범히 일반화하였으며 생산 혁신자들의 대렬을 확대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이 사업지도에서 내가 가지게 된 자신이란 우선 무엇보다도 내가 이 공장의 생산 관리 사업 정형과 당원들의 정형을 기본상 료해하게 된 데서 생기게 된 것이며 또는 군당 위원회가 진행한 당 결정에 대한、경제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양 사업에 의하여 생기게 된 것이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 사업 내용을 모르고는 해당 부문 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또 우리 지도원들이 그를 배우고 옳은 지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 정책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사업을 통하여 배우고 연구하여 창발적이고 궁정적인 경험을 당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의하여야 한다는 그것이다。

나의 경험에는 내가 맡은 전문 부문에 대하여 얼마간 자신이 생기는 반면에 다른 애로의 하나

가 있었다。그것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며 매 시기 군당 위원회 앞에 제기되는 전반적 사업에 대한 료해와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부문 사업을 감당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을 당 위원회 전반적 과업의 련계 속에서 잘 수행 못하며 초급 당 단체 지도 행정에서 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옳은 해답을 주지 못하는 부서주의적 편향에 빠지는 것이였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군당 위원회는 부서간의 사업상 련계를 강화하며 경제 지식의 호상 보충、교환도 할겸 정기적으로 집체적 토론회도 조직하여 주었다。우리 지도원들은 이러한 방조를 받으면서 점차 부서본위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여러 부문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치 리론적 수준이 더욱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였다。그러므로 우리들은 최근 자기의 정치 리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당 사업 방법을 학습하는 외에 一〇명의 지도원들이 군당 위원회의 방조하에 통신 중학교와 통신 고급 중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

우리 지도원들은 자기의 정치 실무적 자질을 향상시키면서 당 사업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결심을 다지고 있다。

박천군 당 위원회 조직부

지도원 백 경 선

년간 결산 분배 사업의 정확한 보장은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 제고의 중요 조건

우리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와 근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가하에 북반부 농호의 七〇% 이상을 망라하고 있는 농업 협동 조합들은 농촌의 결정적 력량으로 되였다。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금년도의 영농 사업에서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발휘하여 함북도와 기타 일부 자연 재해가 심하였던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이리하여 각지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풍요한 수확의 기쁨 속에서 자기 조합의 一년간의 생산 및 경리 활동을 결산、총화하고 수입을 분배하는 년간 결산 분배 사

업을 목적에 맞이하게 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년간 결산 분배 사업을 옳바로 진행하는 문제는 조합원들의 공동 생산에 대한 물질적 관심과 생산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기존 조합들을 공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개인 경리에 머물러 있는 농민 군중을 자원적 원칙에서 인입시켜 농업 협동화 운동을 완성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지난 시기에 우리의 경험은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 협동 조합들의 년간 결산 분배 사업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하여는 당 단체들의 옳바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여 준다。

一九五四년도에는 一、〇〇〇여 개의 조합이 운영되였는데 물론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없는 탓도 있었겠지마는 주로는 지방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들의 지도와 방조가 미약한 데로부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수입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범하였으며 조합 관리 운영에 존재하는 제반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극복、시정하며 조합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개선 발전시킬 데 대한 실제적 대책들을 강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一九五五년도에는 一一、〇〇〇여 개의 조합이 조직 운영되였는데 우리 당 중앙이 조직한 농업 협동 조합들의 년간 결산 분배 사업에 대한 동기간 집중적 지도 방조 사업에 의하여 이 사업이 조합원 대중의 높은 정치적 열성 속에서 기본적으로 옳게 보장되였다。

그리하여 이 사업을 통하여 로동과 분배에서 사회주의적 질서가 확립되고 조합 공동 경리 발전을 위한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과 책임성이 현저히 제고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난해에 부분적인 지방이나 조합들의 결산 분배 사업에서 혼란과 결함들이 전연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더구나 앞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복잡한 이 사업에서 각종 편향들이 발현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난 기간 이 사업에 대한 지도 경험에 비추어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년말 결산 분배 사업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 방침을 관철할 데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기하려 한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공동 생산에 대한 물질적 관심과 생산 열의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수입 분배의 기본 척도로 되는 매개 조합원들이 수득한 로력일을 그들이 소지한 로동 수첩과 로력일 계산장을 대조하여 정확히 집계 계산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반드시 작업반별로 로력일 투하 계획대 실적을 검토하면서 로력일 계산이 오직 등급별 작업 정량에 의한 도

급제 원칙에서 매개 조합원들이 수행한 작업의 질과 량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도록 보장하며、동시에 조합 관리 일군들과 작업반장들의 로력일은 농업성령 제一三호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및 작업반장들의 로력 보수 개정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수입 분배에서 이러 저러한 평균주의적 경향들과 불공평한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로력일은 오직 조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부문에 한하여 지불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조합 생활에서 불가피한 각종 회의 및 단기 강습들에 참가한 일군들의 로력 보수는 그것이 조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정으로 그가 그 기간에 실지 수득할 수 있는 로력일을 참작하여 적절히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로력일 계산에서 류의할 점의 하나는 작업반장들의 정치적 및 실무적 수준이 어린 데로부터 조합내 개별적 작업반 호상간 조합원들의 로력일 수득상 불공평이 조성되였을 경우에는 이를 총회의 토의를 결쳐 적절히 시정하는 문제이다。

만일 조합내 어떠한 작업반에서 정실 관계 및 기타 원인으로 로력일을 랑비하였거나、또는 부당 지출한 것이 명백하다면 로력일을 그만큼 삭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조합내 어느 한 작업반에서 로력일을 작업 정량에 엄격히 의거하여 지불하지 않고 망탕 지불합으로써 각 작업반 간 수입 분배상 불공평이 생겼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반의 로력일 투하 실적을 생산 계획 및 로력일 투하 계획에 대조함과 동시에 지불된 로력일 수를 작업 정량에 비추어 재평가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불공평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매개 조합원들의 로력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공시 확인한 기초 우에서 수입 분배를 실시할 것인바 조합 공동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 많은 로력일을 수득한 조합원들은 사회적으로 높이 찬양하고 그들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수입이 차례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고무하는 동시에 전체 조합원들이 앞으로 더 많은 로력일을 획득하기 위하여 조합 공동 생산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수입 분배에서 또한 고려되여야 할 문제는 조합내에서 로력이 부족하여 생활이 곤난한 인민 군대 후방 가족、애국 렬사 유가족、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영예 군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은 이들의 당면한 생활 안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합의 앞으로의 공고 발전을 위하여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一九五六년도 농업 현물세와 국가 대여곡 및 과년도 미납곡을 감면할 데 관한』 내각 결정 一〇〇호를 정확히 집행하는

이외에도 지방 실정, 특히 해당 조합들의 실정에 따라 창발적인 방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금년도 이양 및 제초 시기에 국가 정무원, 학생, 인민 군대들이 로력 협조에 동원되여 수특한 로력일이 있다면 내각 부수상 지시 二〇호에 근거하여 이러한 로력일에 대한 분배량의 六〇%정도를 생활이 곤난한 조합원들의 방조에 돌리도록 할 것이며 혹은 조합 실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결정으로 조합 수입 중에서 일정한 원호 폰드를 설정하고 이로써 적절한 원호를 실시하는 등 방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외에도 로력 부족, 로쇄, 병약, 기타 이주 관계 등으로 조합 공동 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곤난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호상 부조의 정신에서 사회적 원호, 대여, 기타의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조합내에서 식량 부족, 기타 생활 곤난 등으로 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결산 분배에 앞서 농산, 축산, 기타 각종 부업 정리 등 전반에 걸쳐 현물 및 현금의 총 수입을 빠짐 없이 정리 확정할 것인 바 이는 국가 및 자체 계획 과제 실행 여부를 밝히며, 수입 분배와 물질적 우대 및 보상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기초로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수확물에 대한 추수와 탈곡 사업을 적기에 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 시기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로력 조직을 잘하지 못하고 규률과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여 수확물의 추수 운반 및 탈곡 과정에서 허실, 도난, 략취 등 현상들이 발생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조합원들의 실질 수입을 감소시킨 사실이 있었는 바 우리는 금년도에 이러한 현상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탈곡 사업을 결산 전에 완전히 끝마치지 않고 예상 수확고에 의하여 결산함으로써 분배에서 부정확성과 혼란을 가져 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추수 운반 및 탈곡 사업은 반드시 각 작업반별로 진행하되 북데기, 뒤목, 벼짚 등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한 알의 손실도 없도록 할 것이며 탈곡과 정선이 끝난 뒤에는 작업반장들의 생산 보고에 근거하여 일일이 검근 확인하면서 조합 창고에 입고시킴으로써 각 작업반별 수확고와 아울러 조합 총 수확고를 확인하는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현금 수입의 확정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 부업 생산물들의 판매 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빠짐 없이 계산, 확정하며 결산 전까지 각종 외상 거래들을 정확히 결속지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공동 생산물에 대한 옳은 보관과 경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화재, 도난, 기타 불의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결산 분배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분배와 축적간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는 문제이다。

물론 농업 협동 조합들의 정상적인 강화 발전을 위하여서는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및 생산적 방조 이외에 조합 자체로서 공동 경리의 물질적 토대를 점차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 협동 조합의 공동 축적금과 사회 문화 폰드는 조합 공동 경리의 확대 발전을 위한 물질적 원천이며 조합원들의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금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것이다。

또한 전후에 있어서 우리 당과 정부의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과 근로 농민들의 로력 투쟁의 결과 생산이 제고되여 그들의 생활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조합 생산을 확대하면서 견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이 아직도 혹심하였던 전쟁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조합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점차 향상시키는 것이 곧 농업 협동 조합을 공고 발전시키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년간 결산 분배에서 공동 축적금 및 사회 문화 폰드를 기계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또는 일부 반농 반어 협동 조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확 천금을 꿈꾸어 투기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등 현상을 배격하고 어디까지나 조합의 구체적 실정과 전망 계획에 부합되게 공제하되 되도록 분배를 많이 하여 절대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보다 당면 생활이 향상되도록 보장하는 데 류의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별적 협동 조합들에서 경제적 성과도 우수하며 조합원들의 생활도 안정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축적금 및 사회 문화 폰드를 옳게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나누어 먹는 데만 위주하는 경향들도 배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 해에 소요되는 종자, 비료 교역곡, 사료 폰드들을 정확히 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산 분배에 앞서 고정 재산을 비롯하여 각종 자재, 농기구 및 각종 수확물, 부업 생산물, 현금 등 조합의 일체 재산을 정확히 실사 등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조합 관리 위원장, 검사 위원장, 부기원 및 기타 열성 조합원을 성원(조합 실정에 따라 적당한 인원)으로 하는 실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현물 재산 및 보유 현금을 직접 점검 확인한 다음 해당 장부상 잔고와 대조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사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품종별에 따라 그의 질과 량을 정확히 검량하는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그의 과부족 관계를 확인하고 현물 및 현금의 어느 것을 불문하고 부당 지출을 용납하지 말며 물자의 보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갑모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책임질 조합원으로 하여금 보상케 하는 제도와 규률을 강화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불가항력적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비준 밑에 적당히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결산기까지에 미결로 있는 일체 거래를 기장하며, 조합의 년간 생산비 및 관리비 등 지출들을 증빙 문건과 장부 기장 자료들에 의거하여 정확히 검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산 분배 사업을 계기로 하여 일체 채권을 정확히 회수하며 동시에 당년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정확히 상환하는 방향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년말 결산 분배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조합 검사 위원회가 놀아야 할 역할이 크다.

조합 검사 위원회는 규약상에 규정된 자기의 임무에 따라 조합 관리 위원회가 진행한 일체 수입 지출 정형과 국가 의무 납부 정형, 기타 조합 및 조합원들의 리해 관계와 결부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여 총회 앞에서 책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은 수입 분배에 앞서 농업 현물세, 농기계 임경료, 관개 사용료 및 각종 국가 대여곡 등 제반 국가적 납부 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수행하여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동시에 개별적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각종 국가 대여곡을 제때에 정확히 납부하도록 할 것인바 조합적으로 우선 그를 상환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들에게 대한 전불 형식으로 정리하였다가 그들의 분배 몫에서 공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각급 당 단체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은 농업 현물세법의 개정에 따르는 과세 부담의 경감과 고정 현물세 제도에 의한 국가적 특전들과 그리고 내각 결정 제一〇〇호에 의하여 돌려지는 국가적 배려들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들 속에서 구체적 사실로서 선전 해석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에 고무되여 보다 높은 자각적 로력 투쟁을 전개하도록 추동하는 정치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급 당 단체들과 지방 정권 기관들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년말 결산 분배 사업을 통하여 농업 증산 경쟁 운동을 정확히 총화하고 특출한 생산 성과를 달성한 조합 일꾼들에 대한 국가 표창 제도와 모범 농업 협동 조합 창조 운동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는 동시에 특히 조합내에서의 물질적 우대 및 보상제를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앞으로의 농업 생산

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합원 대중의 높은 열성과 창의 창발성을 제고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 협동 조합내에서 작업반에 맡겨진 생산 과제의 실행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물질적 우대 및 보상 제도는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과 창의 창발성을 조장 발전시키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느니만큼 이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는 각종 편향들과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정한 틀에 맞추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본 제도가 가지는 기본 정신을 견지하면서 어디까지나 조합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게 조직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과 창조적 로력 투쟁을 강화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우선 작업반 단위로 수확물의 탈곡 사업을 옳게 보장하며 그의 수확고를 정확히 계산 확인함으로써 이를 년간 과제에 대비함과 동시에 로력일 투하 실적을 계획과 대비 검토한 기초 우에서 해당 작업반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우대할 것인가, 혹은 보상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만일 작업반간에 생산 과제 또는 로력일 투하 계획이 년초에 불합리하게 부과되였거나, 또는 도중에 담당한 경지를 변동시킨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비준을 얻어 해당 작업반의 생산 과제 및 로력일 투하 계획을 적당히 조정 변동시킨 기초 우에서 그들이 생산 과제를 초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응당한 물질적 우대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금년도에 적지 않은 농업 협동 조합들이 국가 계획 과제에 비하여 훨씬 초과 생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해당한 조합들에서는 구체적 정형에 따라 물질적 우대를 자체 실행 계획에 기초하여 진행하거나 또는 초과량에 대한 우대 비률을 어느 정도 낮게 설정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생산 작업반들에 대한 현물 우대제 실시와 함께 직접 생산 부문을 담당하지 않은 건설 작업반 또는 기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년간 사업 수행 정형에 따라 총회의 결정으로 일정한 현물 시상제를 실시하는 것도 그들의 로동 열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년간 결산 분배 사업이니만큼 조합의 전 년간에 걸친 관리 운영 행정을 매개 작업반으로부터 조합 사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비판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그의 우수한 경험을 계속 발전시키고 일반화하는 한편 나타난 제반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극복 시정할 데 대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여야 할 것이다.

년간 결산 분배 사업이 조합 사업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자각적인 참가를 보장하며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민주주의적 관리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며, 조합이 처한 자연 경제적 조건들과 온갖 예비 원천들을 남김 없이 생산에 동원 리용하며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여 로력 랑비를 퇴치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할 데 대한 방도를 강구하며 반드시 등급별 작업 정량에 의하여 로동을 실시하고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로력일 계산 제도와 공동 재산 보관 관리에서의 책임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

각급 당 단체들과 농촌 지도 일군들은 농업 협동 조합들의 년말 결산 분배 사업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정확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의의를 조합내 당원들과 전체 조합원들 속에 광범히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이 사업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의 준비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며 특히 이 사업이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인만큼 조합 관리 간부들이 이 사업 보장을 위한 자체의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추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당면한 지도 사업에서 중심을 이 사업의 정확한 보장에 돌리여야 하며 특히 일부 지방 또는 조합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 결산 분배 사업을 해 보았으니 금년에는 의례히 잘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사소한 방심이나 무관심성과도 투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 종 팔

문—인민 경제 계획 작성에서 균형은 무엇에 근거하여 설정되는가?

답—인민 경제 발전에서 옳바른 상호 관계와 균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선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이다.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은 사회적 재생산 행정의 정상적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유지되여야 할 일반적인 상호 관계와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들어 본다면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소비재 생산에 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이 보장되여야 하며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 재생산과의 상호 관계를 옳게 유지하여야 하며 확대 재생산의 유일한 원천은 축적인 동시에 그것은 사회의 순소득에 의해 형성된다는 그것이다. 그리고 사회 총 생산물과 국민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며 그 결과로써 보상 폰드, 축적 폰드 및 소비 폰드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리용되는가이다.

이상에서 해명된 제 원칙들이 준수되지 않고는 어떠한 사회 제도하에서도 재생산 행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수 없으며 인민 경제 발전에서 균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경제 계획화에 있어서 옳바른 균형을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맑스—레닌주의의 재생산 리론의 기본 명제들에 립각하여 계획 기간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 수행에 알맞게 이 명제들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자본주의하에서와는 달리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균형이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과 그에 기초한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의 균형은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 발전의 매개 단계에서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을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어느 정도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처하고있는 국제 국내 정세, 생산력의 발전 수준 등에 의존하게 된다.

동일한 생산력 발전 수준에서라 할지라도 국제 국내 정세의 긴장 정도, 전쟁 시기, 평화 시기에 따라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며 그에 적응하여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균형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과 같이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발전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나라들은 완전한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초 우에서 상호간의 경제적 협조와 국제적 분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에

서 자기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상호 관계와 균형을 설정 하고 있다。

또한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따라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그에 적응하여 경제 발전에서의 균형도 부단히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 발전에서 모든 조건에 적응하는 고정 불변의 균형이란 있을 수 없으며 경제 발전의 매개 단계에서 부단히 변화되며 낡은 상호 관계와 균형은 타파되고 새로운 상호 관계와 균형이 부단히 교체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의 균형은 맑스—레닌주의 재생산론에 의거하며 경제 발전의 매개 단계에 있어서 국제 국내 정세、생산력의 발전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 충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제 조건과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 기간의 균형 설정을 본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적으로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당과 정부는 어떠한 객관적 조건에 기초하여 이상과 같은 경제 정책을 취하게 되였으며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의 균형은 이 시기에 어떠한 정치 경제적 과업 수행을 위하여 설정되였는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맑스—레닌주의의 재생산론에 립각하는 것이며 전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 현실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업、특히 중공업 부문이 심대한 피해를 입은만큼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파괴된 인민 경제의 급속한 복구 건설을 위한 물질적 토대로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장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닦을 수 있으며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청산하며 따라서 인민 경제의 장래 발전과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을 위한 물질적、생산적 토대를 닦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없이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하여 혹심하게 저하된 인민 생활의 물질적、문화적 수준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당과 정부는 전후 시기에 특히 인민 생활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후 복구 건설에 궐기한 우리 인민은 형제적 제국가 인민들로부터 방대한 물질적—기술적원조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전후 시기에 조성된 이와 같은 경제적 제 조건과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 수행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인민 생활의 개선 향상을 위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 데 더욱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전후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계획화는 이와 같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 재생산론과 우리 나라가 처한 국제 국내 정세、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경제 형편들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당면하게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공업과 경공업、공업과 농업간의 균형을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 계획 작성에서의 균형은 맑스—레닌주의 재생산론과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것이다。

문—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그를 리용하는 사회 경제적 근거는 어데 있으며 그 구체적 방도는 어떤 것인가?

답—우리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요소들을 근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시하고 개인 농민 경리와 수공업을 협동화하는 동시에 개인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청산하고 그것들을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변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개인 상공업을 제한 리용하면서 그들을 점차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그를 리용하는 사회 경제적 근거는 어데 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일제 통치하에서 조선 중소 상공업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조선의 예속 자본가、지주의 심한 압박을 받았으며 부단히 파산 령락의 길을 걸어 왔다。 그리고 오늘 남반부의 중소 상공업자들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조선의 예속 자본가、지주들의 압박과 과중한 세금、자재、자금난 등으로 파산을 당하고 있으며 그들 중 많은 부분이 실업군에 편성되고 있다。

조선의 중소 상공업자들은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처지로부터 기본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나서게 된다。 이 점에 의하여 그들은 반제 반봉건 혁명 단계에 있어서 조선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 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도 로동 계급이 그들의 리익을 보살펴 주는 동시에 그들의 사업상 생활상 출로와 광명한 전도를 제시하여 주는 이상 그들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이바지하게 된다。

사실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의 개인 상공업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보호와 백방의 배려 밑에 항상 자유롭고 안정된 경제 활동을 하여 왔다。 그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을 받들고 평화적 건설 시기에 민주 기지를 건설 강화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매국 도당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화국 북반부의 개인 상공업자들은 반제、반봉건 민주 혁명에 있어서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 동맹의 령도하에 혁명의 한 동력으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혁명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력량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사회 발전 과정은 개인 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그의 리용의 필요성 및 그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오늘 우리들은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 제국주의 자들의 야수적 만행에 의하여 우리 인민 경제의 각 분야뿐만 아니라 각개 우리 공민의 개체 생활로부터 전국가적 생활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손실과 파괴를 당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파괴된 인민 경제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방대한 건설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과 자재와 로력이 요구되며 국내의 모든 자원과 로력을 최대한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들은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방조를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 공화국 북반부 경제에서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압도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정책과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이고 헌신적 로력에 의하여 우리 인민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민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 걸쳐 웝낙 방대하고도 대규모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큼 사회주의 경제 부문이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에 요구되는 소소한 부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요를 다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물론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경제에서 개인 상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 그러나 그들은 일정한 자본과 시설과 생산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옳게 리용한다면 그것은 개인 상공업자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것이며 우리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도 유익한 것이다。 여기에 개인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그를 리용할 사회 경제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과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 상공업을 리용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개인 상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시설、생산적 경험 등을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과 정부는 그들의 정당한 기업 활동을 간섭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으며 그 기업의 규모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와 우리 인민생활 향상에 유익한 것이라면 그를 저지하지 않고 장려 보장하고있다。

만일에 어떤 개인 상공업자가 국영 경제 부문과 협동 단체 경제 부문의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와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하고 유익한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자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국가 기업소들의 유휴 자재나 또는 폐기 폐잔물을 알선 공급하여 주며 또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도 방조하여 주며 국가적 대부도 줌으로써 그들의 기업 활동을 방조하여 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개인 상공업자들의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개인 상공업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배려의 시책들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첫째로 국영 경제 부문과 협동 단체 경제 부문이 미쳐 손이 완전이 미치지 못한 분야에서 소소하나마 필요한 기자재、생활 필수품들을 보충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며、둘째로는 개인 상공업자들이 국가의 조세 체계를 통하여 자기의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에 요구되는 방대한 자금의 일부를 보충하며、세째로는 류통 부면에서 소생산자들의 일부 생산물을 소비와 련결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지방 자원 리용과 생산 의욕을 자극하며、네째로 아주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국내의 로동력 예비의 취업을 해결하며、다섯째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인 상공업자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 향상시켜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상공업이 과도기 현단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잊어서는 결코 안된다。

우라는 오늘 개인 상공업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측면들을 리용하는 동시에 개인 상공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점차로 그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개인 상공업자들의 생산의 근본 목적은 리윤을 취하려는 데 있다。 그런 것만큼 개인 상공업자들의 기업의 규모가 아무리 적다하더

라도 그것이 리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경리 형태인 만큼 많으나 적으나 우리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손해를 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일부 개인 상공업자들 가운데는 자칫하면 부당한 리윤을 취하려고 국가의 제반 법령들과 규정들을 위반하고 자기 기업에서 사용하는 로동자、 사무원、 기술자들을 부당히 착취하며 투기 모리 행위로써 시장을 교란하며 고리대금업을 하며 부정한 도량 형기를 사용하는 등 국가의 번영과 인민 생활에 해를 끼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개인 상공업자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 장려하는 동시에 개인 상공업자들이 이와 같이 우리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해를 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는 엄격히 통제 제한함으로써 개인 상공업자로 하여금 우리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유익하게 복무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우리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반드시 개인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조 일석에 되는 일이 아니며 또 단순하고 간단한 일도 아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인민 생활에 요구되는 소소한 부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요를 국영 경제 부문에서와 협동 경리 부문들에서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미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들을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더욱 공고화시켜 그것이 개인 경리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개인 상공업자들에게 실지로 보여 주며、 개인 상공업을 리용하면서 제한하며、 제한하면서 리용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정책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그들을 어디까지나 자원적 원칙하에 생산 협동 조합에 인입하거나 또는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점차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근로자 제一一호 (루계 제一三二호)
一九五六년 一一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六년 一一월 二五일 발행
편집 위원회
발행소 근로자사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ㄱ—40294호 값 45원